30대째 오오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아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 비록가 보드맨 3종금리도 '내맘대로 재정금리로'
■ 고객자금 주체자금 경조사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7월 1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한 티끌 속에도 온 우주가 포함되어 있고, 한 생각의 찰나 속에도 영원이 포함되어 있다 〈의상대사 법성게〉

법회 안내

묘각사 (02)763-3345
일요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영산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불교문화초급학교 매주 수 · 목 오후 2시~4시까지
청수사 (02)816-1290
지상일등참불사 매주 일 오전10시
수요정진법회 매주 수 오후7시
화엄화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한문교실 매주 월~금 오후4시
대구 한마음선원(053)426-2779
수련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 · 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5시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일반신도법회 매월 둘째주 일 오전10시30분
거사림법회 매주 목 오후7시30분
금요법회 매주 금 오전10시30분
제주 죽림정사 (064)56-1345
수련회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주부경전읽기법회 화 오후2시
원각사(0394)33-0001
일반신도법회 매주 금 오후8시
신중기도 매월 1일~3일(양)
인동 유일사(0571)858-0198
정기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인명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청평사(0361)54-1092
일반신도법회 매월 1 · 15일(음)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금주 20면 발행

"사이비승 뿌리 뽑겠다"

'소쩍새 충격' 확산…조계종·종단협·경찰청 연계 대처

자비의 화신으로 알려졌던 소쩍새 마을의 일련이 사실은 추악한 과령치범이었음이 드러난 지난 4일 MBC—TV PD수첩 '소쩍새 마을의 진실'이 큰 충격을 주면서 이를 계기로 사부대중 모두 사이비 승 퇴치에 주력하자는 소리가 높다.

교계의 대표적인 부랑인 · 장애인 보호시설로서 후원회원만 7만여명이 넘는다는 '소쩍새 마을.' 스님이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보시를 아낌없이 한 7만여 후원회원을 비롯 불자들은 마치 농락당한 듯한 분노, 배신감, 허탈감에 빠져 있다. 또한 신행중 으뜸인 '보시행'이 이렇게 참담하게 우롱당한데 대한 분노로써 신행신활의 회의마저 느끼고 있는 불자들이 많다.

'일력' 사건을 기화로 승려도 아니면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다니며 복지사업에 뛰어들거나 약 · 부적 · 책등을 강매하는 행위, 불사하는 사찰에서 법원비 · 재비를 뜯어가는 사이비 승려 근절 대책에 조계종이 적극 나섰다. 호법부는 탁발승 유랑걸승 등 사이비승려를 수십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에는 군소종단 승적을 갖고 있거나 멀빈자 등 무승적자가 대부분. 호법부는 지난 6일 사이비승려에 관한 신도및 대 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사이비 승려들의 불법행각 발견시 호법부(02-735-1769)나 각 교구 본사 호법국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조계종은 호법부의 조사나 단속에 사법권이 없음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을 감안, 경찰청과 내무부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타종단과 연대해 단속할 수 있도록 종단합 차원의 대책을 강구 하고있다.

안으로는 싹아들어가면서 겉으로는 보살의 화신인 듯 보인 인면수심 '일력'의 사건은 출가의 본 의미를 망각하고 파계를 다반사로 여기는 일부 승려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한국불교가 아직도 여러 면에서 개혁돼야 함을 경고해 준다.

막행막식을 무애행으로 호도하며 파계에 스스럼이 없는 일부 승려들의 의식이나 스님들의 파계를 은연중 조장 방조하는 일부 신도들의 행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충분한 수행을 쌓기도 전에 존만 있으면 쉽게 승려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일부 문제성있는 종단이 버젓이 불교종파로 행세하고 있는 것도 불교를 좀먹어 가는 한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다.

대다수 불자들은 일력의 파렴치행을 반조의 거울로 삼아 사부대중 모두 승풍확립과 파사현정을 지향하는 올곧은 의식개혁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법타스님(오른쪽)을 비롯 총무원 간부 및 직할사암 주지,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은 안국동 현합의 집에서 현합을 허며 삼풍 부상자들이 빨리 쾌유하기를 기원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삼풍 아픔나누기 불자들 나서

사후대책 강구 '부실추방 말로는 안돼'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다시한번 보여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6일 1시까지 사망 1백27명, 부상 8백56명, 실종 2백95명등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사고현장 곳곳에서 아직도 실종자 사체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등 5개 건설관계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여야는 지난 5일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의 원인 규명과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사고처리와 사후대책 강구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는 사고직후부터 현장지휘체계, 전문구조인력 및 구조장비의 부족, 구조대원들에 대한 행정지원체계 미흡 등 많은 문제점들을 들춰내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 불교계에서도 조계종을 비롯한 여러 종단과 사찰, 단체등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성금과 구호물품을 전달했으며 불자자원봉사자들이 음식제공 등의 활발한 활동을 구조현장에서 펼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온갖 불합리한 제도적 규제와 행정관행의 개선 등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온자 기자〉

각계 분노의 소리 2면 / 참사현장에 핀 자비 3면



◇7월2일 해방후 처음으로 남북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제에 의해 희생된 동포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법요를 공동으로 봉행했다.

'남·북 불교 동경회의' 무산

정부 접촉 불허…희생 동포 위령법회 봉행

남북불교대표들과 재일본불교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3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조국의 평화통일과 불교도들의 역할에 관한 제1차 동경회의'가 정부의 북한주민 접촉불허로 무산됐다. (관련기사 16면)

한국의 종단협의회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재일본한민족불교도총연합회(한불련)와 재일본조선불교도협회(조불협)는 이날 동경 가든팔레스호텔에서 4자회의를 열고 평화통일을 위한 불자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공동행동과 공동모임의 적극추진 등 5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었다.

제1차 동경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한불련과 조불협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미 준비된 공동선언문에 추후 종단협회장 월주스님과 북측의 박태호 조불련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남북대표들이 합의한 날짜에 일본에서 동시에 발표키로 했다.

4자회의 대표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측 대표 서봉(종단협 부회장, 단장) 지공(진각종 전 통리원장) 법타(조계종 총무부장) 시현(조계종 문화사회부장) 설송(조계종 사업부장) 이건호(한국불교방생회장) △북한측 대표 황병대(조불련부회장) 외 4인 △재일한불련 대표 석태연(한불련회장) 와 4인 △조불협 대표 홍보월(조불협 회장대리) 외 4인.

이에앞서 지난 2일에는 조국통일을 기원하고 일제당시 숨진 희생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동 위령법요가 일본정토종 총본산 동경 증상사에서 봉행됐다. 〈일본=정성운기자〉

목어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지 않았나.

'소쩍새 마을'의 아빠스님 일력에 대한 소문이 바람에 떠다니더니 마침내 지난 4일 밤 MBC—TV PD수첩에 그 실체를 드러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잠을 못잤습니다."

"아무리 사이비승이라고 해도 불교 망신인것 같아 너무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그럴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계에서는 부처님을 모독한 그런 파렴치한 인간을 그토록 방치할 수 있었습니까."

"불교언론도 일반언론에 앞서 대처못한 책임감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소쩍새 마을뿐 아니라 몇군데 복지시설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곳들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사이비승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자비의 화신인양 인면수심(人面獸心) 정체가 폭로되자 교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일력은 갈곳없는 아이들을 부처님을 빙자한 두얼굴의 사이비승 일력은 1백30여 '소쩍새 식구'들과 그 후원자 7만여명의 가슴을 멍들게 했습니다. 장시라도 불교에 먹칠을 했을 뿐 아니라 신행의 첫 덕목인 보시행을 우롱한 셈입니다."

자비로 위장한 일력의 인면수심(人面獸心) 정체가 폭로되자 교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일력은 갈곳없는 아이들을 자식으로 삼았으나 그들은 불모였다. 닥치는 대로 성폭력을 일삼고 가스총을 난사하며 정신질환자를 내다버린 그의 인권유린은 곧 양심붕괴다. 그뿐인가. 그는 거룩한 성금으로 주색을 즐겼다.

무너진 삼풍백화점을 보면서 아픔도 크고 반성도 깊었듯 교계는 사이비승 일력을 통해 단속하고 되돌아 보아야 할 일들이 많을 줄 믿는다.

그리고 소리없이 울고있을 소쩍새 가족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후속조치에 빈틈이 없어야 겠다.

소리없이 우는 소쩍새 가족

6월27일은 지자제선거일,
다같이 투표에 참여 합시다.

신명나는 지방자치, 힘차게 다시 뛰시다!
韓國
韓國人 —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다시합쳐 힘을 모읍시다.
지방자치는 세계화의 출발 -
깨끗한 선거, 바른선택으로
21세기 우리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세계로 가는 한국,
미래로 가는 한국인-
우리의 힘과 저력뒤엔
언제나 인삼이 든 원비·엘가
함께합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일양약품
일양약품
원비-에프
GINSENG & TOCOPHEROL
WONBI-F
医藥品
용법·용량 : 1일1회1병
효능·효과 : 육체피로·
자양강장·허약체질
표준소매가격
550원
洋·韓方의 과학화를 선도하는…

현대만평

박 구 원



사 설

의식전환 없으면 구두선

이번 우리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바로 '생명의 가치를 돈보다 가볍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다. 귀금속은 대피를 시키고, 간부들도 도망쳐 나오면서 손님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니 그것은 차라리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그 동안에 발생했던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청주 우암동 상가 붕괴, 한강 성수대교의 절단, 위도 페리호 침몰, 부산역 기차전복 사건 등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인간의 존엄함을 망각해 버린 데에 있다. 또한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망각하고 눈가리고 아웅한 채 돈이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해방 이후 내부적 갈등 속에서 축적된 역량을 사회에 회향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시와 경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점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전한 종교운동은 이성적 합리성과 감성적 초월성이 상호 융합되어 그 균형을 상실치 않을 때 발전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종교적 영성을 개발하여 개인적 안심입명을 획득하는 차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견전한 의식을 개발하는 사회운동에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본다.

배금주의에 중독되어 있는 국민정서를 바로잡고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야 할 것이며, 개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홍보하여 모두가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공업중생이란 사실을 확인시켜 보자는 배금주의가 이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를 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착잡함과 불안, 그리고 패배감에 젖어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불교계는 냉엄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들을 위해 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산업화의 부산물인 물질적 풍요를 공유하면서 오히려 현재의 사회적 부조리를 방조한 책임은 없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진정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재삼 확인해야 한다.

이 나라가 구조적 부패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교계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통감해야 한다. 불교는 이 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서 1천7백여년의 역사를 함께 이어오며, 정치인간의 존엄함을 망각해 버린 데에 있다. 또한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망각하고 눈가리고 아웅한 채 돈이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해방 이후 내부적 갈등 속에서 축적된 역량을 사회에 회향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시와 경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점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전한 종교운동은 이성적 합리성과 감성적 초월성이 상호 융합되어 그 균형을 상실치 않을 때 발전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종교적 영성을 개발하여 개인적 안심입명을 획득하는 차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견전한 의식을 개발하는 사회운동에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본다.

배금주의에 중독되어 있는 국민정서를 바로잡고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야 할 것이며, 개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홍보하여 모두가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공업중생이란 사실을 확인시켜 보자는 배금주의가 이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를 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착잡함과 불안, 그리고 패배감에 젖어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불교계는 냉엄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들을 위해 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산업화의 부산물인 물질적 풍요를 공유하면서 오히려 현재의 사회적 부조리를 방조한 책임은 없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진정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재삼 확인해야 한다.

이 나라가 구조적 부패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교계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통감해야 한다. 불교는 이 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서 1천7백여년의 역사를 함께 이어오며, 정치인 추궁으로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한다.

열린마당

삼풍 대참사

월 주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동체대비 정신으로 개혁 절실

삼풍백화점 붕괴 대참사는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이 없이는 생명존중에 대한 근본적 치유책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겸허한 자기 반성과 함께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갖고 전국민이 생명존중에의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자비와 화쟁사상으로 고통을 분담, 총체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순식간의 붕괴로 유명을 달리한 많은 분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을 당한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현 성 스님 〈청소년교화연합회장〉

탐심·이기심·무지가 낳은 결과

삼풍백화점 대참사는 우리 국민 모두를 또다시 가슴 아프게 한 대형사고다. 한 기업인의 자제할 줄 모르는 탐심과 이기심, 무지에서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대구 가스폭발사고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된 이번 사고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남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급급한 비윤리적인 기업인의 방심에 죄없는 무수한 시민만을 희생시킨 꼴이 됐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삼독심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행한다면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 선 스님 〈백양사 주지〉

정부 불감증 규탄받아 마땅

지상5층 지하4층의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는 정부의 고위층에서 말단공무원, 국민들의 의식까지 함께 무너졌던 것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김영삼정권이 들어서고나서 구포열차사고,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등 2년 반 동안의 8회의 대참사 기록을 세워 참담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인재인데 이런 인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사고에 대한 불감증 때문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어찌 우리는 대형참사를 재발방지의 교훈으로 삼지못하고 잊어버리는지 안타깝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자 추궁으로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한다.

고 홍 문 〈전 국회부의장〉

'나라 다시 세우기' 각오 필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서울 한복판의 대형 백화점이 모래성 무너지듯 붕괴했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듯 허무하고 아픔이 온 국민을 휘감는다.

대형사고가 날때마다 정부와 국민은 재발방지를 다짐해 왔다. 그렇지만 사고는 일정기간을 두고 또 일어났고 모두가 지난 일을 잊어버린 듯 하다. 이러한 사고 불감증이 사고공화국을 유발하고 있다.

대형사고는 총체적인 문제점에서 발생한다.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국민은 우왕좌왕할 뿐이다. 도덕이 멀어져가는 윤리부재가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나라의 기강이 흔들린다는 우려는 지난 6.27 선거의 여당 패배로 극명하게 표출됐다. 문민정부 출범과 개혁의 의지가 다시금 세워져야 하겠다. 나라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의식개혁도 필요하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 정부 위정자들의 '나라 다시 세우기' 각오가 절실히 요구된다.

주 양 자 〈국회의원, 민자당〉

도덕부재의 비극·생명존엄 명심

옛속담에 설마가 사람죽이며 개미구멍이 공든 탑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작은 안전소홀로 인해 대형참사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이다.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삼풍백화점 대참사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옛 조상들이 비중을 크게 두었던 조심성이 새삼스럽다.

21세기를 맞는 우리나라가 작은 안전관리 미비로 인해 세계화를 향한 힘찬 전진에 걸림돌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자성해 볼 일이다. 이번 사고를 누구 누구의 탓이라고 여길것이 아니라 도덕성의 부재에서 빚어진 엄청난 비극이란 사실을 거울삼아 도덕이 살아있는 품위있는 나라 만들기에 온국민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 종 환 〈전국 교법사단 단장〉

배금주의 산물·삼독심 버려야

이번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가 천재지변이 아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측의 미온적인 안전관리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무시한 채 단지 소아적인 재물욕망 채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번 참사를 초래한 것은 한마디로 배금주의 풍조가 빚어낸 산물이다.

교육현장에 있는 한사람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다. 돈의 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집착하는 일부 배금주의자들에 의해 돌이킬수 없는 사고를 유발시켰다는 사실때문이다.

앞으로 재발방지는 물론 자라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 재물욕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배금주의자들은 하루빨리 삼독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 윤 근 〈불교TV 부산지사 후원회장〉

적당주의 결과·부조리 뿌리뽑아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평소의 주의부족과 적당주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도 이젠 진부한 표현이 될 밖에 없다.

'집을 한 채 짓는 것도 내몸을 가꾸듯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돈에 급급하다 보니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인명은 뒷전에 밀려나 버린 것이 아닌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참사 후 불교계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인명구조 노력은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건축중인 건물은 건축주와 감리자 모두가 양심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하며 그것이 곧 정토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믿는다.

김 향 란 〈대구광역시 신도회장〉

잇단 대형사고 원인 철저규명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참사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는 그런 엉터리같은 일이 재발않기를 맹세하고 또 맹세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대형사고가 터질때마다 우리는 원인규명과 대책수립, 책임자 처벌과 보상문제 등에 대해 열심히 떠들어대나 그 결과는 허망하기 짝이 없다. 부처님은 탐·진·치 3독을 버리고 자비의 정신으로 중생들을 위해 힘써 행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도 이기적인 탐욕심을 조금만 자제하여 고객을 미리 대피시켰다면 이렇게 큰 참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연이어 계속되는 대형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부실공사와 연루된 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법정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나아가 재난구조와 관련된 제도적·물적·인적체제를 하루속히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김 봉 렬 〈울산대 건축학 교수〉

대형구조물 안전진단 필수

삼풍백화점 붕괴는 지난 88년 이후 시작된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 사업의 졸속성을 보여주는 예견된 사고였다.

당시 올림픽을 치루고 난 우리나라에는 건축자재가 심각하게 부족하였다. 시멘트의 부족으로 품질이 형편없는 중국산 시멘트를 다량 사용했으며, 심지어는 이미 굳은 시멘트를 사용키도 했다. 또한 삼풍백화점 등 자본의 이기성을 드러낸 악덕 경영주들은 공사비 절감과 매장 확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를 유발시켰다.

이번 대참사는 건설공사의 구조적 부조리와 입찰과정의 문제점, 하도급 및 감리구조의 문제점, 시공상의 불합리한 관례 등이 쌓인 토대위에 6공 정부의 무리한 주택건설사업이 낳은 예견된 인재였다. 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전국의 대형구조물의 안전진단이 시급하다.

김 광 석 〈가수〉

취약한 재난구조체계 확립을

어떻게 폭파도 아닌데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아내가 3시30분경 삼풍백화점에 물건을 교환하러고 다녀와서 더욱 충격이 컸다.

사고소식을 듣고 더이상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울분이 치밀었다. 특히 구조하는 모습을 보니 체계적이지도 조직적이지도 못해 분통이 터졌다. 물론 목숨을 걸고 한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맹활약중인 구조대원들의 희생정신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지만 긴급상황시 우왕좌왕하는 모습보다는 일사분란하게 구조하는 초기 구조체계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건발생시마다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드러나는 취약한 재난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불교(교양)대학 등록공고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종단 재가불자 교육의 체계화와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교(교양)대학의 등록을 다음 요강에 의거, 접수하오니 전국의 각 불교(교양)대학에서는 빠짐없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대상
전국 본·말사, 포교당, 신행단체에서 운영하는 3개월 과정 이상의 불교(교양)대학

2. 등록기간
불기 2539년 7월 18일(화) ~ 8월 31일 (목)까지

3. 등록 구비서류
1) 불교(교양)대학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소속 교구본사 주지 추천서(소정양식) ➡ 예외) 직할교구 불교(교양)대학은 추천서 제외
3) 학칙·정관 또는 설립회의록
4) 교과 과정표(과목명, 교수명, 강의 시간표, 교재명) ➡ 현재 사용하는 교재 첨부
5) 건물사진
6) 서약서(소정양식)
7) 사업계획서, 예산서
8) 연혁

4. 특 전
등록된 불교(교양)대학 졸업생에 한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학사운영이 우수한 불교(교양)대학은 종단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전화 : 720-7060~4 / 팩스 : 720-7065

불기 2539년 7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포 교 원 장 김 정 락

10명 불자 미화원들 '어둠 51시간 염불 51시간'

"부처님 가피로 죽음 문턱서 생환"

51시간의 사투끝에 지난 1일 저녁 극적으로 구조된 삼풍백화점 미화원 생존자 24명 가운데 김금순씨를 비롯한 10명이 불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불자로 밝혀져 화제다.

사고당일 4시30분경 업무교대와 퇴근 준비를 위해 동료들과 지하 3층 청소용역 직원대기실에 모여 있었던 김금순씨(55세)는 우레같은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암흑속에 갇혀버렸다.

"너무나 무서웠지만 꼭 살아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



◇강남병원 362호 병실에 입원중인 김금순보살. 생명을 되찾게 해준 부처님의 은덕에 환한 미소로 답했다.

서로 위로 천수경 외우며 마음평정 찾아

로하고 그때부터 쉬지않고 천수경을 외우기 시작했다"는 김씨는 강남병원의 병상에서도 항상 지니고 다니던 단주를 오른 손목에 차고 있었다.

"삼촌을 뵙기위해 다니기 시작한 절집과의 인연이 제가 이렇게 암흑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는 김씨는 입적하신 해인사 자운스님의 조카딸이라 밝히기도. 김씨는 병문안을 온 정릉 보국사 터원스님의 손을 꼭 잡고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며 생환의 기쁨에 젖어 웃어보였다.

4년째 삼풍백화점에서 근무해온 고참 미화원 서춘희씨(60세)도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호명하며 죽음앞에서 두려움으로 떨던 자신을 추스렸다"고 말했다. 서씨는 병상에서 "아직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많은 매몰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구출되기를 부처님께 기원올린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강남병원에는 이들외에도 지난 1일 맨먼저 암흑을 뚫고 나온 이계준씨와 74킬로그램이나 나가는 자신의 뚱뚱한 체격때문에 한사코 마지막에 나가겠다며 극한 상황속에서도 풋풋한 동료애와 법우애를 발휘했던 안란순씨를 비롯 이일순, 김영희, 김석호, 신승만, 강기철, 김희복씨 등 새삶을 되찾은 10명의 불자들이 입원중이다. 이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지하 공간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구해주신 구조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했다.

이은자 기자

참사 현장에 핀 자비의 꽃

콘크리트 구조물이 뒤엉킨 처참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는 연일 불교계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등 성금전달

○…사고 다음날인 30일 조계종총무원이 사고 대책본부에 2천만원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태고종 3백만원, 총지종 5백만원, 천태종이 1천만원의 성금을 각각 전달했다.

○…조계종은 또한 붕괴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한 영가천도 초재를 지난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월주스님을 비롯 불자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에 봉행했다. 오는 19일에는 조계종의 주도아래 전종단 합동위령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강남 인근 사찰인 봉은사, 구룡사, 능인선원을 비롯 정토포교원 청년회, 여래원, 백련사, 평택 명법사, 경불련 자비의 집 등의 자원봉사자들은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특제육계장' '추어탕' '불고기' 등의 정성이 가득담긴 음식과 구호물품을 준비, 구조작업으로 지친 이들의 입맛을 돌궈 힘을 주기도.

○…조계종 문화사회부는 구조기간동안 자원봉사단 뱃지를 만들어 현장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배포하고, 수차례에 걸친 구호물품등을 사고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조계종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종단차원의 부상자간호와 인명구조를 위한 종합적인 자원봉사단을 창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소식을 접하고 동료대원 9명과 함께 구조지원을 위해 올라온 대전 중부 119특별구조대 소속 방하혁불자(37세)도 땅바닥에서 새우잠으로 피곤을 극복하며, 콘크리트와 철근사이를 오가는 하루 20시간의 목숨을 건 구조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방씨는 "지휘체계의 부재등으로 혼란도 많았지만 한사람의 생존자라도 더 구하려는 마음으로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술받고 "구조현장 가야"

○…사고당일인 지난달 29일 분진과 유독가스속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다 뇌일혈로 쓰러진 송파소방서 장만덕 소방장은 2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한 근무태도와 성품으로 '부처님'이란 별명까지 갖고 있는 독실한 불자. 장씨는 2차례의 거듭된 수술끝에 간신히 의식을 회복하고서도 구조현장에 가야한다고 말해 주위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기도 했다.

○…강남병원을 비롯 인근 병원에는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신도를 찾는 스님과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불자 황순호씨(조흥은행 근무)는 "현장에서 직접 구조를 못하는 대신 뭔가 할일을 찾던중에 헌혈하기로 결심했다"며 동료들과 함께 헌혈의 집을 찾았다.

○…이밖에도 반포 4동 부녀회의 무료급식소에서 불자 유자인 성보살이 자원봉사를, 대한약사회가 설치한 자원봉사약국에 대한 불교약사회 회원인 변양순씨(서울시 약사회 총무위원)가 구급약품과 피로회복제 등을 제공하며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했다.





◇폐허가 된 삼풍백화점 붕괴현장 곳곳에서 불교 자원봉사자들도 한몫을 담당하며 불법실천에 앞장섰다. 사진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월주스님(左)과 붕괴현장 앞에서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며 독경하고 있는 학인스님들의 모습(右).

사부대중 헌혈 줄이어 … 19일 합동 위령재

인근불자들 정성어린 음식·구급약등 제공

뿌연 석면가루와 유독가스가 뒤덮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후송임무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서울소방본부장 강원도거사(58세)는 자랑스런 불자의 한사람이다.

인명구조 10개대 2백여명과 구급차 108대 구급요원 3백여명 등을 적절하게 배치, 관리해 한사람의 생존자라도 더 구하기 위해 강소방본부장은 밤낮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



소방본부장 강원도 거사

'한 생명 더' 붕괴현장 누벼

"갑작스런 사고로 구조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기도 했지만 소방대와 119구조대, 경찰, 군, 자원봉사자가 함께 협조해 구조작업을 전개해 나갔다"고 말하는 강소방본부장은 "특히 삼풍백화점 미화원 24명 구조시에는 구조대원들이 전기드릴을 사용, 좁은 통로를 뚫어 시각을 다투는 인명구조작업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이번 구조작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구조장비 조달에 대해 강소방본부장은 "현재 119구조대에 25종의 구조장비가 마련돼 있기는 하나 상황에 따라 많은 장비가 필요해 앞으로 유관기관과 정부의 사전협조를 통해 구조장비 확보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라면서 자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순리적이고 원활하게 모든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바쁜 업무로 자주 부처님을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아내와 가끔 집근처 사찰을 참배한다는 강소방본장은 검게 그을린 얼굴로 "구조작업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것"이라며 다시 구조현장으로 향했다.

특별기고 고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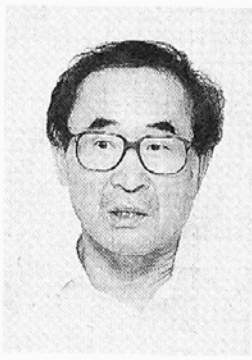
'삼풍참변' 지옥연출한 대 치욕

겉치레병은 한국인 마음… 참회 없으면 못살아

살아있는 누구인들 지난 며칠동안 밤잠을 설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야 당연히 그래야 마땅하겠지만 온 세계의 지구 곳곳마다 한국의 '삼풍'으로 관심이 쏠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삼풍은 우리의 실상을 한오리 거짓없이 알려준 대치욕이기도 한 것이다.

우선 몇백명에 이르는 지존한 인명이 시루떡 층층으로 건물 옥상에서부터 내려앉은 어이없는 붕괴로 희생된 데 대한 슬픔이 앞선다. 하지만 그 몇백명의 사망자의 인척이나 친구의 넋잃은 슬픔이야 그것이 어찌 견줄 수 있겠는가.

그들 유가족에 대한 정중한 위로조차도 도대체 군더더기인지 모른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일지라도 살아난 기쁨과는 달리 그 악몽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 생존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폐허의 지옥에서 시신 한 구라도 찾아내는 것이 현장에서의 남은 과제일 것이다.

이 유례없는 붕괴사고는 그러나 이 사고만으로 말해질 수 없다. 최근 몇해 동안 육·해·공의 어느 곳도 빼놓지 않은 대형 참변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그것으로 모자라 이번에는 지상이 아닌 지하의 비극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본디 지옥이란 관념의 세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대 인도의 감옥은 땅을 파서 그 안에 구속자를 가두어 놓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지옥으로서의 감옥이었다. 영화 '빠삐용'의 무인도 감옥도 이런 지옥이 아니던가.

우리의 대형사고는 이토록 지옥까지 연출해 내는데 이르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연속적인 대형사고는 조금만 잘 살폈던들 예방될 수 있었다는 상황에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고 이런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숫제 건성이었다는 상황에서 관재였던 것이다.

집 한 채를 짓는데도 몇백년이 걸리는 일이 지금 지구의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하루아침이면 외형상으리으리한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그동안 이런 성급한 성장주의와 탐욕의 물질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내달려왔다. 그런·나머지 어디에도 인간적인 품성이나 도량을 찾아볼 수 없는 막된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런지라 인간의 정신에 반영되는 '자연'보다 '인위'가 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불법에서 곧잘 마음을 말하고 있다. 일체가 오로지 마음으로부터 지어진다는 말도 그것이며 마음에는 안도 밖도 없다는 말도 그것이다.

그러나 마음이란 이런 추상이 결코 아니다. 마음이란 특별한 관념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마음이 눈을 통해서 천리 앞을 내다보고 그 마음이 발을 통해서 천리를 가는 것이다.

바로 이 마음쓰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치 경제 사회일진대 거기에 부패, 부실, 이기주의 그리고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양심의 부재로 나타난다. 일체가 마음이 짓는 것이라면 한국의 악명높은 겉치레야말로 한국사람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삼풍의 참변이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앞으로 제2, 제3의 삼풍이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느냐는 위기의식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

지하철을 타도 목숨을 염라대왕에게 맡기고 타야 하고 주부가 가스로 밥을 지을 때도 목숨을 저승에 담보하고 지어야 한다. 더구나 날마다 세워지고 보는 신축 고층 아파트단지에서 사는 일도 어찌 그것이 불안과 공포 없는 편안한 마음의 경지이겠는가.

앞으로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오묘한 연기론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단순논리로서의 인과론에 의해서 얼마든지 실증되는 것이다. 잘못 만든 것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와함께 거의 상투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런 뒤 다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반복이 이번의 삼풍 비극에 이르렀다. 이제 삼풍은 삼풍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삼풍공화국이라고 야유하는 소리를 말릴 처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는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각계의 참회 없이는 나라 안에서 살 수도 없거니와 나라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다.

〈시인, 본지 논설고문〉

생활 속의 불교 ㉜

"우상숭배자들의 피할 수 없는 비극"



공수래 공수거,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 고로 진정한 내 것, 영원한 나의 소유물이란 없다. 지금 내게 거금이 있다 해도 그 돈은 언제고 내 수중에서 나갈 것이 분명하다. 평생을 지녔다 해도 갈 때는 다 놓고 가니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모든 재물은 다 내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누구의 것도 아니다. 누구인들 관리자 그 이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무소유의 삶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 기독교에선 '다 여호와의 것'이라 한다. 본래 내것이 아니니 집착하지 말고 빈 마음으로 대하라는 가르침이다.

그렇다고 돈을 갖지 말라, 벌지도 말라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다만 애착을 두지 말라,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재물이 들고 나는 것은 돌고 도는 속성일 뿐이니 관리자가 되라는 것이다.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 곧 빈 마음으로 대하면 그뿐이라는 것이다.

일단 호수로 흘러든 물이 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다. 배불리 먹고 나서 배설하지 못하면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렵게 된다. 재물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그 흐름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 그는 먹은 것이 아까워 배설을 거부하다가 끝내 제 목숨까지 잃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재물을 쓰는 사람이 되라. 재물에 쓰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는 그 재물이 곧 주인이요, 짐이라 온갖 풍파가 그를 맞이한다. 그러나 쓰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건강한 가축과 같아 자꾸 새끼를 치게 마련이다.

세상에는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 역대 성현들께서 누누이 마음을 비우라, 무소유의 마음으로 살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우상처럼 받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나무나 돌로 깎은 형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보다 더 지독한 우상 숭배자들이 바로 재물 숭배자들이다. 그들은 말끝마다 황금 만능을 부르짖는다. 황금이야말로 무소불위의 전능자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물이 고여 악취가 날 때쯤이면 우상처럼 받들던 재물은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독극물로 변하고 만다. 참담한 불행이 대문을 두드릴 때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움켜쥐는 마음의 무게만큼 도의 마음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다.

'땅과 물' 오염방지 및 복원의 신기술 보유

- 독성 유기화합물 폐수의 현장 처리 기술
- 오염 지하수의 완벽한 복원기술
- 일반 환경오염의 방지 및 정화기술

(주) 바투코리아
대표전화 : 02) 785-1362

"청소년에 호연지기 심을 터"

극기 수련대회 준비 **조 달 현** 청교련 사무국장



"미래불교는 청소년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대중 포교도 시급하지만 청소년들의 포교에 역점을 두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죠."

오는 28일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라는 캐치플레이즈 아래 「95전국 청소년 하계극기 수련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청소년교화연합회 조달현 사무국장.

10여년동안 청교련 수련대회를 이끌어 온 조국장은 "청소년 수련대회는 21세기의 주역인 불교청소년들에게 불교프로그램을 통해 세계화·정보화의 시대적 감각과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 기상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라고 말한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AYC(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총회 및 아시아 청소년축제에서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조국장은 이번 수련대회에서 민속놀이마당, 외국인과의 대화의 시간은 물론 '세계속의 청소년의 역할' '불교청소년의 올바른 이해'등의 강좌를 개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필〉

40년 모은 재산 사회회향 "뿌듯"

새생명 광명회 3억 기증
김 연 보 살



"부처님 법을 알고 난 뒤부터 모은 재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어요."

"영원한 자기 소유의 재산은 없는 법이며 잠시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극빈자, 신체불구자, 불우이웃 등을 보살피는 진주 '새생명광명회(회장 김기원)'에 경남 양산군 물금면 가촌리 산35번지 소재 9천여평의 땅(시가 3억여원)을 기증한 김연(66세, 법명 불심화, 부산시 부산진구 거제2동 1233-19)보살.

27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40여년을 고아원 유모, 품팔이, 보따리 장사, 노점상 등 온갖 세월의 풍상을 겪으면서 모은 재산을 선뜻 희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세간의 논리가 김연 할머니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듯 싶다.

슬하에 1남3녀를 둔 할머니는 '어머니께서 어렵게 모은 재산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자식들의 뜻이 너무도 고맙다며 "좀더 젊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데 나서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겸손해 했다. 할머니는 또 "본의 아니게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만 지금은 푸근한 마음으로 천지만물이 모두 고맙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병〉



유럽 15개국 대학생 조계사 방문

유럽의 15개대학에서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40여명이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 조계사를 방문했다. 한국외국어대 외국어 연수원에서 오는 8월 11일까지 6주간 한국어 연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조계종 문화사회부 국제계장 조용준씨의 안내로 조계사를 둘러봤다.

한편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제78차 국제 라이온스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대표들도 팀을 나누어 조계사를 방문했다.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연수교육

불교레크레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지난 2일 서초구 구룡사에서 '제15회 여름불교학교 지도자연수'를 성황리에 거행했다.

어린이지도자 3백여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지도자의 신앙적자세, 우리춤 우리가락, 레크레이션진행 등 여름불교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실시됐다. 불교레크레이션 자격고시에 합격한 오심스님, 김은영등 7명에게 자격증을 수여했다.

교 차 로

라이온스 폐회식서 축원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7일 오전9시 30분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에서 열린 제78차 국제라이온스대회 폐회식에 참석 축원을 했다. 한편 스님은 같은 날 오후 6시30분 청와대에서 열린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대통령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조계종 교육국장 맡아



증월스님은 지난 1일부터 조계종 교육원 교육국장 소임을 맡아 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스님은 일산 신도시에 대규모 포교당을 건립 신도시 포교에도 나설 계획이다.

'6회 한국선면전'에 출품



일당스님(채색화가 사진 위)·법성스님(성라암 주지)은 한국선면협회가 주최한 제6회 한국선면전에 참가했다. 전시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경인미술관에서 열렸다.

한불여행사 사장 취임



송종연스님(성주암 주지)은 지난달 30일 열린 한불국제여행사 임시총회에서 대표이사겸 사장에 선출됐다.

선원사 복원 천도법회



성원스님(강화 선원사 주지)은 '선원사 복원 천일지장기도 및 5백일 천도법회'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선원사 법당에서 보성스님(송광사 율사)을 법사로 초청해 봉행한다.

강원·선방대중스님 책 보시

현장스님(백운암)은 7일 전국 강원과 선방 대중스님에게 〈선관책진〉(불광출판사) 2천8백권을 법보시했다.

미국 자매학교 방문



송석구교수(동국대 총장)는 오는 25일부터 8월7일까지 13일 동안 미국 자매학교(하와이대, UCLA, 뉴욕주립대, 매인주립대)를 방문, 학술교류 협력증진 방안, 학교발전 후원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얀배'로 이상문학상 수상



윤후명씨(불교 소설작가)는 문학사상사가 제정한 제19회 이상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하얀배'이며 연말에 시상식을 갖는다.

미국 워싱턴대 교환교수



이각범교수(서울대 사회학과·본지 논설위원)는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 연구 교환교수로 16일 출국, 1년간의 연구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獨 나오만재단 세미나 참석



연기영교수(동국대 법학과·본지 논설위원)는 9일부터 21일까지 독일 프리드리히 나오만재단에서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도자대장경 초벌구이 점화 성파스님

도자 팔만대장경 16만장 2000년 완성

"남북통일 국민 염원 담을터"

"고려대장경이 나라 수호의 비원을 담고 제작 되었듯이 도자대장경도 조국통일의 염원을 담고 제작되는 것입니다. 4년만에 초벌구이에 들어가게 됐는데 좋은 작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도자대장경을 제작하고 있는 성파스님은 지난달 30일 통도사 서운암에서 도판 초벌구이 점화식을 가졌다.

이날 점화식에는 영축총림부방장 청하스님을 비롯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여 16만장 도판의 초벌구이가 시작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성파스님은 91년 6월부터 해인사 고려대장경(8만대장경)의 내용을 그대로 16만장의 도자기로 재집대성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고려대장경을 실크스크린으로 조판에 인쇄하고 그위에 유약처리를 해 도자대장경을 만드는 것인데 크기는 가로 53Cm 세로 27Cm 두께 1.3Cm로 해인사 대장경판과 비슷하다.

"2천년에 이 불사를 회향할 계획"이라는 성파스님은 "완성된 16만3천56장의 도판은 휴전선에 모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

게 시 판

▲여름수련대회 개최=오대산 월정사(주지 현해스님)는 8월5일부터 8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374)32-6664

▲청소년 놀이한마당=태고종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스님)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용문사에서 '95참나 찾기 청소년 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 (02)747-5787

▲슬라이드 강좌=부산불교교육원은 오는 24일 '불보살의 이해와 신앙세계' 31일 '토속신앙과의 만남'을 주제로 오후 7시30분부터 슬라이드 강좌를 개최한다. (051)466-4079

▲청소년 문화 유적답사=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25일, 28일, 8월 8일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일원으로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국교 6년부터 중학생까지 선착순 40명. (02)985-0161

화촉 김종규회장(삼성출판사)의 장남 진욱군은 오는 18일 오후 1시 공항터미날 3층 컨벤션센타에서 김수연양을 신부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02)379-0931, 3452-3739

미얀마 성지순례 후 귀국



정승석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는 불교대학원 학생 27명과 함께 미얀마 성지순례를 위해 지난 5일 출국. 양군 불교대학을 비롯 불교유적지등을 답사하고 10일 귀국했다.

대불광에 국내카운터 신설



이성호사장(수미산여행사)은 지난달 조계사옆 대불광 전시장 1층에 국내부 카운터를 신설, 국내성지 순례 및 전세버스, 국내항공권, 철도승차권 업무를 개시했다.(02)732-018

인 사

진각종 ▲총인 사서실장 유명 ▲총무부장 진산 ▲홍교부장 덕혜 ▲건설부장 대경 ▲재무부장 혜인, ▲교법부장 혜정 ▲교육부장 효암 ▲진각대교무부장 의현.

"절 있는 산에 오르면 삶이 즐겁다"

매월 정상법회·푸른산 가꾸기로 회원 화합

탐 방 금강산우회



◇매주 산행을 통해 신심을 다지는 금강산우회 회원들은 전국 유명산사를 순례하며 산상법회를 갖는다.

도심에서 뿐만 아니라 산행을 통해 더 많은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나선 신행모임이 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배낭속에 법회에 필요한 자료집 불구류등을 지니고 전국의 유명사찰을 찾는 금강산우회(회장 정기환).

연령·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산을 좋아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금강산우회의 법회는 인상적이다.

산을 오르다보면 어디든지 아담하고 웅장한 사찰이 있어 참배하고 그곳에서 즉석으로 법회장을 마련, 주지스님을 법사로 초청 설법을 듣기 때문이다.

금강산우회는 법당에서만 법회를 여는 것이 아니다. 마당바위와 같은 넓은 장소가 있으면 곧바로 배낭을 풀어 산상법회를 진행, 회원들로 하여금 돈독한 신심을 일게 한다.

이처럼 금강산우회의 법회는 일정한 장소나 어떤 틀에 의하지 않고 항상 자유롭게 진행된다.

금강산우회는 '산행을 통해 신심을 다지는 한편 산행포교를 전담한다'는 취지아래 93년 3명의 뜻있는 불자들이 모임을 결성해 현재 6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주로 산상에서 법회를 개최하는 등 왕성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들의 신행활동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틈틈히 시간을 할애해 교학공부에도 전념한다. 매주 화요일은 기초교리강좌, 금요일은 경전강독(금강경)등을 통해 불자로써의 확고한 신념과 불교관을 습득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금강산우회는 일과성의 법회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찰의 각종 행사지원, 복지단체등을 비롯 소외된 이웃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한편 환경운동에도 남다른 실천행을 꾸준히 하고 있다.

최근 회원들은 불지각한 행락인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산천을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환경파괴의 주요원인인 부식이 잘 안되는 오물등을 수거함은 물론 오가는 등산객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등 환경의 파수꾼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또한 금강산우회는 회원들의 참여의식 향상과 친목도모를 위해 신행담, 불교교리 등을 게재하는 '금강 산울림'이란 회보를 매월 발행해 오고 있다.

금강산우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02) 554-4449

김중근기자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5년 8월 3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주 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 및 종교학	완전강독 I

■ **특 전 :** 졸업후: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마음속 법당 땅에 세워요"

산문밖의 수禪

대목 장 효 순 씨



월악산 덕주계곡
아름다운 풍경 속 산뜻한
새 법당 한 채 솟으면
꿈틀대는 용마루 끝
뎅그렁뎅그렁 풍경 소리
하늘에서 들려오는 여래의 소식.

대목 장효순(57, 張孝淳)씨는 요즘 월악산 덕주사의 새 법당 짓기에 바쁘다. 법당을 짓는 동안은 장씨 자신이 하나의 법당이기도 하다. 법당이 다 지어질 때까지 그의 마음 속에는 산뜻한 새 법당 하나가 꽉 들어차 있기 때문이다.

삶과 일의 스승은 아버지

그러니까 그의 법당 짓기는 마음 속의 법당을 산속에다 옮겨 놓는 작업인 셈이다. 35년의 목수 생활에서 그가 터득한 대목의 바른 길이 바로 이 '마음 속 법당을 땅으로 옮기는 것'이다.

"설계도가 나오고 목재를 구입하고 자질을 하고 다듬고 깎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법당을 지으며 대목만이 느끼는 기쁨을 마음속에 갈무리해 왔다. 그만큼 그는 늘 보다 완벽한 집짓기에 도전하는 정열을 잃지않고 있다.

그는 섣불리 기계작업을 하지 않는 토종 목수이기도 하다. 기계작업이 일은 빠르고 쉬울지 몰라도 항상 개운한 맛이 없어 싫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작업을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손작업을 해야 반듯한 집이 지어진다는 경험도 그를 토종 목수로 남아있게 하는 요인이다.

"아버님 밑에서 일을 배웠어요. 먹줄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 대패질을 해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먹줄을 반으로 나누라는 것은 그만큼 일에 혼을 새겨 넣으라는 뜻이거든요. 혼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음 속의 집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장효순씨의 스승이자 부친인 장석재(84)옹은 생존해 있는 우리나라 대목 중 으뜸가는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 큰 스승 아래서 일을 배운 장씨인만큼 솜씨나 정신에 흐트러짐이 없다.

장씨가 아버지에게 배우고 또 스스로 몸으로 부딪히며 터득한 집짓기 솜씨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다. 한마디로 혼이 들어 있는 솜씨다. 그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제대로 된 집'이나 '마음 속의 그것과 똑같은 집'은 모두 혼이 들어있는 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집이 지어졌을 때 배로소 추녀밑 풍경소리가 여래의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신념을 그는 한번도 잊은 적이 없다.

"우선 일을 맡으면 집이 들어 설 곳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집채를 마음 속에 그려 넣습니다. 그 시간은 오래지 않아요. 경험이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지요."

마음 속에 집이 그려지면 그것을 토대로 기둥을 깎고 서까래를 깎는다. 대들보를 깎고 가장 정교한 솜씨가 필요한 포를 깎는 동안도 끝없이 마음 속에 지어진 집과 대조를 해야 한다. 정확한 자질과 오차없이 밀어내는 대패질과 끌질을 하는 동안 그는 또 하나의 집이 익어가는 것을 느끼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깎고 다듬고 혼 불어넣고' 반듯한 집짓기 35년
서까래 하나 올리면서도 '제대로 된 집'을 생각

모두 내 마음 속에 세워진 법당을 땅으로 옮겨다 놓는 과정입니다. 모든 집짓기가 다 그렇지만 특히 법당을 지을 때는 마음 속의 그것과 똑같은 것이 땅위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지요. 부처님 모시는 집은 특별한 집이니까요."

법당을 특별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이미 장씨의 법당짓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치의 오차가 있어도 언젠가는 어긋나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모시는 집 만큼은 천년 만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씨는 "마음 속에 그린 멋드러진 법당과 똑같은 법당 한 채를 땅위에 탄생시키는 순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본다"고 말한다.

스무살을 전후해 연장을 만지기 시작한 장씨는 지난 35년의 세월을 손끝의 연장과 마음 속의 집(법당)을 짜맞추며 살아왔다. 사자산 법흥사, 오봉산 석굴암, 인천 보각사, 굉탱 만기사, 인천 보각선원, 구의동 화양사, 대성암…. 그는

무너지는 장삿속 건물들

"일단 상량식까지가 끝나면 어느 정도 작품의 완성도가 점검됩니다. 준비된 부재들을 짜맞추며 한 채의 집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즐거움, 그것은 목수들만이 갖는 절대적인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아직 후회스런 집은 지어 본 적이 없다는 장씨는 최근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혼이 빠진 집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가 정작 슬퍼하는 것은 사람이 드나드는 집을 장사속으로만 짓는 오늘날의 세태인 것이다.

"하나의 서까래를 깎으면서도 집 전체를 생각하는 대목들의 마음 씀씀와 콘크리트를 쏟아 부으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요즘의 건축업자들이 갖는 집짓기에 대한 마음의 차이가 무너지는 집과 천년 만년 지탱해 가는 집을 낳는 것입니다."

아들인 자신에게조차 손을 못대게 하는 아버지의 연장들을 보며 장씨는 진정한 장인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연장 중에서도 특히 자를 숭상하기까지 하는 목수들의 마음을 현대 건축가들이 배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장효순씨.

집이 무너지는 세상에 천년 만년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속의 집을 짓는 장씨는 "집짓는 일만한 마음 공부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것은 잡념을 빼어버리고 오로지 멋있고 단단한 집 한 채를 짓기 위해 온 마음을 쏟아 붓는 대목만의 자부심일 것이다.

임연태 기자



삽화 · 이기선

효는 모든 선행의 으뜸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㉞

효도(孝道)

깨우쳐 중생제도 하면 '보살효'

살벌한 말들이 방송이나 언론매체에서 등장하여 가슴을 오싹하게 한다. 남편죽이기, 선생죽이기, 아내죽이기, 부처죽이기등 이처럼 죽이기 연계언어는 우리 사회의 공해가 아닐 수 없다. 살리기도 모자라는 판에 죽이기의 연속회화가 대화속에 마구 쏟아지고 있으니 이 무슨 변고인가.

우리의 역사 고전서인 삼국유사에는 효선(孝善)에 관한 것이 밀편으로 수록되어 있다. 저자인 일연스님은 역사를 추심하면서 한국불교의 신앙, 교학, 문화, 예술의 일인자 아니면 그에 참여하였던 일화를 소상히 적기하여 그 시대의 인물의 깊이를 헤아리게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학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연스님이 삼국유사 제일 끝편에 효선에 관한 기록을 남긴 것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는가고 생각된다. 진정스님의 효선 김대성이 이세부모께 효도한 것, 향득사지가 다리살을 공양한 것, 손순이 아이를 땅에 묻는 것, 가난한 여인의 효성 등의 다섯가지 이야기가 잔잔하게 실려 있는데 가슴을 에이게 한다.

진정법사 출가의 깊은 뜻

흔히들 불교는 출가하므로 불효가 막심한 종교라고 매도하기도 한다. 가정에 있어서 부모를 극진히 모셔야 하는데 집을 떠나 혼자 공부를 하는 것이 효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집에 머물면서 양친부모를 모시는 것이 효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법사의 경우는 다른 의미가 있으니 한쪽만으로 효의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요, 불교가 의미하는 효관이 있는 것이다.

진정법사는 속인으로 집에 있을 때, 하도 가난하여 장가도 들지 못한 떠꺼머리 총각이었다. 군대에 복역하는 기간 이외에는 품을 팔아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전재산인 다리부러진 솥 하나마저 보시했다. 신심이 깊은 불자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은근히 걱정되었다. 아들 진정이 어떻게 나올까 하여. 그러나 딴판이었다. 진정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머니 효도를 다 마친 후에는 의상법사 아래에 출가하여 불도를 배우겠습니다"라고 아뢰니 어머니는 너무나 반가워 하루빨리 출가하기로 강권하였다.

"나 때문에 출가를 못한다면 나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나서 집에 있는 쌀을 다 털어 밥을 짓고, 싸주면서 가는 도중에 먹도록 하였다.

"어머님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닐진데 어머니의 미음꺼리마저 가지고 가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천지가 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한사코 출가하기를 바라니 어쩔 수 없이 진정은 출가하여 의상법사 밑에서 3년가량 열심히 공부하였다. 어느날 선정에 깊이 든지 7일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게되어, 의상스님께 아뢰니 의상스님은 문도를 거느리고 소백산의 추동에 초가를 짓고 제자 3천명과 함께 90일 동안 화엄법회를 마련하였다.

진정의 어머니가 일찍이 부러진 솥까지 불전에 공양하였다는 사실은 물질에 애착을 두지 않는 보살심의 발로였다. 또한 그녀는 아들을 바른 길에 들게하는 큰 원력도 함께 가진 신라의 어머니였다.

살인만연 사회 효로 극복

불교에는 효가 있다, 없다고 시비를 하지만 진정의 이야기는 불교의 효를 소극적인 자아중심의 효가 아니라 대국적인 효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 때문에 출가를 못한다면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단순한 말씀속에는 출가가 불효를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 출가하여 불도를 깨쳐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면 이처럼 위대한 효도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대승적 보살효가 숨어 있는 것이다. 진정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위대한 화엄교승의상 스스로 소백산 추동에서 90일 동안 화엄법회를 서설한 것은 진정의 효성과 화엄법회를 하나로 보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는 효가 있다. 이 효는 선행과 보살행을 하나로 보는 것이다. 선행의 극치는 효에서 오고, 효를 이행하는 사람은 바로 선행의 궁극에 도달한 사람인 것이다.

오늘날처럼 죽이기라는 말로서 희론을 일삼는 사람들도 효사상의 극치를 가슴에 아로새겨야 한다. 옛날 일연스님도 효성이 지극한 수행자임을 알아야 하고 또한 삼국유사에 효선편을 기록한 고승의 덕성을 자신속에 옮겨오면 죽이기보다 살리기 하는 불자가 늘어가리라 본다.

봉선사 불교전문 통신강원
수 • 강 • 안 • 내

본 강원은 사찰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기 어려운 스님들과(전문반) 재가 불자님들의 불교공부(교양반)를 돕기 위하여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든 강원제도입니다.

1. 전문반 (강원코스)
- ㅇ사미과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치문
- ㅇ사집과 = 도서, 절요, 서장, 선요, 대승백법명문론
- ㅇ사교과 = 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 ㅇ의전과 = 기초의식(도량석, 종송, 예불의) 상용의식(불공, 시식, 관욕, 대령)

2. 교양반 (교양코스)
- ㅇ교리강좌 = 삼화표월지, 불교의 깨묵
- ㅇ경전강독 = 금강경강화, 운허스님의 능엄경강화
- ㅇ교양의식 = 삼화행도집
- ㅇ교양불교사 = 운허스님의 불교통사, 전등록 초

3. 수업요령
- ① 입학금 = 3만원(재학기간 유효)
- ② 수업료 = 2만 5천원
- ③ 교재(카세트테이프)는 매월 8개씩 월초에 보내드림.
- ④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원에 문의 바람.

■ 문의처 : ☎ (0346) 68-1957 (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대한불교 조계종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金 月 雲

공 고

제9기 행자 교육원을 다음과 같이 개원함을 공고합니다

1. 명 칭 : 제9기 행자 교육원
2. 교육기간 : 불기 2539년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3. 장 소 : 제12교구본사 가야산 해인사
4. 교육대상 : 불기 2539년 3월 14일 이전, 사찰에 입산하여 소정의 행자 교육 수련 과정에 있는 남녀 행자로서, 교육원에 행자등록을 필한 자
   1) 승니법 제 7조의 유자격자
   2) 동법 제 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준 비 물
   가. 구비서류 : 입방지원서, 신상명세서, 거주사 주지스님 추천서(이상 소정양식),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복사본, 건강진단서, 최종학력증명서, 사진 4매(2×3cm, 행자복 착용), 교육비 20만원(소속교구본사에서 수령하여 교육원에 납부, 개인 납부 불가)
   나. 지 참 물 : 장삼, 발우, 세면도구, 주민등록증, 삭발용 면도기, 침구(모포 1개)
   다. 복 장 : 행자복(남:회색, 여:주황색), 흰 고무신 착용
   라. 교육장 도착 : 교육 행자는 8월 14일 오후 2시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여야 함.
6. 신청기간 : 불기 2539년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본 기간 외에는 일체 접수 받지 않음)
7. 접 수 처 : 각 교구본사. 단, 직할교구는 교육원에 직접 접수함.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교육원
   문의전화 : 732-4923 ~ 4 / 팩스 : 732-4926

불기 2539년 6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장 김 원 산
제9기 행자 교육원장 이 지 관



◇봉림사지 석조삼존불상(전북대 박물관 소장). 사찰문화재의 보존실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찰문화재 보호책 "허술"

종단·학계 방법 제시해도 구체적 실행 없어

사찰문화재 보존·관리의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 것일까.

해마다 수십점의 불상·불화들이 알게 모르게 사찰에서 사라지고 있다. 송광사 영정 도난사건으로 부각된 사찰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을 놓고 조계종 문화사회부, 문체부 등 관련기관과 학자들 사이의 의견 개진이 여기저기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공개적인 토론장을 통한 체계적인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조계종의 성보박물관 건립등의 사업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교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운 상태다.

이런 시점에서 동국대박물관 박도화 연구원이 〈선우도량〉 제7호에 발표한 '사찰소장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제언'이란 글은 이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박씨는 "성보박물관 건립은 철저한 계획하에 건축, 관련 학계 및 박물관 관계자, 종단 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단내에 불교미술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과 △불교미술사 전공 대학원생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박씨는 또한 신앙의 대상물로서의 불교문화재가 박물관에 소장됨으로써 야기될 신앙성의 상실을 우려했다.

박물관 건립·복제물 전시
성보 신앙성 유지등 제안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계종 문화사회부는 복제물로 성보박물관에 보관되는 성보를 대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많은 성보를 다시 제작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각 교구 산하 사찰을 대상으로 성보 실태를 조사, 성보 등록대장을 만들 것을 지시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비지정문화재 처리와 대상물 제작연대의 하한선 결정문제로 작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성보는 일단 정성어린 신앙행위와 결부되기 때문에 본래의 종교적 의미를 살리면서 보존해야 한다"는 홍윤식 동국대 박물관장의 지적은 성보 보존을 위한 적절한 지침으로 보인다.

한편 사찰문화재 보존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불교문화재 보존실태와 향후 보존대책/홍윤식(다보 8) △문화재관리에 관한 연구: 사찰문화재를 중심으로/박재근(동국대 석사논문) △한국 문화재 관리에 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연구/송용기(동국대 석사논문) △부석사를 통해 본 사찰문화재의 보호/이선근(불교미술 3) 등이 있다.

김재경 기자

"한·일 문화재 반환협상 절실"

日 민간소장 3만여점 회수 방안 내놔

배재대 정순호교수팀

광복 50주년을 맞아 해외 유출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재대 정순호교수팀이 '일제의 문화재 약탈과 그 해결방안'이란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 논문은 지난달 30일 학술진흥재단에서 대한국제법학회와 한국정신대연구회가 공동주관한 '청산하지 못한 일제 시기의 문제' 주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적 차원의 연구 성과를 모은 것이다. 약 6만8천7백여점의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중 일본에 있는 것은 절반에 가까운 3만여점.

정교수는 "일제의 문화재 약탈행위를 한·일협정이 분명히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일제시대 이후 반출된 모든 문화재의 반환문제를 논의하는 한·일간의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협정의 한 부분으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나 한국정부는 4천4백79점의 문화재 반환을 요구해 1천4백32점을 반환받았을 뿐, 민간소유의 문화재 반환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정교수는 △완전반환이나 △장기대여 형식의 실질적 반환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교환전시의 의무화, △금전배상등의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7~24일까지 로마에서 열린 '문화재반환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합의의정문은 유출문화재의 반환에 대해 관련 당사국간의 논의에 맡기기로 해 한·일간의 문화재 협상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조선시대 사경 일반대중 중심 제작"

장충식 교수 논문서 밝혀

우리나라 사경(寫經)미술에 대한 연구가 고려시대의 금은자(金銀字) 사경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시대 사경의 현상(現狀)과 발문을 분석, 이 시대 사경미술의 조성배경과 편년(編年) 및 양식을 고찰한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동국대 장충식교수는 한국미술사학회(회장 강경숙)의 학회지인 〈미술사학연구〉204호에 발표한 논문 '조선시대 사경考'를 통해 "고려 사경이 국왕, 또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사업이 대종을 이루었음에 비해 조선의 사경은 건국 초기부터 왕실은 물론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추복(追福)에 더욱 치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선시대 사경은 차츰 시대가 내려오면서 왕실주변의 권력층에서 일반대중을 중심으로 사경 불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학회지 203·204호 발간
미술사학연구회

한국미술사학회(회장 강경숙)는 최근 △통일신라 약사불상의 연구(유근자) △신라 고분출토 공예품에 보이는 외래요소의 연원(이송란) 등을 게재한 〈미술사학연구〉 203호와, △후백제 지역 불교조각 연구(최성은) △선사시대 한국과 중국의 암각화 비교 연구(임세권) 등을 실은 204호를 동시에 발간했다.

육조스님이 회(懷)지방에 머문이유

문 오조 홍인대사께서 육조스님께 의발을 전하시며 길을 떠나라고 할 적에 육조께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오조께서 이에 '회(懷)자 고장에선 머물고 회(會)자 고향에선 감추라'고 하셨습니다. 감출 회 자에선 드러내고 만날 회자에선 감추라 하셨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연도순·서울 성북구 돈암2동〉

답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일러주고 또는 대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 발로 가는 것이지요? 오조스님께서 한 말씀 하셨을 때 그것은 이미 한마음이 되어 법문을 해주신 것입니다.

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머물고 모르는 사람에겐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고가는 인연 막지 않는다' 뜻은

문 말씀 가운데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짐작컨대 여여하게 자유인으로 생활한다는 뜻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렇다면 마구니가 온다해도 막지않고 부처가 간다해도 붙잡지 않는 것인지요?

〈권순명·마산시 합포구 남성동〉

답 온다 간다, 막는다 붙잡는다에 걸려서는 안됩니다.

수행자라면 가는 인연 애써 붙잡으려 하지 않고 오는 인연 애써 막지 않습니다. 마구니가 온다해도 꿀꺽 삼키고 부처가 온다해도 꿀꺽 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닫지 않고서는 이 도리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요컨대 가는 것 잡지않고 오는 것 막지 않는다 함은 어떠한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 오는 것도 법이요 가는 것도 법인데 온다 간다로 야단스레 굴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공부하는 중의 수행자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번뇌와 보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

문 우리들의 마음 작용을 관찰해 보면 잠시도 쉬지 않고 찰나에 일어났다가 찰나에 사라지곤 합니다. 이걸 생멸심이라고 하는 줄 아는데요. 이 생멸심이 고요하고 고요한 경지에 이르러 적멸의 경지에 이르러야 참 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생멸심과 적멸심,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옳겠습니까?

〈이도형·광주시 동구 학동〉

답 늘 말씀드렸지요? 마음이 일어났다가 가라앉았다 하는 게 걸어갈 때 한발 떼어놓고 또 한발 떼어놓는 것과 같다고요. 한발 떼어놓고 또 한발 떼어놓는 작용이 없다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생각 저 생각이 찰나로 갈아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광대무변하게 발전해 갈 수 있겠습니까? 고정된 마음이라 하면 돌아 갈 수가 없지요. 한 사람이 순간순간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아들도 되는데 어느 한가지 역할만 고집한다면 어떻게 순리대로 돌아 가겠습니까?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생각, 그 마음의 작용이 없다면 성불이란 말도 없을 터이고 중생이란 말도 없을 것입니다. 요 생각 조 생각 요 마음 조 마음이 연방 일어났다 사라졌다하니까 창조도 할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고 발전도 할 수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생멸심이다, 번뇌다 이름 붙이기 전에 수행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공부재료다 이겁니다. 번뇌니 생멸심이니 적멸심이니 하는 게 다 한 그릇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업식이 화해서 나오는데 한 통속에서 나오는 것을 따로따로 이름짓고 갈라볼게 아니라 다 그속에서 나온 것 그속으로 되집어넣어라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구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뽀글뽀글 팥죽 방울이 연방 솟는 것을 보더니만 주걱으로 '요것도 문수, 조것도 문수' 하면서 치더란 말씀입니다. 죽 솥에서 방울방울 일어나는 게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죽 솥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 방울방울이 생멸심이고 번뇌인데 그 스님이 마음의 주장자, 여기선 주걱이죠, 그 주장자로 요것도 문수, 조것도 문수 하고 내리친 것은 나온 곳에 되놓는 도리를 방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번뇌다 보리다 생멸심이다 적멸심이다, 혹은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것이 다 한 통 속의 소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둘로 보지 말고 나오는대로 닥치는 대로 나온 곳에 되놓고 여여하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한발자욱 떼어 놓았노라, 또 한발자욱 떼어 놓노라 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불법 말고도 진리 얻는길 있는지

문 대학원에서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동안 공부과정에서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 불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진리를 얻는 방편이 세상에 있습니까?

〈박한광·서울 강남구 논현동〉

답 불법 아닌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이고 생각하고 응용하고 돌아가는 이 모든게 '법'이지요.

쉽게 말해 삼라만상이 다 불법이고, 생활이 그대로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불법을 떠나서 따로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법 아닌게 하나도 없다는 그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따로 이름짓지 말고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통도사

四海浪平龍潛隱
(사해랑평용추은)
九天雲靜鶴飛高
(구천운정학비고)
千古金沙灘水上
(천고금사탄수상)
逍遙猶作誦經聲
(소요유작송경성)
天下溪山作勝遊
(천하계산작승유)
誰能托千共同遊
(수능탁천공동유)

온 세상의 파도 잔잔하니 용이 숨고
온 하늘의 구름 고요하니 학

만세루

해설 통도사 전각 당우들의 주련 가운데 이 만세루의 주련 내용이 가장 서정성이 짙은 것 같다.

파도와 하늘과 구름, 학, 금사강 여울물 소리, 천고, 경읽는 소리, 산, 개울등의 단어들이 이뤄내는 서정성이 매우 격조 높게 하나의 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여섯 귀절에 동원된 단어들은 매우 흔한 것이면서도 나름대로 불교적 우주관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기도 하다. 시각과 청각적 요소들의 조화와 독자를 끌어 들이는 마지막 귀절의 이 높이 날도다
천고의 금사강 여울목 위에
조용히 들려오는 경 읽는 소리
천하의 산과 개울에 그윽히 퍼지니
뉘라서 능히 함께하지 않으리

우주만물과 하나된 기쁨 노래



◇통도사 만세루는 현재 기념품판매장으로 쓰이고 있다.

단정적 호소가 읽는 이의 가슴을 틔워준다.

이 주련의 내용은 단순히 서정적 감상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의 용과 학의 움직임. 시간을 뛰어 넘은 여울물 소리와 현재의 독경소리, 그것들이 천하의 산과 개울에 그윽히 퍼지는 광경을 '나 몰라라' 할 사람은 정말 없을 것이다. 그 세계야말로 극락세계의 아름다움이겠기에.

〈안동 경안중 교사〉

海東佛教大學
— 통신 수강생 모집 —

◉ 법사(法師)과정
고졸 학력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여하에 따라 단기간내에 과정을 수려하여 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자로서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 운영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불교의식 과정
조석예불, 불공시식, 49재, 다비식에 이르기까지 완전 기초부터 통신으로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남녀 승속 불문하고 누구나 통신 수강할 수 있음.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4년가지 우리나라의 권위있는 불교 관계 교수님과 석학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가능※

문의처: 110-3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한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741-0495~6 FAX 763-4603

海東佛教大學
학 장 장 이 두
대학원장 김 지 견

교직자 양성전문교육

제15기 佛教儀式(범음,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업 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명
■ 교육기간: 3개월(각과정)
■ 구비서류: 본 대학 소정원서 사진 1매
■ 원서접수: 1995년 6월25일~7월24일까지
■ 개강일시: 1995년 7월24일 오후5시 정각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번지
탑골공원뒤 허리우드극장에서 종묘방향
구산빌딩 앞 경한빌딩 2층
☎741-0495~6 FAX 763-4603

海東佛教大學
儀式教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5학년도후기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개설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성철큰스님의 백일법문(上, 下)을 부교재로 선택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7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강사

1학년 교과목	법화사상, 화엄사상, 반야사상,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밀교사상,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무진장스님(전포교원장), 권탄준(동국대교수), 박종(불교통신대학장), 성본스님(승가대교수), 서윤길(동국대교수), 홍윤식(동국대교수), 한정섭(불교교화원장), 종범스님(승가대교수), 암도스님(전포교원장)
2학년 교과목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정병조(동국대교수), 권기종(동국대교수), 한보광스님(동국대교수), 정락스님(포교원장), 김용표(동국대교수), 오형근(동국대교수), 이만(동국대교수), 김영태(동국대교수), 정승석(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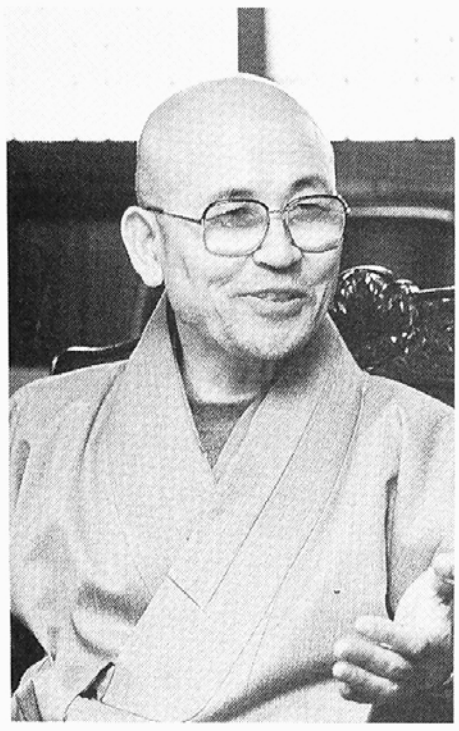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1995년 6월 24일~7월31일 입학금 150,000원 (교재제공)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6시 총무원불교회관 1층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자만 가능

4. 개강일시: 1995년 8월 5일(토) 오후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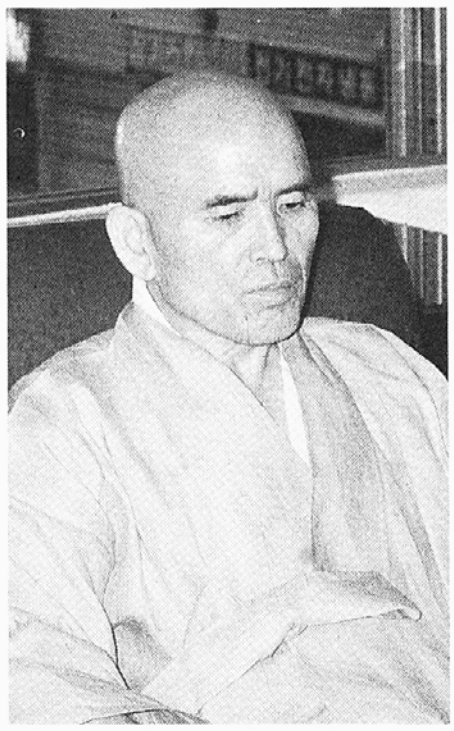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 722-0408, FAX: 732-1207
◎ 서울: 보련각(조계사앞): 733-0333 ◎ 부산: ◎불서보급사: 246-4321
◎광주: 금강불교백화점: 671-0451 ◎ 대구: 삼영불교서림: 425-4097

6. 원서접수처
본대학 사무국: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총무원 1층
※특전사항: 상기과정을 졸업한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법사증 수여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대구불교방송 추진위원장 **설 조 스님**



청주불교방송 추진위원장 **월 성 스님**

대구·청주지역 불교방송 지방국이 내년 초파일을 목표로 개국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자들의 신행을 넓혀갈 지방국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설조스님(불국사 주지)과 월성스님(법주사 주지)은 서울불교방송국의 축적된 노하우와 지역불자들의 단합된 의지를 모아 개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요인터뷰

"범종단 화합에 역점 준비 만전 기할터"

5개본사·태고 진각종등 20억원 마련계획 세워

▲지난 1일 회의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22일내로 현판식도 갖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달말이면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불교방송 개국추진 과정에서 부산 광주 등은 상당히 어려움과 아픔을 감수하여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인데요. 대구 경북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지역불교계를 연대하여 이끌어나갈 계획입니까.

▲이 지역 5개본사가 주축이 되어 태고종, 진각종 등 이웃종단과도 협의하여 불자 모두의 방송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최대한 화합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해야죠.

-지방국 개국을 위해 소요되는 20억원 마련이 급선무입니다만 추진위에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요.

▲지방국 설립에서 이 부분이 가장 관건입니다. 우선 동화사 은해사 직지사 고운사 불국사에서 10억을 충당하고 태고종 진각종을 위시한 각 종단과 불자들의 참여로 나머지를 충당할 방침입니다.

-지역신행을 이끌고 나갈 음성포교매체의 등장은 지역사회 종교판세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는데 대구불교방송을 어떤 방송으로 모습을 갖출지 궁금합니다.

▲불교의 도시 대구에 불교방송이 개국되면 불자에게도 신행을 돈독히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부처님 자비를 접하는 건전하고 즐거운 방송이 되도록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먼저 추진위원장에 선임되신것을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불교방송 허가와 함께 추진작업이 미진했던 대구 경북지역도 지난 달 18일부터 어느정도 추진작업이 본격화되는 추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대구 불교방송이 무리없이 개국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불자들의 염원이었던 대구 불교방송이 지난 5월19일 정부로 부터 인가를 받아 내년 전파를 발사하게 됐는데요. 개국을 준비하는 대구 경북지역 불자들의 기대가 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특정 종교국가도 아닌데 매체의 편파적인 허가로 균등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명의 이기를 통한 포교를 하지못한 것을 정부당국에 책임만 전가해 왔었습니다.

이지역 불자들은 모처럼 얻은 기회를 잘살려 교단의 전체구성원들이 합심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주민들에게 훈습될 수 있다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초적인 추진업무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자들 작은정성이 출범 주춧돌 됩니다"

5년준비 경험 최대한 활용 지역 향상 주도할 매체로

-청주 충북지역은 범종단적 승가의 화합과 사부대중의 활동이 활발한 곳인데요. 앞으로 지역국 개국준비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입니까.

▲충북지역은 오랜기간 불심이 잘 보존돼 저력있는 지역입니다. 재가신도의 활동도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활발한 편입니다. 충북지역의 유일한 본사인 법주사는 이점에 유의하여 앞으로도 태고종 천태종 등 각 종단과 협의하여 불교방송 개국을 준비해 나갈 것 입니다.

-현재의 청주불교방송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청주지역은 5년간 추진위가 작업을 계속해온 지역입니다. 현재 가경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고 채훈 관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상임위원과 1명의 감사가 선임되어 개국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본사와 관계정립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개국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가장 급선무가 자금마련 입니다만 자원마련 구도는 어떻게 짜여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현재 방송국 개국에 따르는 재원은 기계발주의 선택과 부지 매입과 임대에 따라 소요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법주사가 주도적으로 출자해야지요. 또 태고종 천태종 등 각 종단과 재가불자의 참여가 전체재원의 큰 물을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불자들 한분 한분의 작은 정성도 소중히 받아들여 청주불교방송국을 개국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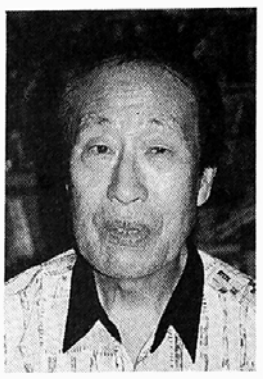
-스님께서는 청주불교방송을 부처님의 음성인 해조음과 같다고 말씀하신적이 있으신데요.

▲청주지역이 갖는 장점을 살려 소수가 느낄 수 있는 친근감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충북의 소리 충북불교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해 자체제작비율은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자체제작비율을 늘려 지역 현실에 맞는 여러가지 편성형태로 지역불자의 질적향상과 지역불교발전에 다양한 증폭작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원우 기자

나의 수행일기

정 달 영 〈국악인〉



목탁대신 가야금 뜯으며 백일기도

산조·줄풍류 천번 타고나니 부처님 웃음이…

인생은 한 바탕의 산조(散調)다.

누구나 그렇듯 지나 온 삶을 되돌아 보면 깊은 회한에 잠기기도 하고 아름다운 추억에 미소를 머금기도 한다. 74년의 나이를 살아 오며 나는 무엇을 했던가. 돌이켜 보면 나도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의 삶을 살아왔을 뿐이다.

한 바탕의 산조와 같은 삶. 나는 그렇게 산조풍의 삶을 이어 온 것 같다. 가야금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악기를 다루게 됐고 남자 가야금병창을 외롭게 지켜 오는 인연을 갖게도 됐다.

그러니까 진양조의 삶이라고 할 어린시절에 나는 해금이니 양금과 같은 줄풍류를 배웠고 중모리가락에 해당될 청년시절에 본격적으로 가야금 병창을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가야금 병창의 원조는 한숙구선생인데 나는 한 선생의 직계제자인 정남옥선생으로부터 배웠다. 정남옥선생은 나의 숙부님이다.

가야금 병창은 여성들의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래서 나는 유일한 남자 병창가로 국악계를 외롭게 살아 왔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내 스스로 나의 경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악기를 보듬으며 살았을 뿐이다.



그렇게 살다보니 어느새 50대의 나이를 맞고 있었다.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맞아 나는 고민했다. 그 긴 시간을 두고 내 스스로 흡족해 할 만한 음악을 타보지 못했던 것이 못내 괴로웠다. 지천명이 아니라도 지음(知音)의 귀와 마음은 갖춰야 할 것이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격렬한 듯 하면서 질서가 있고 산만한 듯 하면서 차분한 맛이 있다는 휘몰이 장단의 나이를 맞아 스스로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 싸움은 다름아닌 백일기도였다.

마음을 굳힌 나는 도봉산 약수암으로 찾아갔다. 전부터 만나 오던 스님을 찾아 방을 하나 얻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나의 백일기도는 좀 다른 방법의 기도였다.

아침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가야금을 안고 법당에 들어간다.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좌정한 다음 가야금을 타며 소리를 하는 것이다. 줄풍류의 곡들, 명창, 산조를 주욱 훑어 타고 나면 이마에 땀이 흐록 있다. 다시 '관세음보살'을 정근하며 목탁대신 가야금의 현을 뜯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기도방법이었는데 모든 레파토리를 하루에 10번씩 했다. 13시간 가량이 걸렸다. 가야금 1천독을 발원했던 나의 마음은 첫날부터 흔들렸다. 나름대로 다부지게 생각했던 기도였지만 막상 시작을 하고보니 백일을 다 채울 수 있을지 두렵기까지 했다.

'에이, 백일이 안되면 하는 날까지만 해보지 뭐!' '아니야. 백일을 못 채우면 내 50평생이 물거품보다 허무한 것이야' '이번 기회에 독을 트고 손을 풀어야지' 이런저런 다짐과 좌절들이 교차되는 가운데 사흘이 지나고 1주일이 지났다.

처음 악기를 배우던 어린시절의 고향과 아버지 숙부님이 생각나고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났다. 사흘이 지나면서 손가락이 찢어지기도 했다. 천조각을 동여매고 줄을 튕기니 소리가 제대로 날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줄풍류를 타고 소리를 내질렀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절을 하기도 했고 다시 가야금을 끌어 안고 '죽장망혀…' 가락을 읊어대기도 했다.

어둑어둑한 법당에 예불 모시러 스님들이 올라 올 때쯤이면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스님들과 함께 예불을 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반야심경을 병창으로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년이 더 지나서 불교방송에 의해 비로소 반야심경 가야금 병창을 만들 수 있었다. 때가 되어야 일도 된다더니 말이다.

아무튼 나는 백일간의 기도를 마쳤다. 1천번이 넘도록 가야금 산조와 병창과 줄풍류들을 타고 나니 지천명의 나이에 자신이 생겼다. 마지막 회향날의 기쁨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아무도 없는 법당안이었지만 불보살님과 아라한과 제석님들이 나의 관객이었다. 그 고급의 관객들 앞에서 나는 두시간이 넘도록 회향연주를 했던 것이다. 연주를 하며 울려다 본 부처님이 빙긋 웃고 계신다고 느껴졌을 때 나는 흘러 내리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불교성지순례

실크로드 대장정 2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출발 : 7월 24일, 8월 28일
- 동참금 : 295만원
- 일정 : 서울-북경-서안-난주-가욕관-돈황-투르판-우룸치-카슈가르-쿤자랍고개-훈자-길기트-스왓-페샤와르-탁실라-이슬라마바드-라호르-방콕-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출발 : 7월 21일, 8월 25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네팔 9일
- 출발 : 7월 23일, 8월 27일
- 동참금 : 210만원
- 일정 : 서울-상해-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스리랑카 캔디 불치제 6일
-스리랑카 최대의 불교 축제 캔디 페라헤라·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출발 : 8월 4일
- 동참금 : 118만원
- 일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덤블라-캔디(불치사)-콜롬보-서울

중국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 8월 29일, 9월 19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출 발 : 7월 15일, 7월 29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 7월 23일, 8월 27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 출 발 : 8월 20일, 9월 20일
- 동참금 : 65만원

■ **여행조건** ●호텔 : 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 :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 (代)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20〉

雲法師 務學十門(운법사 무학십문) ⑤

覽思習者 無礙之辯 但益時機
번사지자 무애지변 단익시기
自非章安 秉筆之力 豈流今日
자비장안 병필지력 기류금일
故知資高聲雄者多 從巨至中 手寫千偈
고가빈고덕반두달다 종단지중 수사천게
從中至尊 口誦千偈
종중지모 구송천게
但當遵佛 能寫名字 愼勿倣世 精學綠焉
단장준불 능사명자 신물효세 정초예언

돌이켜 지자대사(천태지의선사)의 걸림없는 변설을 생각해 보아도 다만 그 때의 이익인지라

장안(천태종 4조·지자의 법문을 기록)의 붓 잡은 힘이 아니면 어찌 오늘에 이르렀으랴

고로 가빈(인도 카슈밀지방)의 큰스승 반두달다는 아침부터 낮까지는 천개의 게송을 베꼈고 낮부터 저녁까지는 천개의 게송을 외웠다.

다만 마땅히 부처님을 존경하여 명호를 쓸지라도 세간에서 하듯이 초서니 예서니 정미롭게 하려하지 말지어다.

⑥不學詩 無以言 (불학시 무이언)
言善則千里之外 應之
언선즉천리지의 응지
전발췌용 개복변형 피위아욕 아기피영

(그와같이) 오래 익힌 즉 말과 논리가 절로 뛰어나고 겨우 외울지라도 말함이 속되지 않는다.

저를 일러 사해의 습착치라 하니 이에 대꾸하여 미천의 석도안이라 하였다.

(중국 진나라의 습착치라는 현인이 도안스님을 보고 내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뿐인 습착치라 하오 말하니 도안스님이 이를 맞받아서 내가 하늘 아래 도안이오 하였다) 진류사람 완첨이 때에 문득 비웃어 가로되 대진(중국 나라이름)이 용처럼 일어나 천하로 집을 삼거늘 스님은 머리기르고 몸을 온전히 하여 가사를 벗고 비단 옷을 입지 않느냐 하매 (하늘 아래 도안이라면 왜 진나라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뜻)

효용스님이 대꾸하기를 포일(하나를 품다, 하나는 道一불성·진여)로써 노닐고 오직 고요함으로써 정성을 다하는 지라 머리깍고 모양새 바꾸고 의복과 형상을 고친 것을 저들은 일컬어 욕되게 한 것이라 하나 나는 저들같은 영화를 버렸으니

故 無心於貴而愈貴 無心於足而愈足
고 무심어귀이유귀 무심어족이유족

말을 선하게 하면 천리 밖에서도 응해 뜻이 지나치고 실답지 못한 말 삼가야

言不善則千里之外 違之
언불선즉천리지외 위지
時陳褒貶 語順聲律
시진포폄 어순성률
國風敎厚 雅頌溫柔 才華氣淸 詞富彬彬
극풍돈후 아송온유 재화기청 사부빈울

⑥시를 배우지 아니하면 말할 줄 모른다.

말이 선하면 천리 밖에서도 응하고 말이 선하지 않으면 천리 밖에서도 거스른다.

시경에는 칭찬하는 말과 깍아 내리는 말이 펼쳐져 있고 말은 소리와 운율에 따르니, 나라의 풍기(또는 가요풍)는 돈후하고 아송(궁중음악·종묘예악)은 온화유순하매 재주가 빛나며 기풍은 청아하고 말은 넉넉하고 빛나며 씩씩하다.

此乃蘊蘭芳 言吐風采
차내기온란방 언토풍채
雖不近乎鄙俗 而可接於淸才
수불근호롱속 이가접어청재
佛法 旣委王臣 弘道 須習文翰
불법 기위왕신 홍도 수습문한
友通 投書北闕 道安 放逸東山
지순 투서북궐 도안 방일동산
自非高才 豈感君主
자비고재 기감군주
宜省狂簡之言 徒勸語耳
의성광간지언 도허어이

久習則語論 自秀 纔誦 乃剖吐而不俗
구습즉어론 자수 재송 내함토이부속
彼稱四海習鑿齒 此對彌天釋道安
피칭사해습착치 차대미천석도안
陳壽勖酷 時論謂曰大晉 龍興 天下爲家
진류완첨 시흘조왈대진 용흥 천하위가
沙門 何不全髮削去袈裟 釋梵服被綾紗
사문 하부전발부거가사 석범복피릉사
孝龍 對曰抱一以遊遙 唯寂以致誠
효용 대왈포일이소요 유적이치성
剪髮毀容 改服變形 彼謂我辱 我棄彼榮

그런고로 귀한 데 무심하되 더욱 귀하고 족한에 무심하되 더욱 족하노라 하니 이것은 기개가 난의 꽃핌과 같고 말이 풍채를 토함이다.

비록 무지한 세속에 가깝지 않으나 가히 청신한 재사를 접인할만 하다.

부처님께서 이미 불법을 군신에 위촉하셨으니 법을 넓힐진대는 모름지기 글월을 익힐지니라

지순(중국 진나라사람)은 (강론을 맡기자) 대궐에 글을 올리고 사양했으며 도안은 (임금이 불러도) 동산에 노닐며 나오지 않나니 뛰어난 재목이 아니드면 어찌 군주를 감동케 하리오

마땅히 광간의 말(뜻이 지나치고 실답지 못한 말)이 헛되고 헛된 말임을 살필지어다. 龍眼

여름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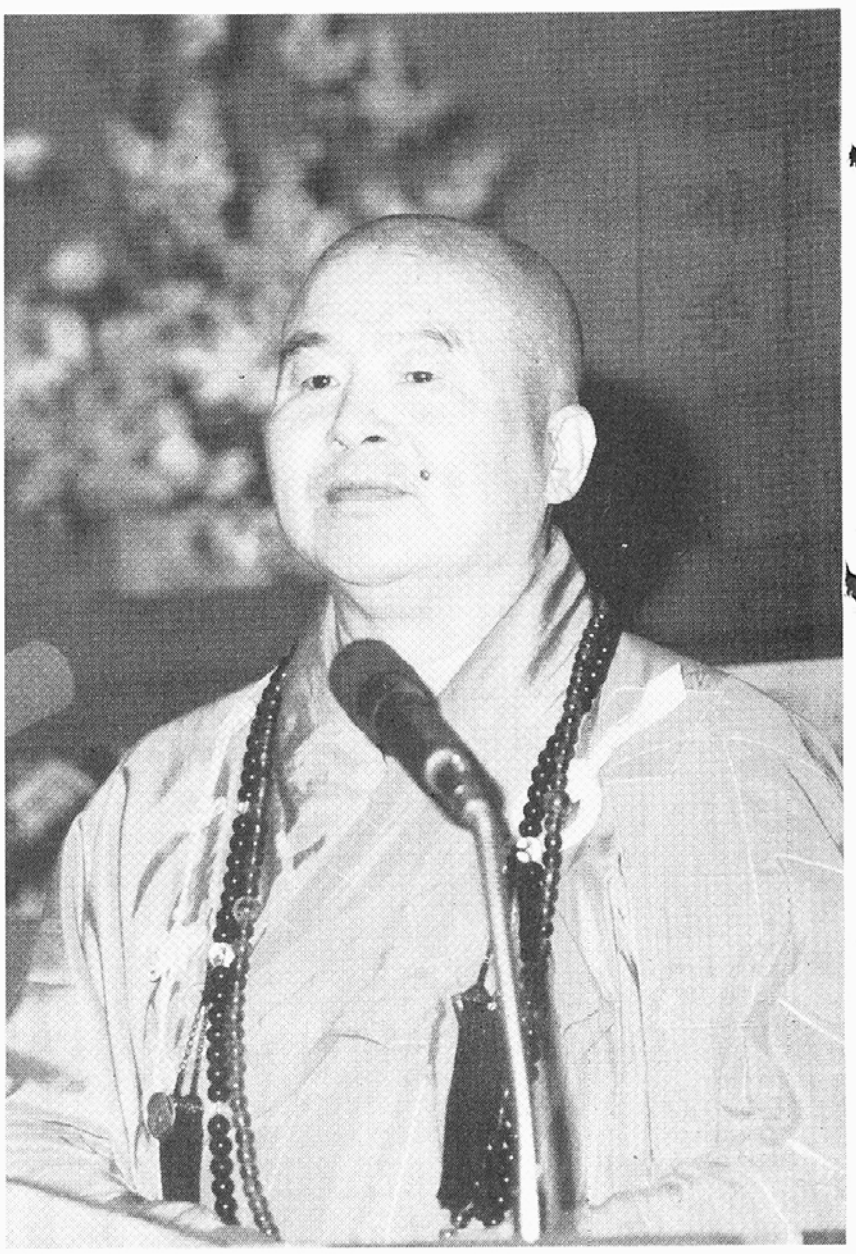
해외 고승 지상법석

"만물을 차별하는 생각이

성운스님

〈대만 불광산〉

스님은 1922년 중국 본토 강소성에서 태어났다.
12세에 대각사에서 지개법사를 은사로 출가, 49년에 대만으로 건너갔다. 부처님법을 널리펴고자 〈인생〉이란 월간지 주필을 맡았고 학생회, 힙창단, 유치원등 힘있는 대로 포교사업에 전력투구했다. 불광산를 개산하여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교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창고와 같아 수많은 고뇌를 저장하고 있는데 때로는 고민을 털어놓고 하소연을 할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하기가 몹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경우 성격이 활달한 사람은 직접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요즘 젊은이들이 애창하는 '마음속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지만 말하기가 무척 어려워'라는 노래 가사처럼 고백을 못하고 가슴 속에 묻어두고 맙니다.

마음속 비밀이 누에고치 처럼 자신을 갉아 불행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도 말하기 어렵지만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의심하거나 질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말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천가지 만가지나 되는 마음속의 비밀과 고민들을 어떻게 털어내고 교묘하게 표현하여 병에 이르지 않고 재난을 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종의 예술이며, 지혜입니다.

과거에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갖은 고생을 해가며 자식들을 키웠으나 자식들이 불초하여 늙으신 부친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상심한 노인은 남에게 창피스러워 말도 못한채 어린 손자를 데리고 길거리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어느날 노인이 철모르는 손자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린손자가 알아듣겠습니까? 대체 무슨 일을 당하셨는데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비밀을 털어놓겠소. 세상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한 뒤에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나의 아들을 길렀고 나의 아들은 오늘 또 그의 아들을 기른다. 그러나 나의 아들은 그가 과거에 굶었다고 오늘 나를 굶기니 손자에게는 제발 나를 굶기는 법을 가르치지 말아다오'

이것은 자손을 아끼는 늙으신 어버이가 고통스러워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속의 소리입니다. 살다보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도 말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인색함과 교만심·해꼬지하는 마음·개인적인 감정·간악한 마음·짐승같은 마음에 이끌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 없이 많습니다.

옛날 알렉산더대왕이 희랍을 통치할 때 그는 희랍의 국토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동서남북 가릴것 없이 다른 국가들을 침공하여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쳤습니다. 알렉산더대군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를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자욱한 모래가 끝없이 휘몰아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알렉산더가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서쪽으로 공격해 가면 어디가 나오는가?"

"서쪽으로 간다해도 역시 사막입니다" 부하가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부하의 말을 듣자 전율을 느끼며 광활한 사막은 사람의 힘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군대를 되돌려 동인도로 진격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하여 수없이 많은 격렬한 전투를 치루며 마침내 인도 내륙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물살이 급한 갠지스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갠지스를 건너면 어떤 곳이 나오는가?"

"폐하! 광활한 삼림이옵니다"

알렉산더는 빽빽한 삼림을 바라보자 다시금 두려움이 생기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삼림을 가로 질러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인더스강쪽을 공격해 들어가면 어떤 곳이 나오는가?"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책 ③
효심의 본찰
용 주 사
사찰문화연구원 펴냄

사지(寺誌) 사찰 문화의 결정이요, 신행의 요람입니다.

세월의 무상함은 불교문화 유산이라 하여 비껴 가지 않습니다. 풍상에 스러져도 신심은 그대로이겠지만 옛사람들이 빚어놓은 신심의 결정인 사찰문화를 흔적조차 없이 잃어버린다면 민족문화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찰문화연구원'이 꾸준히 이루어온 사찰문화와 사지 연구의 결과로서 개별 사찰로는 처음으로 용주사 사지를 엮었습니다.

용주사지 창건 배경과 과정에서부터 주요인물, 문화유산에 대한 신앙적, 예술적 고찰, 용주사의 말사, 용주사의 옛기록에 이르기까지 용주사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변형판(18절)
248쪽
전면 컬러
(사진 168매 수록)
값 10,000원

*이제는 신도 교육과 포교도 '사지 빌간' 등을 통해 한단계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책 ④
효를 통해 본 불교의 인간관
'효의 세상 정토의 세상'
사찰문화연구원 펴냄

'효' 튼튼한 사회, 건강한 인간 관계의 기둥입니다.

● 사찰문화연구원에서는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개인적 깨달음(성불)과 사회적 깨달음(불국토 실현)의 실천행으로서의 '효사상'을 한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효, 한국 불교에 살아 숨쉬는 고승들과 재가 불자들의 효행, 효 윤리의 현대적 의의를 평이한 문체로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에게는 교양서로, 청소년 불교 지도자나 스님들께서는 교육자료로서 일독을 권합니다.



신국판
240쪽
전면 컬러
(사진 39매 수록)
값 7,000원

* 부록으로 용주사 소장 부모은중경 목판본을 영인하여 실었습니다.

산천 경계와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도
부처님의 참뜻은 하나더라.

현오스님과 함께 떠나는
미얀마 72일,
위빠사나 수행기



남방불교 수행 제일의 나라 미얀마.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
그곳에서 철저한 계율과 경전에
의거한 수행방법을 공부하고
돌아온 현오스님이
한국불교에 띄우는 메시지.

■ 신국판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에 충실하자!
수행은 결코 승려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신심만 있으면 누구나 깨달음의 세계로 들 수 있다!

◎ 이 책의 지은이 현오스님은 '75년 오대산 월정사에 입산, 회찬 노사로부터 득도한 후, 제방 선원과 토굴 생활을 거쳐 '93년 미얀마의 마하시 수도원에서 위빠사나를 수행했다. 현재는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토굴에서 정진중이시다.

· 펴낸곳: 다모아 기획 · 출판 사업부
· 주문처: 도서출판 논장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02) 332 - 8369

해외 고승 지상법석 — 여름 특집

마음에 감옥을 만듭니다”

“자유와 부자유는 오직 생각에 달려있어 마음이 능히 경계를 바꿀 수 있으면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는 비밀이 없다’ 경지에들면 걸림없는 인생

탐애·애증등 번뇌 항복 받을때 행복의 문 열려

“폐하! 더 간다해도 망망대해일 뿐입니다”

알렉산더는 부하의 말을 듣자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세계통일이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할 방법이 없구나! 내겐 우주를 정복할 방법도 없지만, 내 자신의 야심을 정복할 방법은 더욱더 없구나!”

몸시 상심한 알렉산더대왕은 대를 되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 개인의 야심이 너무 크고 욕망의 불길이 지나치게 뜨거우면 종종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수 많은 비밀이 감춰져 있고 이러한 비밀들은 때때로 우리를 편안하지 못하게 옭아매곤 합니다. 마음 속의 번뇌를 항복받고 마음을 편케 하는 도(道)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문입니다.

2조 혜가(慧可)선사가 달마(達磨)조사를 찾아갔던 것도 조사스님에게 이처럼 편안하게 하기 힘든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은 마음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은밀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 은밀하다는 말은 바로 비밀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이들 비밀은 자신의 내심 깊은 곳에 머물면서 마치 누에고치처럼 자신의 마음을 감아먹고, 남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 우리들 중 누군가가 ‘책이라면 내가 아직 읽지 않은 것이 있지만, 비밀은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경지에 도달했다면 그는 아주 자유롭고 아무 걸림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밀이 없는 인생은 부담이 없는 해탈한 인생 바로 그 자체 입니다.

감옥에 갇혀 육체적 자유를 잃은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무한한 연민과 동정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 또한 날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남의 돈 이백원(한화로 오천원 가량)을 훔쳤는데, 이십년이 지나도록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누를 수 없었기에 어느날 용기를 내어 돈을 돌려주기 위해 돈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십년 전에 제가 당신의 돈 이백원을 훔쳤습니다. 오늘 이자를 보태서 이만원을 드리겠으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주인은 이 말을 듣자 영문을 몰랐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돈을 훔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당신 부친께서 살아계실 때 훔쳤습니다”

“아!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또 오래전 일인데 뭘 그러십니까. 돈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주인은 완곡하게 사양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돈을 받아주시길 간청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초조해져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한사코 돈을 받지 않겠다 하고 또 한 사람은 기어이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한참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돈을 돌려주겠다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십년전에 제가 잠시 어리석었던 탓에 제 평생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십년동안 전 양심의 가책으로 부끄럽고 불안하여 잠시도 마음의 고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감옥에 갇힌 지 이미 이십년이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야만 저는 마음 속의 감옥에서 풀려나 본래의 자유로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절도범처럼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사사로운 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자유를 잃은채 부자유스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부자유스럽지만 마음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 유유자적하며 또한 내면의 세계를 깊이 응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유로운 인생을 삽니다. 자유와 부자유는 오직 자신의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경계를 따라 바뀌면 부자유요, 마음이 능히 경계를 바꿀 수 있으면 대자유를 얻는 것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종(禪宗)의 3조(三祖) 승찬(僧璨)대사의 어록인 신심명(信心銘)에는 이를 잘 말해주는 귀절이 있습니다.

‘지극한 도(道)는 어렵지 않음이여, 다만 간택(揀擇)을 버려라. 다만 애증을 짓지 않으면 뚜렷이 밝아지니라(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 지고무상(至高無上)한 오묘한 도를 구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우리의 우주만물에 대해 간택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지극한 도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게할 뿐이니 마음속의 탐애와 애증 등 갖가지 번뇌를 제거하여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일체를 비추면 진리의 오묘한 도가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늘 한탄하며 말합니다. ‘호랑이의 거죽을 그리기는 쉬우나 뼈를 그리기가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기 쉽지만 마음은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자신의 마음에 대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무튼 순식간에 바뀌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우유부단한 마음을 안정시킬수 있을까요? 무문(無門)스님께서 시 한 수를 읊으셨으니,

‘봄에는 온갖 꽃이 있고, 가을에는 달이 있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있고, 겨울에는 눈이 있네. 만약 마음속에 쓸데없는 일이 없다면 그 때가 우리 인간의 호시절이라’(春有百花秋有月, 夏有凉風冬有雪, 若無閑事掛心頭, 便是人間好時節)

시절상으로 춘하추동이라는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바삐 뛰어다니며 살고 있지만 일체의 인연을 놓아버려서 마음 속에 한 물건도 없다면 자유롭고 흡가분한 경계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 쓸데없는 일이 없다면 그 때가 인간의 호시절이라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32

양 형 진

하나의 세계 I

양자 역학에서 다루는 물체는 파동이면서 입자이고 입자이면서 파동이며, 역으로 말하면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라는 논의를 하였었다. 이는 우리의 지각 경험에 근원을 두는 언어 개념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또한 승의제와 세속제와 연관시켜 최상승의 절대 진리는 언설로 다 다를 수 없는 경계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있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질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양자 역학에서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말하지만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공간에 놓여 있는 물체는 파동적인 성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양자 역학은 비결정론적인 확률 분포를 말하지만, 어제 사용했던 책상은 하루 밤을 지내고 난 지금도 내 앞에 어제와 정확히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일상 생활에 확률분포란 개념은 적용될 수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양자역학의 개념들은 우리의 삶의 공간과 전혀 연관 없는 것이며, 이에 기초한 논의들도 또한 허황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다.

불교의 공에 대해서도 이와 평행한 질문이 가능하다. “내눈앞에 분명히 책상이 놓여있다. 그 위에 책을 놓을 수 있고 만지면 만져지는 물건이 분명히 있는 데 왜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는가? 나는 모든 감각 기관을 다 가지고 있는 데 왜 반야심경에서는 무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가? 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이다.

뉴턴 역학은 거시 세계에 관한 물리학으로서 천체의 운동을 비롯하여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과거의 많은 사람들은 뉴턴에 의해서 물리학은 완성된 것으로 보았었다. 그러나 물리학에서의 관측 영역이 확장되면서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 양자역학이나 상대론이다. 대략적으로 말한다면 양자역학은 크기가 작은 물체, 즉 미시 세계에 대하여 뉴턴 역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한다.

뉴턴 역학이 천체라든가 돌멩이 등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반면에 양자역학은 전자나 광자 등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시세계를 기술한다. 또한 상대론은 물체의 속도가 아주 빠른 경우나 아니면 중력의 영향이 아주 큰 영역의 물체에 대하여 뉴턴 역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다루는 것을 특수 상대성이론이라고 하며, 중력까지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경우를 다루는 것을 일반상대성 이론이라고 한다.

이처럼 상대론이나 양자역학 등과 같은 현대 물리학의 이론들은 우리의 감각 경험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을 다루고 있다. 공의 세계는 우리의 감각 경험으로 구성할 수 없는 세계이며,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이다. 양자역학이 다루는 전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전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과학자도 또한 없다.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이 미치지 못하며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여서 절대 진리의 세계가 부정될 수는 없다.

현대물리학 뉴턴역학포함 空세계 다뤄

색즉시공 처럼 미시·거시도 하나로 존재

현대 물리학의 이론들은 우리의 감각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기술하는 데에 주로 쓰이지만 우리의 일상 영역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을 포함한다. 고전 물리학은 현대물리학의 근사이론이며, 이는 현대물리학의 어떤 극한으로 표현된다. 이 근사 이론은 세계의 일부 즉 거시 세계만을 기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시 세계를 기술하는 양자역학이 따로 있고 거시 세계를 기술하는 뉴턴 역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세계가 미시세계와 거시 세계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세계가 존재하며, 이 세계를 기술하는 것이 현대물리학이다.

공의 세계는 우리의 감각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이다. 그 공의 세계는 색의 세계를 포함한다. 색의 세계 즉 현상계는 공의 세계의 근사이며 한 극한일 뿐이다. 그러므로 공의 세계가 따로 있고 색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는 공의 세계와 색의 세계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공의 세계만이 존재한다. 현상계는 공의 세계의 극한으로써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려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2분도현미 (먹기 어렵다)
3분도현미 (먹기 쉽다)
4분도현미 (먹기 더쉽다)
5분도현미 (먹기 더욱 쉽다)
6분도현미 (먹기 더더욱 쉽다)
백미10분도 (밥맛이 전혀 없다)

“입맛대로 주문,배달”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231-5421~2
235-1846~7

단청·불상·탱화·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82호※
■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 문의처: 468-8329
■ 호출기: 012-307-8329
박 석 언 합장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02)273-1239
대표 이 강 화 합장

정통 중국어 속성강좌
냉·난방, 최고급 시설과 어학실습실 완비
중국 사범대학 교수 초청강의 최임지도
기초반, 회화반, 유학반, 비지니스반
■ 스님 유학반 모집(이미 출국유학중)
■ 학위및 자격취득 책임보장
■ JW202 유학허가및 입학통지서 보장
■ HSK 시험대비 중점 강의
中國語 : 漢文 : 書法
평일 6:30~22:00(9월 학기 유학생 모집)
특별반 토➡14:00~18:00 일➡10:00~18:00
정기 학원생 취업보장(수시접수)
상담 : 代 (02) 246-8256, 246-8257
韓中語學院
원장 : 중국 합빈 사범대학교 경제학 교수
중국 학위 심사위원(한국인 최초)
관허 1670호 기업진흥상담

經歷幹部招聘
귀하의 고귀한 경력을 모십니다.
당 그룹 계열사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경종합상사로써 창설 5주년을 맞아 서울 및 수도권 거주 佛者님 약간명 초빙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응시자격
경영관리	① 40~60 才限 ② 자영업 경영자 및 임원 ③ 軍·公職 퇴직자 ④ 佛敎係 관련종사자
지점관리	
기술영업	
영업관리	① 30~39 才限 · 大卒 ② 전산직은 20~23 才女사원
전산운영	

2. 전형방법 : 1차 면접후 결정
3. 접수기간 : 95년 7월 10일 ~ 7월 17일(월)
4. 근 무 처 : 종로구 관훈동 관훈B/D 7층전관
상담문의 : 737-0588~9

윤 조각실(불교미술원)
■ 부처님 조성
■ 청동불 조성
■ 대불조성
■ 천불전
■ 개금
제14회 불교미술전 우수상수상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전화 713-3560, 214-8963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시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聖鍾社 대표 元 光 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아봐타코스 수련생 모집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얻는 곳
7월 15일 ~ 7월 23일 9일간 / 신청접수:선착순 10명에 한함
깨달음·견성·해탈·영적완성 등 당신의 의문을 아봐타코스는 명확히 경험하게 합니다.
慧元 아봐타코스 전화 579-9379 팩스 572-5514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개인지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이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최경원(남, 27세) 드림 –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전화로 주문하고 집까지 배달되는

가진 홈쇼핑 HOME SHOPPING

'95 현대불교신문 독자만을 위한 통신

영원한 생명의 상징 —호신불 목걸이—



• 실물의 약 1.4배
• 앞면은 반야심경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 체인길이 42cm

• 상품코드 KJ 6201
• 상품명 호신불 목걸이(14k/6.01g)
₩ 116,000 → ₩ 104,400(10%)
(체인포함가격)
• 체인무게 1.87g

움마니반메훔. 참마진언 호신불로 혼탁한 세계와 그로 인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안정과 광화를 찾으십시오.

만사형통으로 이끄는 작은 호신불 —불자 목걸이—



• 상품코드 KJ 6202
• 상품명 불자 목걸이(14k/3.53g)
₩ 70,000 → ₩ 63,000(10%)
(체인포함가격)
• 체인무게 1.87g

거북이는 부귀와 장수, 행운의 상징입니다.



• 상품코드 KJ 6203
• 상품명 거북반지
(14k/11.17g, 24k/0.98g
루비×2, Q×24)
₩ 398,000 → ₩ 358,200(10%)

맑고 고요한 마음 속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 주문시 반지사이즈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선 ▼
• 철사로 반지사이즈를 재어 주십시오.

거북과 함께 건강장수를 누리시고 행운도 차지하세요.



• 상품코드 KJ 6204
• 상품명 거북 목걸이
(14k/11.85g, 24k/0.98g
루비×2, Q×24)
• 체인무게 3.75g
₩ 400,000 → ₩ 360,000(10%) (체인포함가격)

현대불교신문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당사의 통신판매 광고에 성원하여 주시는 애독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운영상 다소 미숙한 점을 애정으로 감싸주신 분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이에 보답코자 금번 특별 기획 판촉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 백두산 등정' 관광으로서 모든 고객에게는 5% 할인 혜택을 드리며, 이 중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1분을 추첨하여 무료 관광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진산업(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5-1(가진빌딩 2F)

시원하게 사우나할 때 필수품 —사우나 슬림—





이태리 여성들이 애용하는 사우나 슬림. 몸전체 또는 부위별로 날씬하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 외부현상에 관계없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 제품특징
• 분타입(냉열사우나 효과)
• 벨타입으로 경제적
• 비만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없음
• 환산지 이태리 정품제품으로 수입완제품

• 상품코드 KJ 6205
• 상품명 사우나 슬림
₩ 33,000
→ ₩ 29,700(10%)
(250ml)

25세 전후로 일어난 피부 트러블 — 각종 영양분 결핍가능성이 높은 20대 피부영양을 책임집니다.

• 피부 속 유해가 없는 부분의 소량을 인식시켜주는 마음
• PLACENTA(태반) 농축액기스 80% 함유
• 입로에 농축액기스 포함
• 효능 기미, 주근깨, 검버섯, 민주름, 피주노화예방, 여드름 피부, 살색로기 개선 등
• 사용 방법(20세 이만용), 타입 크림타입(20세 이상용)
• 주문시 A형 선택(20세이만 A, 20세 이상 B)



• 상품코드 KJ 6206
• 상품명 고농축 에센스
₩ 48,000 → ₩ 43,200(10%)



• 구성 A+B세트
• 이태리 정품의 베르사 수입완제품

20층 피부 세포 속까지 영양을 공급하는 —첨단 미용 마스크 팩—

• 효능 유무한 와이엔에스가 함유된 부드러운 미용마스크는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와 지친 피부에 새로운 활력과 윤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지 무릎이 상실된 피부에 영양보습작용이 뛰어나며, 식물성 복합물질과 대한추출물의 상존은 항상 젊고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 주요성분 태반추출물—노화억제, 주름방지, 탄력강화, 영양공급
일로에추출물—미백작용, 피부재생, 자외선차단, 피부진정
녹차추출물—활성산소억제, 멜라닌색소침착억제, 수렴보습
• 사용방법 냉장고에 하게 보관된 제품을 꺼서 꺼내어 사용하며 피부에 밀착시킨 후 30분간 방치하거나 두드리듯 맛사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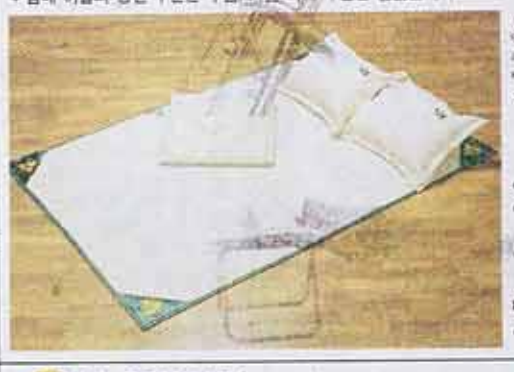
• 특히 햇빛이나 바람에 얼굴이 탄 날에 이용하세요.
• 이태리 정품제품
베르사 수입완제품
• 상품코드 KJ 6207
• 상품명 마스크 팩
• 상품용량 20ml×10EA
₩ 85,000 → ₩ 68,000(20%)

여름을 시원하게 —삼베패드 / 이불 / 베개 카바 세트—

천연 고급 삼베로
품품하게 만들어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예쁜 자수 처리 품품한 끝마무리
까실까실한 삼베의 촉감을 느껴보세요.

100세트 한정

* 삼베 이불의 상단 부분은 두겁, 가슬 아래 부분은 홑겹입니다.



• 크기
이불 150×200cm±3cm(3kg)
패드 140×200cm±3cm(1.5kg)
베개카바 40×60cm
• 소재 천연삼베 100%(기계직)

• 상품코드 KJ 6208
• 상품명 삼베패드/이불/베개카바세트
• 구성 이불1, 패드1, 베개 카바2
₩ 105,000
→ ₩ 75,000(28%)

산뜻하고 촉감좋은 대나무 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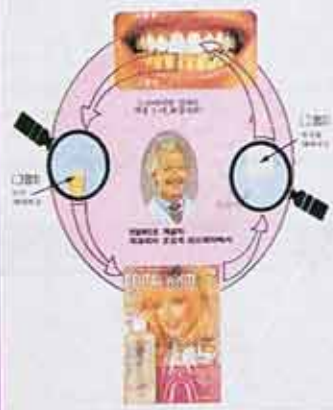
• 대나무 걸대만을 골라 엮은 것으로 탄력이 좋고 열전도율이 낮아서 항상 시원합니다.
• 구슬 방석에서 생기는 옷의 구김현상 방지
• 전차종 공용, 10pcs(1set)
• 기계작업이 아닌 수작업 제품(고운밥)
• "란" 문양이 패션과 독특한 품위를 유지함(고운밥)



• 상품코드 KJ 6238
• 상품명 대나무 커버
₩ 50,000 → ₩ 40,000(20%)
• 상품코드 KJ 6239
• 상품명 고운밥 대나무 커버
₩ 70,000 → ₩ 58,000(17%)



깨끗한 치아, 아름 다운 치아 덴탈화이트가 지켜 드립니다. —덴탈화이트—



치아의 겉표면만을 표백시키는 기존의 미백제와는 달리 치아 모공 사이의 각종 노폐물 제거로 누런 치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며 구취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최신 치아미백 시술법—'93년 미 치과의사 조지 마드레이 박사가 개발해 미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제품입니다.

• 치과에서 스켈링한 뒤에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원산지 미국

• 상품코드 KJ 6209
• 상품명 덴탈 화이트
₩ 77,000 → ₩ 55,000(28%)

주방의 만능 박사 —동양 핸드 믹서—

국내최초 KS마크 획득

신세대 주부의 필수품 도깨비 방망이!



• 스텐레스 칼날을 사용하여, 녹슬지 않고 견고함.
• 믹서날, 거품날, 혼합날, 컷트날, 분쇄기로 구성
• 세련된 디자인
• 안전하고 실용적인 제품
• 영양분 손실 방지
• 220V 전용

• 상품코드 KJ 6210
• 상품명 동양 핸드믹서
₩ 120,000 → ₩ 43,000(64%)



요리가 즐겁습니다 —동양더블 팬—

국내최초 KS마크 획득



• 전골용, 구이용 2개의 팬:요리선택 폭이 증가
• 전골용 팬:각종 볶음 요리 및 전골 요리
• 구이용 팬:특수 기름받이가 있어, 확실한 기름 제거 및 고기의 감칠 맛을 살려줌
• KS마크 획득한 우수한 제품
• 100V/220V 겸용

• 상품코드 KJ 6211
• 상품명 동양 더블 팬
₩ 150,000 → ₩ 57,000(62%)

수납량 많고 심플한 실속형 —스텐레스 식기 건조대—

심플하고 세련된 스텐레스 식기건조대, 공간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3단으로 세팅하였으며 각 단별 분리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각 칸마다 스텐레스 물받침대가 있습니다.
• 수저꽂이와 컵꽂이는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본수출품(일본통신판매 히트상품)
• 국내 최초의 100% 스텐레스 식기건조대
• 무게 3.2kg
• 재질 18-8 스텐레스(27종)
• 본체크기 38.5(폭)×29(깊이) ×58(높이)cm
• 일본 Daiyu사의 기술제휴

• 상품코드 KJ 6212
• 상품명 스텐레스 식기건조대
₩ 65,000 → ₩ 52,000(20%)

지리산 산간오지에서 자생하는 둥굴레를 아십니까? —구수한 숭늉의 맛 지리산 둥굴레 차(茶)—

4년생 이상의 둥굴레 뿌리를 한가위가 지나서 자연 그대로 채취, 아홉 번을 찌고 아홉 번을 대양광으로 말리는 (九蒸九曝) 정성이 깃든 둥굴레 차는 도시인의 건강차로 좋으며, 구수한 숭늉의 맛은 잊었던 고향과 맛까지 찾아 줍니다. 둥굴레 차는 특히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그 효능은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황제내경 등의 문헌에서 고증합니다.

■ 특징
• 임금님이 즐겨 드셨던 상공진상품
• 상약(上藥)으로서 동의보감에서 서열1위로 꼽음.
• 원효스님이 구증구포한 둥굴레 차를 마시고 수도했음.

■ 효능
• 강심, 강정, 오장육부의 기를 보호
• 혈당을 낮춰 당뇨병에 탁월한 효과
• 항균, 단백질 다량함유로 피부미용과 근골강화에 효과
• 고혈당 억제로 간세포에 대한 지방침투 방지하여 동맥경화 방지와 간기능 장애에 효과



• 상품코드 KJ 6213
• 상품명 둥굴레 차(茶)
• Tea Bag 5g×12개입 ₩ 5,000 → ₩ 4,800(5%)
• 단 Tea Bag은 세트와 함께 주문시만 배송 가능함

전통 도예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분청사기 다기세트—

분청사기는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문화를 꽃피운 고려와 조선시대의 천년넘던 도자문화를 바탕으로 일궈진 우리의 독창적인 도예문화의 산물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조선도예'를 운영하는 도예가 고천 추大봉 선생님이 직접 빚어 도공의 혼이 배어 있는 전통다기로 은은한 다도의 풍맛을 즐기십시오.

• 구성 찻잔 5개, 숙우(물그릇) 1개, 다관(주전자) 1개, 찻(반)차시(주전자 뚜껑) 1개, 대나무 1개



• 상품코드 KJ 6214
• 상품명 분청사기 다기세트(5인용)
₩ 75,000
→ ₩ 61,500(18%)

• 대금 납부 방법:은행 등에 온라인 입금 또는 카드 결제가능

1. 은행 온라인 이체 계좌로 먼저 입금하시면 확인 후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조흥은행 312-01-129130 ○농 협 018-17-003091
○국민은행 023-25-0005-550 ○우 체 국 011916-0062284
○신한은행 3808-0407-309
○한일은행 203-115076-13-001
• 예금주: 한국가진산업(주)

2. 카드 결제 당사에서 보내는 카드전표를 작성한 후 동봉한 반송봉투에 넣어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할부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카드 B.C. 국민 비씨 외환 LG 삼성 대우 신한 조흥 한미 한일 상업 서울 제일 하나 평화 동화 장기)

■ 소비자 상담:02-529-7873
■ 주문 접수 시간:평일-오전 10시~오후 8시 토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 배달 기간:입금확인후 7일 이내

판매 특별 가격 파괴전

지금 주문하십시오
무료전화 : 080-900-4900, 080-900-4901
대표전화 : 02-529-4900, FAX주문 : 02-529-4905

뱃살이 줄지않아 걱정이신분 책상앞에 직장인, 수험생들은 윗몸 일으키기를!



국선몸매를 위한 곡면 설계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하체들어 올리기, 상체펴기등의 운동효과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복신한 쿠션 구조로 디스크를 예방해 주며, 높·낮이가 초절되어 누구나 간편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을때 접어서 보관
- 사이즈 : 75×30×100cm
- 실리콘 미끄럼방지로 탈퇴기 이용효과에 도움
- 다리 [illegible] 따라 높낮이 조절
- 상품코드 : KJ 6215
- 상품명 : 카빙벤취

~~₩ 55,000~~
→ ₩ 55,000 (0%)
(접어서 보관)

걷기는 최고의 운동! 10분 씩만 걸읍시다

—신미니스탭퍼—



현대인에게 가장 좋은 운동인 걷기를 어디서나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심, 사무실에서 손쉽게 온가족이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직업운전자나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에게 좋습니다.

■운동효과
- 심폐기능 강화
- 하체 근육단련
- 비만개선
- 성인병 예방

■ 계이지부착 적정회수/시간 표시

- 상품코드 : KJ 6216
- 상품명 : 미니스탭퍼(신형)
(계이지부착 56×31×51cm)

~~₩ 99,000~~ → ₩ 84,000 (15%)

주물러 주는 우리집 홈 닥터 —효자손 맛사지기—

Q마크를 획득한 효자손의 특징
고품질 · 고성능 · 고신뢰성의 효자손은 카바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효자손은 두개의 지압 봉이 부드럽고 강하게 움직이면서 저리고 쑤시고 아픈 어느 부위라도(목, 어깨, 허리, 팔, 다리, 허벅지)를 사람의 손처럼 시원시원하게 주물러 드립니다.



■특히 이런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 몸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거우신 분
- 평상시 허리통증이 있으신 분
- 팔, 다리, 어깨가 결리시는 분
- 배가 나오신 분(팔, 다리, 배운상제거)
- 숙면을 취하고 싶으신 분
- 운동 전후에 근육을 풀고자 하시는 분
- 수험생의 긴장, 초조, 불안에 의한 피로를 덜고자!

■특징
1. 효자손은 물리적인 요법으로 경혈과 경락을 자극하여 몸전체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시켜 줍니다.
2. 효자손은 어디서나 하루 30분간 주물러 지압해줌으로써 굳어진 근육을 풀어줍니다.
3. 정격전압 110V-220V
4. 소비전력 40W 무게 : 3KG
5. 규격 : 36(L)×22(W)×13(H)cm



꼭 카바를 덮고 사용하십시오

한반신! 군살, 지방 정말 싫으시죠?

—다이어트 바지



하체의 불필요한 군살 제거 효과가 있는 체중감량용 바지입니다.
입는 순간 놀랄 정도로 탄은 양의 땀을 발생시키고 지방, 군살제거와 탄력있는 라인미를 가꾸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여어로빅, 헬스, 조깅시에 입으면 효과가 더욱 빠릅니다.

- Size
긴바지 : S, M, L, XL
반바지 : S, M, L
- 원단 : 일본수입품
- 재질 : 네오프렌

- 상품코드 : KJ 6218-1
- 상품명 : 다이어트 긴바지
~~₩ 125,000~~ → ₩ 87,500 (30%)

- 상품코드 : KJ 6218-2
- 상품명 : 다이어트 반바지
~~₩ 88,000~~ → ₩ 61,600 (30%)

다양한 기능의 자동 카메라 —현대카메라—



세련된 디자인, 간편한 휴대기능 및 편리한 조작으로 당신도 작은 영상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 : FREE CAM – 30



- 자동노출, 자동플래시 기능
- 필름감기, 되감기 자동
- 도중 되감기 기능
- 촬영날짜 표시기능
- 현대전자(주) 제품

- 상품코드 : KJ 6219
- 상품명 : 현대전자자동카메라
~~₩ 157,000~~ → ₩ 98,000 (38%)

여행의 즐거움은 짐꾸리기부터

—여행용 가방 3점 세트

여행갈 때마다 고민이었던 짐꾸리기
이젠 여행용가방 세트로 해결하세요!
모던한 디자인과 파격적인 가격!



- 상품코드 : KJ 6220
- 크기 : 방수망 특수원단
大 56×30×28cm
中 47×25×24cm
小 42×23×21cm
- 상품명 : 여행용 가방 세트(3개 1세트)

~~₩ 58,000~~ → ₩ 39,000 (33%)

미국 Polo사에 납품했던 그 품질 그대로입니다. —핸드 백 3점 세트—

세련된 칼라와 디자인, 꼼꼼한 바느질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분위기에 맞게 선택하면
외출이 즐거워집니다.

• 미국 수출품



50세트 한정

- 소재 : 소가죽+캠퍼스지 (캐스팅레지)
- 상품코드 : KJ 6221
- 상품명 : 핸드백 세트

~~₩ 94,500~~ → ₩ 60,000 (37%)

표 정까지 편안합니다 —다용도 안락의자—

- 포장개지 편안한 안락 의자
- 가정, 사무실 등에서 편안한 휴식을 위한 안락 의자의 기능에서 한편의 놀이면 간이 침대가 되는 최신형
- 안장대와 무릎이 3단계 각도 조절
- 크기 : 펼쳤을 때 62×154×90cm
접었을 때 62×36×88cm
- 손잡이, 팔받침대 : 목재도장
- 소재 : 우레탄 발포 스폰지
- 안락의자 + 보조대



- 상품코드 : KJ 6222
- 상품명 : 다용도 안락의자

~~₩ 79,000~~ → ₩ 55,000 (30%)



물기제거, 강력모터, 간편사용

—충전식 진공 청소기



우유, 커피 등 물기제거



먼지, 부스러기제거

■제품의 특징
- 충전식 집안 어디에나 사용가능
- 벽에 걸어두고 충전과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석진 틈새 청소를 흡입구가 있어 더욱 깔끔
- 필터교환이 없으므로 영구 사용
- 콘라 길이(230cm) 양의 청소수 가능

- 상품코드 : KJ 6223
- 상품명 : 가정용 진공청소기

~~₩ 45,000~~ → ₩ 36,000 (20%)

휙~ 던지면 펴지는 —3초 텐트



휙~ 던지면 그냥 텐트가 됩니다.
펴는데 3초,
접는데 5초,
던지면 펴져지는 초간편 텐트로 시간도, 수고도 절약하세요

■상품특징 및 상품설명 • 입구은 폭 사이즈 직경 90cm의원형 이며 성인 기준 • 예쁜문 디자인과 망라 • 가볍고 휴대가 간편한 • 펼쳤을 때 사이즈 190×150×100cm • 기타의 출입문 등시공간

- 상품코드 : KJ 6224
- 상품명 : 3초 텐트

~~₩ 39,000~~ → ₩ 35,000 (10%)

- 소재 : 나일론 옥스포드(원단)
스틸 프레임(폴)

30초면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집니다.

가족 야외놀이, 낚시, 해변에서 꼭 필요한 그늘 막텐트

가족 야외놀이, 낚시, 해변에서 꼭 필요한 그늘막텐트

- 소재 : 나일론 다우다(원단)
화이바 그라스(폴)
- 무게 : 2.3kg
- 9 ~ 10인용

- 상품코드 : KJ 6225

~~₩ 125,000~~ → ₩ 45,000 (64%)



이런 분은 장(腸)을 청소하십시요!! —코러스—



- 배변시 가늘게 나오거나 변이 밥알처럼 딱딱한 분
- 쉽게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술을 마시면 살 사하시는 분
- 얼굴에 여드름과 기미가 지나치게 많이 나는 분

- 상품코드 : KJ 6226
- 상품명 : 코러스

~~₩ 60,000~~ → ₩ 50,000 (17%)
(2개월분 120포×3set)

■코러스로 장(腸)청소를 해야하는 이유?
노벨상을 받은 소련의 생물학자 메치니코프 박사의 「장의 부패균과 노화」라는 이론에 따르면 장에에 머는 숙변으로 많은 병이 발생하며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통사람은 1~3kg 심하면 10kg까지 장속의 숙변이 정체되어 있으며, 이유없이 피부가 거칠어 지는 것도 안성병에 악병이 안받는 것도 [illegible] 이 숙변 때문입니다. 코러스를 먹은 후 2~3일이면 획기적인 변동으로 숙변 등 장속의 많은 양의 변을 보아 뱃속이 편안해집니다.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2개월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으면 소파, 펼치면 멋진 침대 —소 파베드—

낮에는 깔끔한 소파로,
밤에는 편안한 침대로...
관리하기 쉽고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제품

접었다 폈다 공간효율은 최대!

100×60×80cm(접었을 때)





100×205×10cm(펼쳤을 때)

- 색상 : 핑크, 그린
- 상품코드 : KJ 6228
- 상품명 : 데이베드(침대+소파)

~~₩ 120,000~~ → ₩ 96,000 (20%)

바디라인을 살려주는 고탄력 거들 팬티

- 배가 나온 여성, 출산후 체형관리 중인 분들께 좋습니다.
- 허리부터 엉덩까지 이음 제품선이 없습니다.
- 인체공학적 디자인
- 면 90%, 스판 10%
- Free Size
- 세계 15개국 특허
- 5매 1세트
- 이태리 BONITO사와 기술제휴



- 상품코드 : KJ 6229
- 상품명 : 거들팬티

~~₩ 35,000~~ → ₩ 25,000 (30%)

초립이 간편한 —홈 센스 정리함—

이사할 때에도 꼭 필요합니다.

- 재질 : 백색컬프지 + 미늘리지
- 사이즈
37×57×19cm(투껑식)
40×60×20cm(서랍식)



- 상품코드 : KJ 6235
- 상품명 : 피스텔정리함(서랍식 10개 세트)

~~₩ 57,000~~ → ₩ 45,200 (20%)

- 상품코드 : KJ 6236
- 상품명 : 양상블정리함(투껑식 10개 세트)

~~₩ 49,000~~ → ₩ 34,300 (30%)

품질 소중한 옷 보관에는 —홈 센스 옷 카바—



■제품특징
- 통기성이 좋은 부직포(PP) 사용(제일합섬 원단)
- 접착식은 하단에 벨크로(찍찍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크기 60×95cm(양복용)
60×130cm(드레스용)
- 구성 : 양복용15 + 드레스용5(공통)

- 상품코드 : KJ 6230
- 상품명 : 넝쿨무늬 옷카바A(접착식)

~~₩ 37,000~~ → ₩ 26,000 (30%)

- 상품코드 : KJ 6231
- 상품명 : 넝쿨무늬 옷카바B(지퍼식)

~~₩ 48,000~~ → ₩ 33,600 (30%)

집안정리! —홈 센스 이불보, 고자상 카바—

■제품특징
- 통기성이 좋아, 좀, 곰팡이가 슬지 않음
- 지퍼식으로 수납이 용이하고 이불 4set까지 수납(이불보)



- 상품코드 : KJ 6232
- 상품명 : 이불보세트(5개 1세트)

~~₩ 37,000~~ → ₩ 31,000 (25%)

- 상품코드 : KJ 6233
- 상품명 : 직교자상카바(2개 1세트)

~~₩ 32,000~~ → ₩ 25,000 (22%)

- 상품코드 : KJ 6234
- 상품명 : 침교자상카바(2개 1세트)

~~₩ 26,000~~ → ₩ 21,000 (20%)

백두산 등정 —5박 6일 (일백십오 만원)



■8월 24일 출발!!

- 백두산 :
  -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백두산 등정
  - 산업육—백두산 밀영과 소천지에서 느껴보는 자연의 소리
  - 온천욕—30℃~82℃ 유황온천
  - 천지못 등정—백두산 최고의 비경 천지못까지 직접 등정
- 심 양 : 신락박물관, 고궁, 북릉공원
- 북 경 : 만리장성, 자금성, 이화원, 천안문광장
- 일 정 : 서울→심양→연길(1박)→백두산(1박)→연길→북경(3박)→서울
- 특 전 :
  - 동신 판매 이용 회원에게 5% 할인
  ~~₩ 1,150,000~~ → ₩ 1,092,000
  - 매달 10만원 이상 이용자 중 1인을 추첨하여 무료로 증정
- 여행협찬 : (주) 골드시티 여행사

■주문시 유의 사항
· 추가 할인 혜택 10만원 이상 구매시 → 5%할인혜택
(보석류와 카드구매시는 제외)
· 교환 및 반품 : 상품을 받으신 후 7일 이내 교환 및 반품 가능

백화점 바겐세일 = 교통대란
결코 싸지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편안한 가진 홈쇼핑과 함께 하십시오.

당 사는 놀은 광고비를 소비자 이익으로 돌려 드리기 위하여 각 광고매체별로 최소단위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상품이 없더라도 본 광고지를 잘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에 견해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행 사용품이나 관촉물 등별 상담합니다. 기타 및 고가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본문가 없으신 분은 02-529-4900으로 연락 바랍니다.

고은 불교 대하소설

무욕도의 빈 정사(精舍)

무전 만화 남각이 차례로 이곳을 떠나자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되었다. 사람의 기운은 곽 줄어들고 그대신 파도소리만이 더욱 크게 들리는 것이었다.

이런 섬의 숲속을 거미줄에 묻으며 내려오는 불이가 「백척의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시방세계가 내 몸으로 나타나리라(百尺竿頭須進步 十方世界現金身)이라고 읊어도 그런 것은 숲 위를 날아가는 바람소리 아래에서 한갓 미물이 내는 소리일 수 밖에 없었다.

"나도 떠나야 하리."

"떠나야 하리."

"이제 이곳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떠나는 곳이거늘…."

아직 단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같은 생각이 불이의 마음속에서 달걀 속의 병아리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불이는 이 섬의 도량에서는 드물게 학식과 시흥이 깊은 문자승이 아니던가.

그가 인담으로부터 "문자가 벽인줄 아시오. 문자에 갇혀 있으면 거기서 뛰쳐나와 별건곤(別乾坤)이 있다는 것을 영영 모르고 그 문자에 묻은 꿀이나 빨아 먹다가 말 것이오"라는 호된 경고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한번은 몹시 추운 날 오후의 작무 끝에 생나무로 불을 놓아 몸을 녹이고 있는데 가장 온후하던 인담이 불이를 그 불구덩이에 밀어넣은 일이 있었다.

불이는 본능적으로 그 불구덩이를 뛰어넘어 저쪽으로 가서 돌아섰다. 그때 인담이 파현들과 큰 소리로 웃어대는 것이었다.

"하하하… 불속에 문자타령의 부처를 넣으니 문자는 타버리고 부처가 살아 남는 광경이었오!"

"하하하"

"하하하 문자가 불에 타니 재로도 남지 않고 자취가 없게 되었오!"

그때 불이가 인담에게 대들었던 것이다.

"스님께서는 지난날 무엇때문에 서하문집(西河文集)의 꿈을 꾸어 황해도까지 그것을 찾아갔습니까?"

"허허 오늘의 임춘이 옛 임춘을 시샘하는구려."

"아니지요. 스님께서 옛 임춘이 되지 못하여 그의 시문을 미워함이지요."

"불이당(不二堂)! 한치 허끝에 지옥이 있는 줄 모릅니까?"

"한 치 혀 끝의 게송에 화중연화(火中蓮華)의 꽃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저런 선무당 좀 보아."

"도인의 눈으로 보아야 도인이 보인다 합니다."

"허어."

이렇게 신참자인 불이가 무욕도 도량의 회주(會主)로 받들어지는 인담을 몰아붙이는 것은 자못 사람들의 화기(和氣)에 드리운 삼엄한 그늘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런 난감한 분위기를 지금은 이승을 떠난 만화가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만화가 그 우람한 몸을 땅에 던져 인담에게 3배의 큰절을 드리고 불이에게 1배의 큰절을 드렸다.



〈 35 〉

그런 다음 "자아 내 절 받으소서"하고 우녀에게도 누구에게도 마구 절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 절 받으면 내생에는 이자(利子)까지 물어야 할 관이니 금생에 아예 받지 않겠오"하고 웃어대는 축도 있었다.

"에잇 겁장이 도인들!"

하고 만화가 돌 하나를 집어 바다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 팔매질을 하였다.

이런 불이가 그 뒤로는 이상하리만치 대중의 누구와도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아름다운 남자로 이어가고 있었다.

그가 섬의 꼭대기 움막정사에서 하루의 좌선을 하고 내려오면서 좌선 자체에 대한 회의가 일어난 것이다. 만물이 무상한 것이라면 그 만물의 행에 본분(本分)이 있을 것이다. 그럴진대 그 행으로서의 선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곳에 혼자 앉아있음이 무슨 도란 말인가….

대체로 이런 회의가 그의 것이 아닌 상태로 다른 사람의 것이 들씌워진 것처럼 그의 마음에 달라 붙었던 것이다.

그래서 "떠나야 하리"라는 결의의 첫걸음이 있게 된 것인지 모른다. 그런 불이가 움막에서 내려오는 동안 차츰 그 결의는 단단한 광나무의 질(質)처럼 굳어져 있었다.

"이곳을 비워서 갈매기에게 넘겨주는 것이 도리일 터! 이곳에 사람이 건너 온 것 자체가 도리에 어긋난 일일 터! …내가 이런 곳에 와서 시를 생각하고 도를 구하는 것은 어긋나기를 10만8천리나 된 것을 알겠다!"

그는 강다짐으로 그 자신을 다그쳤다.

"아니지! 나는 나만 더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뜻을 같이하여 함께 떠날 것이야."

그가 두 니승(尼僧)의 정사 위쪽에서 합두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옳지! 저 여자하고 떠날 것이야!"라고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그가 인기척을 보냈다. 그녀는 돌아다보지 않았다. 파도소리 한덩이가 아니면 갈매기 울음소리가 바로 그들의 위에서 들렸기 때문에 인기척을 모른 것인가.

"합두스님!"

그렇게 소리를 키워 불러서야 그녀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

"어디 다녀 오십니까?"

"저 위 아무도 없는 곳에 인사를 여쭙고 오는 길입니다."

"호오 스님께서는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무엇이 지극하다는 말씀이신지."

이 질문에는 대답이 없었다. 그대신 그녀의 아름답고 정숙한 얼굴에는 다른 뜻이 나타났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가장 행복하게 지내는 곳이라는 그런 감사의 뜻이었다.

만물이 무상한 것이라면 그 만물의 행에 본분이 있을 것이다 그럴진대 행으로서의 선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곳에 혼자 앉아 있음이 무슨 도란 말인가…

여기에 대고 불이는 더이상 그녀의 마음 속을 타진하지 않았다. 그녀가 일어서려 하였지만 다리에 쥐가 났는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때 불이가 서슴치 않고 그녀의 손을 덥썩 잡아 일으켜 세웠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문득 일어선 합두의 얼굴이 붉어진 것이다. 불이의 얼굴도 슬쩍 돌려져야 하였다. 하지만 그의 말 한 마디는 대담하였다.

"전생과 금생의 기나긴 윤회 가운데 사랑하는 대상을 잃고 흘린 눈물의 양이 이 바다를 이룬 것입니다. 이 바다를 바다로 이렇게 보고 계속되었다.

수원과 수월이 합두가 속이 뒤집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달려왔다.

"속이 불편하십니까?"

"……."

"인담스님한테 가서 침이라도 맞읍시다."

"……."

그들에 끌려가다시피 갈대정사 큰방으로 갔다. 인담이 합두의 안색을 살폈다. 구역질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침을 맞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우녀가 와서 창백한 합두의 얼굴을 보고 근심이 생겼다.

"어제도 얼굴에 파란 기운이 돌았습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가서 누워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녀를 우녀가 부축하여 그녀들의 거처로 갔다.

큰방의 인담이 혼자 쓰겁게 중얼거렸다.

"뱃속에 아라한(阿羅漢) 하나를 배고 있는 것이지. 암… 저만한 미색으로 어찌 사람뿐 아니라 귀신들조차 가만 두겠는가. 필시 이 섬의 남정네가 아니거든 섬 둘레의 귀신과 접속하여 그 씨를 밴 것이지… 아니면 혼자 살 수 없는 처지의 여인 인지라 상상으로 임신을 합으로써 임신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 터이거나…."

다음날 불이는 합두의 구역질이 그 자신이 한 말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추측과 함께 틈을 보아 두 사람만으로 합두와 만날 것을 꾀하고 있었다.

무전이 남겨놓은 피리를 그동안 맡아서 피리불기에 제법 익숙해진 불이가 오후의 작무가 끝난 뒤의 저녁무렵에 저쪽 바위너설 쪽에서 피리를 불고 있었다. 그 피리소리를 멈춘 뒤에는 시를 읊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피리소리의 반주에 이어 시를 읊는 것이고 시를 반주로 삼고 피리를 부는 것이었다.

> 이 바다를 바다로만
> 바라보는 일은
> 윤회를 모르는 일입니다

만 바라보는 일은 윤회를 모르는 일입니다…스님이 바라보는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불이스님! 저는 이제까지 날마다 기쁨으로 이곳에서 살아 왔습니다. 이 금생에서 이렇게 잘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바다야말로 제 기쁨의 양으로 채워지는 중입니다."

"그 기쁨이 헛된 줄 아실 것입니다."

"헛된 것이 어찌 제 기쁨 뿐이겠습니까? 스님의 공부도 헛된 것이지요."

그녀의 말은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하였다.

불이가 한 마디 남기고 먼저 내려갔다.

"내가 스님의 손을 잡은 일도 헛된 일이겠지요. 그러나 장차 내가 스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먼 길이 이 바다 위에 나 있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합두는 이런 대담한 구석이 있는 불이가 왜 그렇게도 섬약한 묵객풍의 사람으로만 보였는지 그것이 이상하였다. 그러자 그녀의 며칠전 꿈이 생각났다. 그녀의 죽은 남편이 배를 타고 무욕도를 한 바퀴 들면서 자꾸 그녀에게 손짓하는 꿈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고 있는 자신이 역겨워졌다. 갑자기 구역질이 났다. 그것은 임신부의 구역질 따위와는 다르게 어떤 슬픔을 동반한 것이었다.

"윅! 윅!"

누가 들을까 민망한 그런 구역질 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한동안 그것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그림 · 조향숙

창과 출렁출렁 가을이 와서
바람과 비 돌아오는 배에 뿌리네
(一帶蒼波兩岸秋
風吹細雨灑歸舟)

불이로서는 누구의 구절인줄도 모르고 술술 그의 시흥을 통하여 사뭇 비감에 젖는대로 나오는 것이었다. 그 구절이 임춘의 벗 이인로의 시 '밤비'인줄 알 길이 없는 불이의 금생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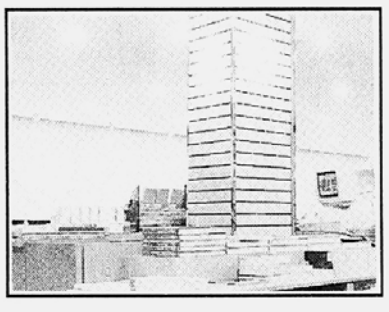
어디 시 한 구절일 따름인가. 전생의 어머니인들 그 어머니가 금생의 하룻밤 풋사랑의 여인이라면 그 기구한 사연을 어찌 감당할 바이겠는가. 합두는 전생의 불이에게 누구였던가.

바로 그 합두가 바위를 돌아서 피리소리의 곳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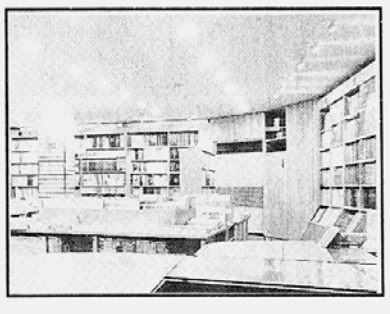
"불이스님!" 이라는 그녀의 목소리조차 하나의 아름다움이었다.

불음가득 · 법향가득

책방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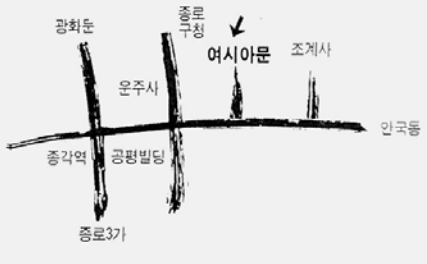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 4. 1.부터 시행)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 · 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84,159,331,588-2번

"보살되려는 주부불자 오세요"

'자비의 전화' '간병인 협회' 등 자원봉사 전문 교육 실시

"방송을 통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작은 힘이나마 돕고 싶어 이웃 불자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광택시 비전동의 현환희행보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맞은편 사법연수원 앞마당에서 구조대원들에게 밥과 김치, 불고기 등 식사제공 자원봉사를 하며 현보살은 분주하기만 했다.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나온 현보살은 힘들었지만 사고를 겪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뿌듯하다고 말한다.

현보살뿐만 아니라 많은 주부들이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봉사를 할 수 있을지 과연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의아심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변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참으로 많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자원봉사시민대학, 불교전문상담기관인 자비의 전화 카운셀러교육, 간병인 협회의 간병인 교육 등의 몇몇 단체에서는 스스로 봉사활동에 뛰어들려는 불자주부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해 봉사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대한불교부인회, 불교어머니회등 여성신행단체를 통해서도 불자주부들은 병원자원봉사와 군포교지원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길음, 삼전, 본동,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등 교계위탁 복지관들도 지역복지를 여법하게 실천할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어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봉사를 할수 있다.

이같은 단체를 통해 할수 있는 봉사 또한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비롯 환경보호, 무료급식, 반찬제공, 세탁서비스, 청소년지도, 방송모니터, 무료이·미용, 간병활동 등 다양해 불자주부들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개인과 단체, 사찰단위로 결칠 수 있다.

얼마전 자비의 전화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있는 불자 대부분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해 봉사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더해가는 불자들의 의식변화를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보여줬던 불자주부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바탕으로 기존의 봉사단을 총괄하는 중단차원의 불교 종합자원봉사단이 발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봉사활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자원봉사자의 80%이상이 주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잠재적인 봉사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 자원봉사교육양성기관과 자원봉사단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단 체 명	봉 사 내 용	연 락 처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의료봉사, 무료급식, 방송모니터, 수지침, 교도소 방문, 양로원, 고아원 방문, 장애인 방문, 환경보호 등	(02)723-6258
자비의 전화	전화상담	(02)737-7378
간병인 협회	간병	
연꽃마을 자원봉사회	양로원 방문 등	(02)203-3677
한국불교사회봉사회	심장병 어린이 돕기 등	(02)744-3413
자비의 집	무료급식	(02)945-4200
대한불교부인회	병원봉사	(02)736-5035
불교어머니회	군포교	(02)602-1596
길음 복지관	무료급식, 세탁·반찬 서비스, 청소년 지도, 환경보호, 말벗, 여과지도, 행정업무 대행, 간병, 의부모 의형제 결연 등	(02)985-0161
삼전 복지관		(02)421-6077
본동 복지관		(02)817-8052
금강 복지관		(0461)856-6110

효율관리 기구 필요…종합봉사단 곧 발족

청소년 문화유적답사

길음사회복지관, 25일부터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문화 유적답사'를 개최한다.

국민학교 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28일과 8월8일~10일 3차에 걸쳐 경기도 일원의 문화유적을 답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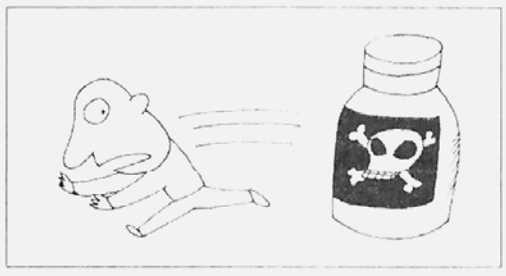
이번 답사를 통해 길음복지관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와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게 된다. (02)985-0161

이리후 건강칼럼 <28>

유독성 화학물질 남용 정자 생산 감소 초래

번식기능 위기

동물들이 자기의 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짝짓기 행동은 본능적인 것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번식기가 되면 발정을 하고, 발정기에는 교미를 통해 수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거의 일정한 주기를 갖고 진행된다. 사람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다만 동물과 다른 것은 일정한 발정기가 있다거나 오로지 번식만을 한 생식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사랑의 실천적 행동으로 성행동이 이루어진다. 포유류 가운데 진화계열이 높은 종일수록 사회화와 관련된 학습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말을 바꾸면 사람과 같은 진화된 종에선 본능적인 생식보다는 사랑의 정서에 의한 학습결과가 더 작용을 많이 한다는 뜻이다.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가 있다. 새끼원숭이를 따로 떼어 어미원숭이나 동료원숭이와 접촉을 못하도록 격리시켜 키우게 되면 나중에 커서도 성행동을 못하며 새끼를 낳아도 보살피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실험결과가 있다. 이보다 사람은 더 진화단계가 높으니 학습의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사람이란 고등감정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배움으로써 본능적 욕구에 더하여 정신적인 사랑을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성기능을 설명할 때 이런 심리적인 조건과 남성의 고환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인 테스트스테론의 양이 함께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다. 예를 들면 고환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의 양이 적거나 뇌에 있는 뇌하수체란 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토락틴이 너무 많이 분비되게 되면 남성의 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생식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최근의 한 연구결과를 보면 번식기능의 위기를 추궁하면서 찾아낸 놀라운 사실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요즈음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독성 화학물질의 남용으로 남성의 정자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지난번 덴마크의 에스브제트크에서 열린 한 환경모임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유독성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은 최근 40년 동안 남성의 평균 정자수가 40%나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 있다. 이처럼 유해화학물질의 남용으로 인한 생물학적 욕구의 감소는 사랑의 학습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가중시킬 위험이 도사리게 된다.



조금 비약하면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으로 진화(?)해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원래의 동물적 생식본능도 수행키 어려워지지 않을런지 자못 걱정스럽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일천(千)의 장 *
비록 백 년을 살지라도
알지라도
얻반의 길을
모른다면

이 향 원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 대표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포항분소 • 전화 0631-281-2534
충주분소 • 전화 0416-856-3280

유니폼 유니피스
대표 김영길
• 사무복
• 호텔복
• 볼링복
• 각종단체복
본사 : 부산시 동구 범일1동 95-2 고려B/D 4층
전화 : 代 (051) 645-7751, (051) 645-9629
팩스 : (051) 645-9630
호출 : 015-502-2298
한성어패럴

제·원·스·님·에·세·이
고적한 산사(山寺)에서 우리가 사는 도심(都心)까지 배달되어 온 마음의 소포,
그것은 제원스님의 흠빛 언어, 크란 감동 에세이집!
우리는 가끔 염라대왕이 보내는 엽서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은 그 녹슨 우체통을 열어본다.
누군가, 저 멀리서 독각의 언어를 내뿜고 있다.
▶ 산길을 닮은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행복찾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큰 정치를 위해 군살을 빼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무소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절망과 희망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 혼자 사는 이의 조촐한 멋이 있습니다.
▶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 책은 BBS불교방송 〈불국토의 아침〉을 진행했던 제원스님이 수행자라는 입장에서 쏟아놓은 언어들이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한번쯤 체에 걸른 것처럼, 영혼을 내뿜은 진한 감동의 에세이집이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값6,000원 TEL(02)711-8948,1868/FAX(02)711-1869 이목

경전·법어 인기 '꾸준'…수행 지침서 '부상'

여시아문·운주사 집계 상반기 베스트 불서

올해 상반기는 경전 법어 수상집 등 전통적인 분야의 책들이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행과 사찰문화·예절에 관한 불서가 독자들의 관심을 모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불서전문책방 여시아문과 불서총판 운주사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판매순위를 집계한 결과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골고루 베스트불서를 기록했다.

〈표참조〉

상반기 베스트불서의 가장 고무적인 현상은 〈선100문100답〉〈삶에서 깨어나기〉〈염불선이야기〉 등 수행으로 이끄는 불서가 3종이나 진입했다는 점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결국 수행'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선보인 〈선100문100답〉(진제, 파란나라)은 수선회와 금모선원에서 정진중인 대중들과의 문답을 옮긴 책으로, 돈오돈수 재가자수행 화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틱낫한스님의 〈삶에서 깨어나기〉(장경각)는 '걷고 먹고 얘기하는' 일상적인 생활의 관찰이 곧 수행임을 밝힌 위빠사나수행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다. 〈나를 보게하소서〉(현장, 민족사)는 한국불교에서는 낯설은 염불선수행의 입문과 실수를 밝혔다.

사찰순례가 신행의 한 형태로 정착되면서 '알고 떠나자'는 분위기를 반영,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권영한, 전원문화사)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김현준, 교보문고)가 각각 5,9위를 기록했다. 사찰문화와 예절, 각종 당우와 조형물의 신앙적 의미를 다룬 책들이 호응을 얻는 것 또한 새로운 변화의 조짐으로 관심을 모은다.

여시아문과 운주사 판매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며 상반기를 대표한 불서는 무비스님의 〈금강경강의〉(불광). 자구해석에 머물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해결책까지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경전풀이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책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진리의 말씀〉〈부처님말씀〉이 베스트15에 들어 경전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불일소책'으로 펴낸 〈진리의 말씀〉은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법구경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법정스님의 깔끔한 번역이 돋보인다. 84년 초판이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부처님말씀〉(성열, 법등출판사)은 아함경의 가르침을 '법을 전하라' '세상은 무상하다' 등 18개 주제로 배열해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집한 것이 인기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수상집도 강세를 보여 〈무소유〉(법정, 범우사) 〈평화로움〉(틱낫한, 장경각) 〈자네, 도가 뭔지 아나〉(효림, 대원정사)등 3권이 베스트불서로 기록됐다.

〈알기쉬운 불교〉(불교방송 편성부)는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해 입문·교리분야의 기본서로 자리잡았다. 불교방송의 인기프로 '자비의 전화'에 방송됐던 신행상담사례 3백선을 묶은 것으로 92년 발행이후 꾸준한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문학분야에서는 장편소설 〈차크라바르틴〉(성낙주, 살림)이 14위에 올랐다.

한편 상반기 베스트불서15에는 스님들의 저서가 11권이나 차지해 스님저자의 인기도가 꾸준함을 나타냈다. 수행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윽한 육성과 법향 가득한 문체가 베스트에 기록되는 첫째 요인으로 풀이된다.

정성운 기자

◇상반기 베스트불서 15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금강경강의	무 비	불 광
2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 타	효 림
3	알기쉬운 불교	편성부	불교방송
4	선100문100답	진 제	파란나라
5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영한	전원문화사
6	진리의 말씀	법 정	불 일
7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경각
8	삶에서 깨어나기	틱낫한	장경각
9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교보문고
10	무소유	법 정	범우사
11	평화로움	틱낫한	장경각
12	부처님말씀	성 열	법 등
13	자네, 도가 뭔지 아나	효 림	대원정사
14	차크라바르틴	성낙주	살 림
15	나를 보게 하소서	현 장	민족사

여시아문·운주사 집계



◇상반기 베스트불서 집계 결과 수행입문서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비스님 '금강경 강의' 1위
'무소유' '평화로움' 등 수상집 강세

명사추천 불서 100선

성철스님 '영원한 자유'



이 은 영
〈한국외대 법대교수〉

1년 예정으로 미국에 도착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나는 안절부절하기 시작했다. 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통하지 않아서 였다. 침대에 기대앉아 책을 읽는 것이 나의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일하고 상관없는 읽을거리는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 큰 트렁트 하나에는 아무리 꽉 눌러도 옷하고 전공책 몇권 밖에는 넣을 수가 없어 다른 읽을거리는 가져올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어느날 나에게 온 소포는 나를 침울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며칠 전 뉴욕에 사는 친구와 20년만에 전화했었는데 그 친구가 보내준 것이었다. 그 소포에는 성철스님의〈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와 이제 소개하려는 〈영원한 자유〉가 들어있었다.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집어내어 구해주는 친구의 배려가 고마웠다. 그 친구의 센스와 자상함은 오랜 미국생활도 둔하게 만들지 못했나보다. 그 친구는 기독교신자인데 내가 불교신자라는 얘기를 전화로 듣고 그냥 그러냐고 했을 뿐이었는데, 고국을 떠나서 제일 그리운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았던 것 같다.

〈영원한 자유〉는 제목부터 나를 이끌었다. 우선 딱딱한 한자어가 아닌 쉬운 제목이 독자에게 책의 이미지를 즉각 심어주어 좋다. 그리고 '자유' 그것도 '영원한…'란 내가 종교에서 제일 얻고 싶은 것이다. 현실에서 번뇌, 속박, 장벽을 느낄 때마다 휴식, 자유, 탈출을 꿈꾸곤 한다. '영원한 자유'를 얻는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인가.

성철스님은 머릿말에서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하는 질문에 큰스님이 "삼 서근"이라고 대답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부처님을 물었는데 어째서 삼 서근이라 하였는가"라는 화두를 던지셨다. 이 책에는 불교경전에 나오는 일화는 물론이고 록펠러, 진시황등의 세속적 일화를 예로 들어 우리에게 불교의 참뜻을 얘기한다.

설법이란 것은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과 예를 들어 중생의 마음에 부처님 뜻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영원한 자유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장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하신다. 첫째, 공부하는 사람이 '돈'이 눈에 보이면 공부는 그만이다. 둘째, 장애는 남자에 대해서는 여자이고 여자에 대해서는 남자이다. 셋째, 가장 단수가 높은 장애가 명예이다. 재물병, 여자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름병인데, 이름병에 걸리면 남들이 칭찬해주니 고치기 어렵다고 한다.

불교는 나의 학문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법학을 하면서 늘 하나의 화두를 가지려고 애쓴다. 나의 여러 논문에서 일관된 하나의 흐름을 가지려면 화두를 가지고 반복해서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법학이 딱딱한 법률용어와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기는 하지만, 법학은 몇몇 법률가가 독점하는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왔다. 성철스님은 이 책을 통해 "강의란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고 질책하는 것 같다.

불교 참뜻 일화통해 쉽게 전달
번뇌·속박서 벗어나는 길 제시

'불교학 세미나' 곧 완간

'존재론…' 등 2권 발간 '윤리학…' 등 3권 9월 선보여

존재론 인식론 등 불교의 철학적 기초를 다지는 불교학술서 다섯권이 한꺼번에 출판된다. 불교시대사는 '불교학 세미나' 전5권을 기획, 이 가운데 〈존재론·시간론〉〈인식론·논리학〉을 펴낸데 이어 9월안에 〈인간론·심리학〉〈종교론·진리 가치론〉〈윤리학·교육학〉등도 선보일 계획이다.



'불교학 세미나'의 텍스트는 74년 일본 이상사에서 출판한 '강좌 불교사상'으로, 전7권 가운데 〈인생론〉〈예술론〉을 제외한 것의 완역이다. '강좌'는 일본 주구바대학 사이구사 미쓰요시교수가 나까무라 하지메, 시오이리 료우도, 미즈노 고겐, 스구로 신조우 등의 논문을 한데 묶은 것이다.

〈존재론·시간론〉은 용수 무착 세친 등의 저술에 나타난 불교의 존재론·시간론을 현대서양철학의 방법론에 기대어 설명하고 있다. 원시불교와 아비달마의 존재·시간문제, 대승불교의 존재론·시간론, 밀교의 존재론·시간론으로 구성했다.

〈인식론·논리학〉도 원시불교에서 후기 대승불교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논의 내용을 살폈다. 특히 중국의 인명사상을 소개하는 한편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불교논리학(인명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두권을 비롯해 〈인간론·심리학〉〈종교론·진리 가치론〉〈윤리학·교육학〉등의 출판으로 그동안 불교사에 치중했던 우리나라의 불교학 연구에 사상·철학적인 자극을 주어 불교학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불교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불교학의 체계적인 학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주리라 기대된다.

화제의 책

북한의 문화유적 순례 — 양태진 엮음

분단이전 북한 사찰·유물유적 소개



민족통일의 근원적인 실천방법은 민족의 동질성회복에 있다. 분단으로 인한 민족간의 이질감을 해소해야만 비로소 완전한 통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층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제고 내지 확산은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기도 하다.

〈북한의 문화유적 순례〉는 분단이전 북한지역 곳곳에 위치한 사찰과 향교를 비롯 고분 원시유적 고인돌군등 유물·유적을 소개한 문화유적으로 보는 북한 입문서이다.

△사찰과 절터 △명산의 유물·유적과 전설 △고건축물등 8장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분단이전의 비교적 원형을 보전한 150여점의 사진자료를 곁들여 북한지역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책 뒤에는 210편에 이르는 북한문화유적 관련 논저목록과 항목색인을 수록했다. 〈백산출판사, 9천원〉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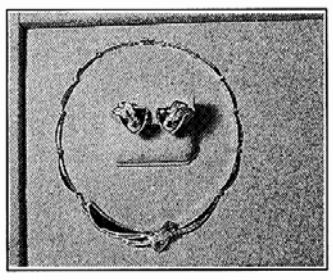
▲아미타경강설(이성환 편역)=정토사상과 정토법문을 총괄적으로 압축정리한 아미타경 해설서. 원문과 번역, 강론으로 구성했으며 부록으로 '연종보감(蓮宗寶鑑)' 영인본을 함께 실었다. 〈한국불교출판부, 1만6천원〉

▲아버지가 뭐냐 스님이라 물러라(서경보 지음)=불법과 인간의 삶에 대한 단상들을 묶은 저자의 수필집. 표제글을 비롯해 73편을 실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있는 불성의 발견을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다. 〈청맥, 6천원〉

▲종교학입문(막스 뮐러 지음)=저자가 1873년 영국 왕립연구소에서 네차례 종교를 주제로 강의했던 내용을 묶었다. 세계의 여러 종교를 언어학적 역사적 비교종교의 방법으로 종교의 본질탐구를 시도했다. 종교학을 학문의 위치로 올려 놓은 책으로 평가된다. 〈동문선, 1만원〉

▲사는것이 아니라 살려지는 것이다(김태영 지음)=문사수(聞思修) 원당불교법회의 지도법사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저자의 수필집. 수계 우란분재 등 불교 주요의식의 의미를 재해석해 생활불교의 길을 제시하는가 하면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의 글들을 묶었다. 〈여래, 5천5백원〉

J·E·W·E·L·R·Y • 청 우 • C·H·U·N·G·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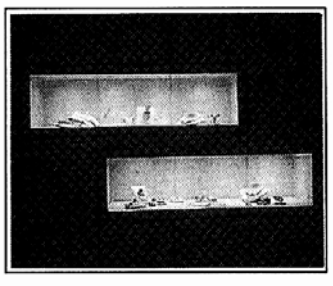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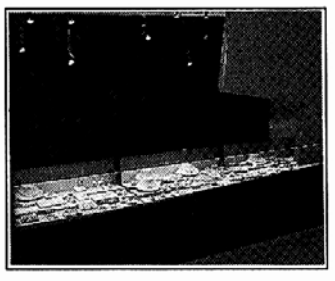
정보가 다양해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진 현대에 와서 사람들의 미에 대한 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석 디자인도 지니고 있는 사람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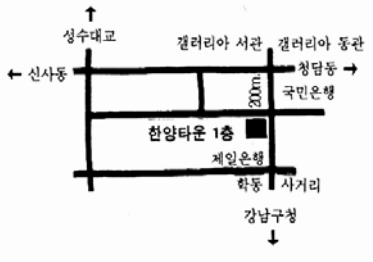
세련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청우'의 제품들은 서정적인 주제의 디자인과 독특한 예술적 감성표현이 그 특징입니다.

각 개개인마다의 독특한 스타일 캐치, 보석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 이것이 '청우'가 연출하는





녹음이 짙어져가는 계절, 클래식한 우아함과 세련된 현대감각이 함께 어우러진 곳 청우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찾아보십시오.



'청우' 유자야 씨 전시경력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21회
1976 파리 니델제산 공모전 입상
1977 파리 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1978 불란서 전국 사진 공모전 출품
1979 파리 프리마그 로지에 공모전 입상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1980.6 제1회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화랑)
1982 한국 공예가회 출품
1983 한국 공예가회 출품
1984 한국 공예가회 출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5-1, 2 한양타운 107호 / 우편번호 135-120 / TEL 3442-4434~5 1F, 7 Hanyang Town, Sinsa-Dong 665-1, 2 Kangnam-Ku, Seoul 135-120, KOREA

책방 여시아문이 제안하는 '서늘한 여름 보내기'

" 한 권의 불서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산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00-33 (우편번호 110-170)
책방 여시아문 전화 : (02)737-0695(직통)
팩스 : (02)737-0696(전용)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기초교리 입문서 천수경강의
천개의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석우스님 지음
신국판/404쪽/값 6,500원
교리강좌 10년 강의의 총결산
완전한 기초교리입문서 완성
불교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제 혼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 책 속에서 찾으십시오
불교의 기초에서 완성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루었습니다
진작에 누군가 썼어야 할 책입니다
이제 불교를 미신이라고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진리이고, 과학입니다 지성인과 미래인을 위한 종교입니다
관음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0번지 전화 720-1147~8

민족사 산문선 1
현장스님의 엄불선 이야기
나를 보게 하소서

신국판/280쪽/값 5,500원
답답한 속이 확 뚫리는 생명법문!
탁 트인 바다를 마주하는 듯한 무공해법문!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날마다 다시금 나를 보게 하소서
걱정근심 벗어나서 생명의 단비를 맛보는 순간
부처님은 이미 내 곁입니다.
엄불의 마음, 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도서출판 민족사 주소 : 종로구 정진동 208-1 전화 02/732-2403,4 · 722-7679 / 팩스 02/739-7565

책방 여시아문 통신 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은 불자 여러분의 불교 서적 구입과 건전한 독서 문화 창달을 위해 회원 가입 '통신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구입하시고 싶은 불서가 있으시면 저희 책방 여시아문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받으시고자 하는 도서를 신속히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전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 책방 여시아문이 발행하는 월간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 현대불교신문사 및, 책방 여시아문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받게 되는 등 다채로운 특전을 누릴 수 있으시오니 물지 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737-0695(책방 여시아문 직통)

민족사 산문선 2
山寺의 향기를 가득 품고 신선하게 다기오는
열두 스님의 신사 이야기
제 똥은 제가 누어야지

지묵·영담·무비·현진
효림·여연·원택·동봉
현장·선혜·법연·도법
신국판 216면 / 값 4,500원
복잡한 세상, 아무리 바빠도 한숨 돌리고 삽시다
여기 맑고 향그런 산사의 내음이 있습니다
열두 스님이 넋이 놓는 솔직한 이야기!
청량한 향내음 나는 스님들의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생활의 긴장감을 느슨하게 풀어 주는 맛스런 이야기!
자, 이제 열두 스님과 더불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도서출판 민족사 주소 : 종로구 정진동 208-1 전화 02/732-2403,4 · 722-7679 / 팩스 02/739-7565

능엄경강화

운허 지음
전 3권/각권 15,000원
불교의 철학적 이치와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필독의 경전
광생을 역경과 능엄경 연구에 일생을 바친 운허 스님의
생전 강의를 녹음에서 책으로 만든 스님 일생일대의 역저
동국대학교 역경원 전화 : 02) 260-3474, 267-8578

"당신의 소중한 자녀에게 평생의 선물을 주십시오"
어린이불교

국배판/286쪽/값 6,000원
진정한 의미의 불자가정을 이루고 싶으신 분은 지금 곧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린이불교를 마련하십시오.
자녀에게 읽어주는 어린이불교.
미래불교의 싹을 틔우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자녀의 머리맡에 있는 이솝우화를 치우십시오.
재단법인
동국역경시업진흥회 주소 서울시 중로구 구기동 110-1번지 효천오피스텔 504호 전화 391-8274-5 / 팩스 394-5389

현능 스님의 재미있는 불교강의
생명의 저울

현능 스님 지음
신국판/값 6,500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빈 자리 만들기
산사의 솔바람 소리를 벗나 벌덩숲속을 거니는 스님.
중생들의 마음자리를 청정도량으로 삼고 정진하는 스님.
경전은 읽되 TV드라마 「모래시계」를 읽는 스님.
자신은 '불교의 세일즈맨'이라고 말하는 스님.
체계적인 포교연구를 위해 해외유학길에 오른
한 젊은 스님의 신선한 불교강론!
문학동네 전화 765-6510~2 / 팩스 743-2037

전국 60개 명찰 풍수답사기
사찰풍수

임학섭 지음
신국판/전2권
각권 값 6,000원
산은 서 있고 절은 움직인다
풍수지리의 개념을 얻고 마음을 강고 닦는 공간
「소선비보山川裨補」의 의식 때문이다 풍이 있는 그 땅은 바로 산신정기가 응집된 요새요항이며 주변산세가 순화된 길지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의 생명체이다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산은 생명의 원천이다.
반물을 태어나게 하는 기(氣)는 산에서 발원하고 산의 맥을 통해서 흐른다
밀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20 개암빌딩 2층 전화 529-0410-6 / 팩스 579-2312

소설
삼국유사

정다운 지음
신국판/전3권
각권 값 6,000원
일연스님, 삼국유사를 왜 쓰셨지요?
해답은 정다운 스님의 〈소설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당대의 고승이었던 일연 스님은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어떤 역사의식을 전하려고 이 책을 남겼을까?
그 어려운 고전을 풀어 이렇게 재미난 소설로 엮을 수도 있다
밀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20 개암빌딩 2층 전화 529-0410-6 / 팩스 579-2312

소설
천 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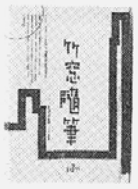
정다운 지음
신국판/전3권
각권 값 6,200원
종교와 시대를 초월한 인생승리의 비결!
여기 신명나는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천수경은 불교회세학으로 승속 · 종교 · 시대를 초월한 옛날부터
전수되어온 인생 승리의 비결이다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 구도자. 내 마음을 찾아 윤회로부터
해탈하고 삶의 보람과 자유를 터득하는 길이 이 안에 있다
여기 「소설 천수경」에서 현대인들의 새로운 인생드라마가 펼쳐진다
밀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20 개암빌딩 2층 전화 529-0410-6 / 팩스 579-2312

한국불교 1,600여 년의 역사가 숨쉬는 전국의 명찰 50곳
한국의 사찰①

대한불교신문 편집국 엮음
신국판/433쪽/값 8,500원
크고 작은 산이 머리를 맞모으고 물길 하나와 다른
물길 하나가 손을 맞잡는 조화와 합일의 엉지인 사찰.
한국의 사찰은 부처님의 정도를 추구하며 민족사의 지
성으로 살다간 수행자의 자취가 묻어 있다.
도서출판 부다가야 전화 : 051) 865-4383
보급 불서총판 은주사 전화 02-720-9372~3 / 팩스 02-723-0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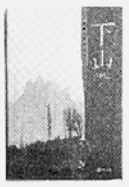
비구니 시인 정운 스님의 첫번째 산문집
사람의 향기

정운 스님 지음
신국판/228쪽/값 5,500원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절을 짓고 수행하고 있는 비
구니 정운 스님이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마음의 조각을
영롱한 시어로 표현했습니다. 시로는 다 말하지 못한
출가 이야기, 인연 이야기가 진솔한 필치 속에 묻어나
고 있습니다.
불광출판부 전화 420-3200 / 팩스 420-3400

한 권의 책이 담을 수 있는 가장 원대한 사유의 세계!
竹窓隨筆

운서주굉 지음/연관 옮김
신국판/양장본/593쪽/값 12,000원
대자유인이 행주좌와 간에
보고 느끼고, 행동했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150편의 촌철(寸鐵)의 이야기가 날아와 박히는 곳,
그곳에 있는 내 마음자리를 확인하십시오.
불광출판부 전화 420-3200 / 팩스 420-3400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신행상담사례 300선
알기쉬운 불교

불교방송 출판부 엮음
값 5,000원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불교에서의 올바른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가?
일반 신자들이 신행생활 속에서 느끼기 쉬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간결하고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불교신행입문
불교방송의 신행상담프로그램인 '자비의 전화' 가 방송된지 2년
이제 2년 동안의 방송내용을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펴내면서 우리는
크나큰 보람을 느낀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심
리해서 우리 실정에 적당한 불교입문서를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다
불교방송 출판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 다보빌딩 전화 705-5114

이 · 홍 · 수 · 장 · 편 · 소 · 설
下 山

이홍주 지음
4×6판/양장제본
248쪽/값 5,500원
1969, 임진강에서 발견된 한 젊은 스님의 주검과 그의 충격적 구도소설!
1968년 유난히 키가 크고 따짜 마른 한 젊은 스님이 임진강 하구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의 선방 속에서 자신의 소설 〈下山〉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출주 스님은 왜 유서선은 남으려 했은까?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 급서로 묻었던 분세의 소설 〈下山〉은 26년 만에 다시금 햇빛은 보게 되었다
• 젊은 수행자의 갈은 천구 불교와 고뇌이 집필히 보관된 분석의 불교 천유문학 1967년/처기 술록로
• 스님불과 신자의 성행하고 현명을 잡은 보사람이나 삶에 대한 긴 사색의 천주일 같은 대화들이 독자를 사로잡는 구도소설
불지사 주소 :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8-6 유정충빌딩 3층 전화 277-2676 / 팩스 278-9118

버리고 떠나기

법정 지음/값 4,500원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려거든 묵은 둥지를 떠나라!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므
로 차지하고 채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침체되고 묵은 과거의
늪에 갇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차지하고 채워가기도 한 생각
돌이켜 미련 없이 신뜻 버리고 비우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열리
는 통로다 -〈버리고 떠나기〉 중에서
샘터 전화 763-8961~6 / 팩스 3672-1873

불교경전 속의 한자말 모음
佛教千字文

감수 백운/편저자 덕진/쓰기 박한숙
쓰기(사경)판/3,000원
자전판(자전 · 영어풀이 주요국립 해석판)/2,500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배우는 불 · 교 · 공 · 부!!(불교천자문 공부)
여덟 종류의 불교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기본 교재 역할과
사경의 의미까지 포함한 불자 필수 교본!!
예불문 · 반야심경 · 천수경 · 금강경 · 부모은중경 · 아미타경 · 관세음
보살보문품 · 보현행원품
우리출판사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전화 313-5047 · 5056 / 팩스 393-9696

지묵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지묵스님 지음/값 5,600원
주로 산사에서 공부하면서 수련회 지도와 글쓰기를 통해
생활불교를 펼쳐온 지묵 스님의 절 생활 및 살아가는 이야기
교계 신문과 잡지에 연재한 글을 묶은 것으로 불자들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 딱딱한 교리문답식 형식을 벗어나
대화를 나누듯 편안하게 서술했다
우리출판사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전화 313-5047 · 5056 / 팩스 393-9696

법구경의 세계

이원섭 풀이
신국판 400쪽 / 값 7,000원
불교학자이자 시인인 저자가 각각의 게송에
맞는 적절한 비유와 용어 설명 등으로 법구
경을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고 있
으며 또한 법구경이 주는 지혜의 영역을 한
층 더 넓혀 준다.
도서출판 운주사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전화 02) 720-9372,3 / 팩스 02) 723-0646

삶에서 깨어나기

틱낙한 지음/양미성 옮김
신국판/272면/값 5,500원
도서출판 장경각 발행
깨달음, 그 놀라운 변화!
비로 우리들 평범한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트남 출신의 승려로서 세계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으로,
마틴 루터 킹에 의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바 있는 틱낙한 스님이, 불교의 명상 중에도 가장 명료하고
아름다운 관명상에 관하여 찬찬한 언어로 강동 깊게 펼쳐드립니다
도서출판 장경각 총판(대원사) 757-6717~9 사무실 269-3227

영가 천혼 법어

석성우 · 김규대 엮음
값 15,000원
제 갈 길 못가고 헤매는 수많은 영가들!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의 연속!
그로 인하여 제 갈 길 못가고 헤매는 수많은 영가들!
그 저승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은 무엇인가?
신라시대부터 현존의 스님까지 50분의 선지식들이
영가를 천혼키 위해 설한 법어집!
토 방

삼각산 풍경소리

신국판/고급양장/값 4,500원
산사에서 들려오는 맑은 풍경소리를
이 한 권의 수필집에서 들어보십시오.
국내 문인 · 명사들이 쓴 여름산의 솔바람 소리 같이
맑고 시원한 글들.
수필은 삶의 진지한 사색이며 내면의 진실한 대화입니다.
한국불교출판부 전화 745-1614

불교학의 기본서
불교학 대사전

전관응대종사 감수
/값 70,000원
불교용어, 인명, 지명, 경전, 저서 등을
1,861 페이지에 걸쳐 5만 여의 항목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불교이해의 길잡이!
홍법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전화 02) 739-8745 / 팩스 02) 735-2344
공급처 불서총판 운주사 전화 02) 720-9372,3 팩스 02) 723-0646

그림지 없는 나무로 물거품을 태운다
동사열전

범해찬 · 김윤세 역
국판/720쪽/값 10,000원
꺼지지 않는 등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동사열전〉은 이땅의 정신사에 빛을 남긴 인물들의 구도자적 삶과 득도와 죽음에
대한 기록이다 1천백여 년 전 천반도에 불교가 전해진 이후 해남 대종사에 걸쳐
유신사에 의해 108명의 전기가 권찬(1981)되기까지 1천5백년의 세월이 소요됐고
번역자에 의해 한글로 옮겨지기까지에는 또 1백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7년
에 걸친 지료수집과 정리 번역작업 끝에 우리는 1천 6백년의 시간과 천반도라는
공간 속에서 100명의 구도자들이 이룩한 득도체험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오랜 세월을 이어 전해진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廣濟院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신관 902호 전화 02) 736-3171 / 팩스 02) 732-3919

임 · 현 · 담 · 메 · 디 · 칼 · 에 · 세 · 이
히말라야 · 인도에 빠진 닥터

연속증판
임현담 지음
신국판/304쪽/값 6,000원
5대 일간지가 격찬한 화제의 책!
이 책이 나오자 불교계는 긴장했고, 가톨릭은 당혹했다
"가톨릭 의사가 「삶과 죽음」의 화두로 불교성지
히말라야 · 인도로 빨려 들어갔다"
효령출판 전화 : 756-0262 팩스 : 756-0264

무산된 남북불자 동경회의 무엇을 남겼나

한발 다가선 '南北불심'

통일을 위한 남북불자들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동경회의가 당초 예상대로 정부측의 북한주민 접촉불허로 무산됐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무산'이었으나 남북불교대표들의 화합가능성을 한층 높여준 시도로 평가된다.

남북불교대표들은 이번 만남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양측 모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선언문 초안에 나타난 대로 '통일을 위한 공동의 행동을 추진한다'는데 동의를 표함으로써 지금까지 몇차례 있었던 남북불교대표의 만남과는 달리 한층 진전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가능성은 양측대표단의 발언 곳곳에서 나타났다. 황병대 조불련부회장은 2일 열린 공동법요 인사말에서 "8.15기념 관문점 공동법회에 여러 법우들이 참석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월주스님의 방북에 적극성을 보이는 등 이번 회의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태연스님도 "정부의 적법절차를 받아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불련과 조불협이 남북 양측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에 따라 월주스님의 방북이전인 7월중순까지는 채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후 정부당국의 태도가 주목된다.



◇ 지난2일 일본 증상사에서 열린 희생동포영령 합동위령법요에서 한국측대표 서봉스님과 북측대표 황병대 조불련 부회장이 헌향하고 있다.

'공동 선언문'초안에 의견 일치
일본 한불련·조불협 교류다져

이를 의식한 듯 정부의 북한주민 접촉불허로 남북불교대표회의가 무산되자 한국대표단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은 월주스님의 방북을 정부가 불허할 경우 불교계의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 제스처로 보인다.

이번 회의를 위해 재일본불교단체인 한불련과 조불협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만남을 통해 회의개최를 추진하고 선언문의 내용을 추진해왔다. 공동선언문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사안을 제외한 내용을 담아 남북불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이는 남북불교교류를 위한 해외불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공동선언문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공동행동과 공동모임의 적극추진 △일제하 희생동포 위령사업과 희생동포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업의 공동추진 △상호인적·물적교류와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의 공동추진 그리고 이들 사업을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경=정성운 기자

동경 남북불자회의 주변 스케치

접촉불허 통보받고 당혹

○… 남북불자회의 남한측 대표단은 출발 전날인 30일까지도 잘될 것이라고 믿었던 북한주민 접촉승인이 출발당일 김포공항에서 불허통보를 받자 당황. 대표단은 합동위령법요에는 재일본불교단체 초청이므로 참석키로 하고 남북불자회의는 현지에서 주일대사관을 통해 접촉승인을 받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남북불자회의를 1시간여 앞둔 3일 오후1시경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면 사법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공식통보받고 회의에는 불참했다.

만찬자리서 다함께 노래

○… 남북불자회의는 무산됐으나 이후 열린 만찬에서 남북불교대표들과 한불련 조불협측은 저녁식사 후 서로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는 등 회의무산으로 인한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추도사 읽다 눈물' 분단민족 설움 실감

그러나 고려사 참배와 조불련 소속사찰인 통국사에서의 숙박일정은 취소됐다.

분위기조성용 說도

○… 남북불자회의 무산으로 월주스님의 방북과 남북불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에대해 법타스님은 "이번 회의와 월주스님의 방북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발표. 조불련측도 회의무산을 "통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며 큰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임해 쌀제공과 일본과의 수교 등을 순조롭게 끌고가기 위한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역할분담 세심히 배려

○… 공동위령법요 사회를 한불련 사무국장 혜광스님과 조불협 서덕근사무국장이 함께 맡는 등 각종 식순에서 한불련과 조불협이 역할을 분배했다. 또 조불협 소속사찰인 국평사와 한불련의 고려사를 회의장소와 참배장소로 정해 동등한 입장과 역할을 강조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흔적을 보여주었다.

"교포 두개의 나라로 고통"

○… 남북불자회의가 끝내 무산되자 이 회의를 준비해온 한불련회장 태연스님은 "재일동포들은 두개의 나라이름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며 눈물을 보여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전날 열린 합동위령법요에서도 재일동포 신도대표와 추도사를 들으며 참석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여줘 분단민족의 아픔과 타국살이의 어려움을 짐작케 했다.

한불련·조불협 어떤 단체

회생동포 합동위령법요와 남북불교대표회의를 주최한 재일한불련과 조불협 두 단체는 92년부터 매년 회생동포 위령법요를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고베지진 동포희생자 100일재를 함께 봉행하기도 했으며, 올해는 특히 광복 50주년을 맞아 남북불교대표를 초청해 공동법요를 열고 남북불자들의 대화를 주선해왔다.

동포 권익옹호 앞장

한불련 일본내 한국사찰의 유대강화와 전통문화의 창달, 재일동포 권리확보를 목적으로 91년 8월 창립됐다. 30여개 사찰이 참여하고 있다.

회장인 태연스님은 지난 68년 일본에 건너가 고려사와 희생동포 위령탑을 건립해 매년 11월 위령법요를 봉행하는 등 재일동포의 정신적 지주로서 한불련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불련 대외관계는 부회장인 이명수씨가 주로 맡고 있으며, 이번 합동법요와 남북불자회의의 막후교섭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민단과 조총련에서 조직차장과 선전부장을 역임할 정도로 교포사회에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48년 창립 北서 지원

조불협 48년 8월 조총련 40개 산하단체중 하나로 창립돼 5개 사찰과 6명의 승려가 활동하고 있다. 5개 사찰중 통국사 국평사는 대규모이나 나머지 사찰은 소규모 도심포교당 수준이다. 조불협은 북한과 조총련의 조직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무국장 등 간부의 임명은 조총련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경에 있는 국평사도 북한과 조총련에서 비용을 지원했다.

승려양성기관은 별도로 없고 현재의 승려들은 일본 조선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 지난 5일 해인사 홍제암에서 열린 '승려 기본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세미나'

승려 기본교육의 체계화와 지방승가대학(강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승려 기본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세미나'가 지난 5일 해인사 홍제암에서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 주최로 열렸다.

조계종교육원은 지난 1월 개원이후 4차에 걸친 교육원회의와 전국교구본사 교무국장회의, 전국 강주 및 교육관계자 스님 회의 등을 통해 지방승가대학 등의 설치령 제정과 종헌 종법에 명시된 승가교육체계의 확립 및 의무화를 위한 실무작업을 벌여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지난 4월25일 전국강주회의에서 세미나 불참을 결의한 전국 강원의 강주스님들의 불참한 가운데, 교육원·교육위원회 관계자와 해인사·백양사 중강스님 등 교육관계 스님 30여명이 참석했으나 세미나 주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가 빠짐없이 논의됐다.

승려교육 체계화 세미나

● 수행·시대요구 조화필요 ●
● 전공과목 강사진 세분화 ●
● 대학원과정 수의과 신설 ●

원산스님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지방승가대학은 학식있는 강사초빙의 한계, 사세에 따른 학인수의 불균형, 서로 다른 교재 및 교안의 사용 등에 따른 사상적 혼란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중앙·지방승가대학은 전종도의 공감대를 얻은 후 각자 특성에 맞게 승가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법성스님(교육원 역경위원장)은 "교육개혁의 방향은 전통수행의 내용과 시대적 요구를 결합해 가는 것이며, 수행자 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불교 일반에 대한 폭넓은 교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며, △총림강원의 명칭 변경과 강주 임명권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한 종법개정 △행자교육원 상설화와 기초선원 지정 및 운영 △총림 지방승가대의 학림, 율원, 선학연수원, 승가대학원으로의 합리적인 전환 △교육진흥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무관스님은 지방승가대학의 교육제도 개선책으로 △전공과목을 위주로 한 강사진의 세분화 △실력향상을 위한 각종 평가제와 유급제 도입 △전문 분야 연구를 위한 수의과나 대학원 과정의 설립 △교수 양성을 위한 종비지원 △전통과목과 교양과목의 조화 등을 제시했다.

해인사 홍제암=김재경 기자

전문학림 체제 "찬성" 77%

60% '강원교육후 선원 가겠다' 대답
교수부족·전문성 결여 문제도 지적

지방승가대학 설문조사 결과

강원에 재학중인 학인스님 중 60%이상이 졸업후 선원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혀 선교육후득도의 수행풍조가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교육원이 발표한 '지방승가대학(강원) 발전에 대한 의견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인스님들은 다음으로 학림이나 종단의 전문교육을 받는다(11.8%), 일반대학 진학(8.8%), 포교사업에 뛰어든다(8.3%), 율원에 들어간다(4.5%) 순으로 자신의 진로를 답했다.

지방승가대학의 발전과 승가교육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강원 학인 및 졸업생(96.1%)과 강원 중강이상(1.5%)등 모두 627명을 무작위로 선정,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우편 설문조사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의견조사에서 지방승가대학의 제반 규칙 준수여부와 교과내용에 대한 만족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수스님에 대해서는 은사나 주지스님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는 답변이 압도적인 반면 교수스님의 처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9.5%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강 및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습 평가제도 및 유급제도는 응답자의 14.8%만이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어 부정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지방승가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교수의 수와 전문성 및 교수방법(44.2%)을 꼽았으며, 해당사찰과의 독립성문제(30.1%), 학인들의 의식 및 수학능력, 교재와 교육내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지방승가대학의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교수보강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강사만 보강(38.7%), 해당 교과목에 대한 전문강사의 각 학원 이동강의(30.8%), 외전 등 특수교과목에 대해서만 강사의 이동강의(3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승가대학의 이동식 수업 방식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와 "필요없다"가 똑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동식 수업시 졸업장 수여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원장 명의의 졸업장 수여(51.6%), 해당지방승가대학에서 졸업장 수여(40.4%)로 나타났다. 특히 이 문항의 경우 '교육원장 명의의 졸업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사미(63.2%) 사미니(47.7%) '해당 강원의 졸업장'을 받길 원하는 경우는 사미(28.3%) 사미니(44.0%)로 이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방승가대학을 전문학림으로 개편하자는 물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6%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5>

지구촌 전법이야기

황무지 같은 교민촌 LA에 첫발
히피사상 물든 美 젊은이 방황의 삶 목격



◇ LA에 도착한 행원스님을 교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숭산 스님 ⑤

그 로드아이랜드 주립대학의 교수는 김정선이라는 사람이었다.

"제가 불교를 오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교수는 대학 교수답게 차근차근 질문해 왔다. 행원스님은 그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간략히 말했다.

"불교 그 자체는 오해할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지요. 불교는 그저 불교일 뿐입니다. 다만 김교수께서는 한국불교를 모르고 일본불교만 공부했다고 하니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교수는 매우 진지했다. 스님은 말을 이었다.

"일본불교는 한국에서 전해져 간 것입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변화된 불교의 수행과 신행의 모습들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지요. 더구나 그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생되기도 하고 변모되기도 한 사상적인 차이점도 매우 상세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스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십니까."

"어허, 이 양반이 교수님이시라더니… 다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불교는 지식의 학문체계로 봐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음알이에 얽매이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 그것 또한 오해의 불씨입니다."

비행기가 기류를 타고 흔들리고 있었다. 스님은 이 교수에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해야 할 것인지 잠시 생각을 했다.

쪽지 건네 준 동포 교수

"이봐요 김교수. 이 책을 보시오. 나는 선승(禪僧)이고 이것은 〈선학강좌〉라는 책인데 내가 써본 것이오."

그는 책을 받아 들더니 더욱 진지한 눈빛이 됐다. 그리고 첫장부터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그 책에 불교의 전통이 쭉 서 있을 것이오. 또 그것이 한국불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니 가져다 보시지요."

"고맙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해 보고 싶군요. 미국 학생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려면 이런 책이 필요하거든요."

"불가능할 것이 두엇이 있겠소. 당신은 교수이니 잘 해 낼 것이요…"

비행기가 내릴 때까지 그 교수는 책을 덮지 않고 있었다. 그는 짐을 챙기며 자기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네주더니 "곡 다시 뵙고 싶다"고 말했다.

"인연이 있을 것이오."

로스엔젤레스.

1972년의 LA는 황량했다. 미국내의 사정도 황량했지만 교민들의 삶도 황무지와 같았다. 그 황량한 도시에 첫발을 디딘 한국 승려를 맞이한 사람은 선덕화보살이었다. 그녀는 일본 교또의 김은자 보살 동생이었는데 착하고 불심이 강했다.

"스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님이 오시니까 괜히 저희들이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향락으로 치닫는 세태

선덕화 보살이 자기집으로 가는 차안에서 했던 그 '든든해지는 것 같다'는 말이 행원스님에게는 하나의 짐이 되고 있었다. 일본에서 그랬듯이 이곳의 많은 교민들도 스님을 의지해 불교를 믿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행원스님이 미국에 처음 도착한 72년에는 미국 젊은이들의 마음에 큰 바람이 불고 있는 때였다. '미국 젊은이들의 생각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스님의 LA행 비행기에서의 마음이었다.

때문에 스님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 관심은 곧 당시의 '큰 바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 '큰 바람'이란 다름 아닌 반전운동과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감이었다. 65년부터 시작된 월남전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70년을 넘기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우며 전장에 무기를 팔고 군대를 투입시키는 기성세대를 불신했다. 뿐만아니라 기성세대의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종교, 예술들을 모조리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인도 요가 들어와 유행

그 부정적 시각은 '대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그것이 바로 히피사상이었다.

대자연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높고 낮음에 대해서도 좋고 나쁨에 대해서도 구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파도치고 있었다. 그 뜨거운 파도는 순수했다. 그 순수를 표현하는 히피사상은 급속도로 미국을 뒤덮고 있었다. 히피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매우 영리한 신의 이름이다. 그 신은 대자연과 인간 사회를 바르게 연관시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히피사상가들의 논리였다.

임연태 기자

성철스님 '선문정로' 컴퓨터로 읽는다

고려대장경硏, PC통신에 제공

성철스님의 대표저서인 〈선문정로〉를 컴퓨터로 읽을 수 있게 됐다.

백련문화재단과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최근 〈선문정로〉를 전산화한 '선문정로 연구' 프로그램을 완성, 일반 PC 통신망을 통해 제공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원문을 읽으며 1백49개의 인명과 1백50개의 서명, 1천2백47개의 주요용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다.

제작팀은 올 가을쯤에는 검색기능을 대폭 보완, 각 용어와 서명, 인명에 대한 해설도 추가시킬 방침이다. 현재 검색 가능한 기능 중 찾고자 하는 어구가 들어 있는 행만을 추출해 보여주는 기능, 해당 행이 포함된 페이지의 내용을 보여 주는 기능, 검색용어의 빈출통계처리를 각 장별로 그래프와 텍스트로 처리하는 기능, 찾은 어구를 등록하여 재검색시 신속하게 검색토록 하는 기능 등이 돋보인다.

또한 원문보기 및 목차보기 기능이 있어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해인사 고려대장경 연구소와 백련문화재단이 작년에 '금강경 검색·색인' 프로그램에 이어 내놓은 '선문정로 연구'는 〈선문정로〉를 공부하는 학인들과 논문 작성자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 소장 종림스님은 "선문정로연구는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가 기획사업으로 추진중인 경전별 전산화 계획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올해 안으로 금강경연구 보완판, 법융문헌연구프로그램 등도 개발,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불교음악연구회 찬불가 창작발표회

젊은 작곡가들 佛音포교 '의욕'

젊은 작곡가들의 창작곡이 소개된 한국불교음악회(회장 정부기)의 '95 찬불가 창작발표회'가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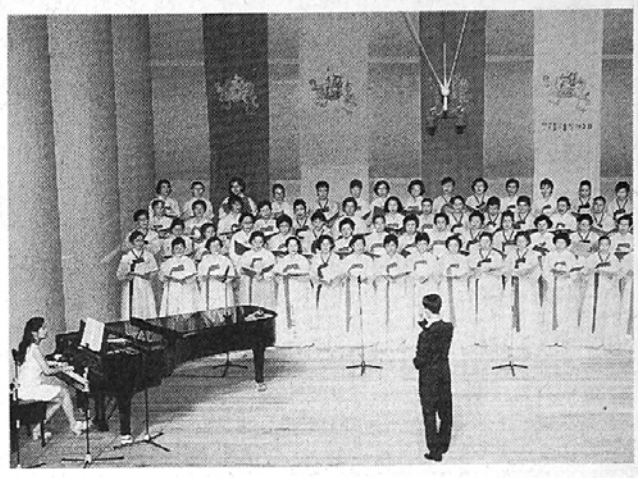
이날 공연에서는 삼귀의 창법가 사홍서원 산회가등 의식용찬불가를 피아노, 클라리넷, 대금 등의 단일 악기에 맞게 연주용으로 재구성한 변주곡들이 각각 소개돼 찬불가창작의 새영역을 개척하는 계기가 됐다.

이들 변주곡은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갓 졸업한 젊은 불자들이 의욕적으로 만든 것이어서 '젊은 불교음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타반주와 함께한 조영근작곡의 '얼마나 닦아야 거울마음 닮을까'는 대중가요 성격을 띤 찬불가로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청중들에게서 앵콜을 연발하는 호응을 얻기도.

그러나 이날 발표회에서 소개된 곡중에는 '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한동안 절간에서 울린 종소리' '눈이 깊은 사미승 혼자 산벚꽃 떨어지고' 등 교리에 맞지 않는 가사로 이어진 찬불가도 발표돼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현정씨(불교방송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표회에서는 정부기교수의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과 김동환교수의 '석가세존' 외에도 이진구, 현연주씨등 신예 작곡가들의 작품이 대거 선보였다.

도필선 기자



◇칠보사·삼보사·법안정사 연합합창단이 신디사이저와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 열창하고 있다.

미니 인터뷰

새얼굴 김수미씨



"어린이 찬불가도 만들고 싶어요"

"저에게 있어 이번 발표회는 새로운 시도였죠. 그래서 걱정스러움에 많이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발표회가 성황리에 끝나 찬불가 창작에 첫발을 내디딘 저에게 용기가 됐습니다."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삼귀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산사의 봄' '천년의 산사' 등 창작찬불가를 선보인 신예 작곡가 김수미씨(29세).

"그동안의 무겁고 어려운 찬불가 대신에 흥얼흥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불가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김씨는 쉽고 명랑한 어린이찬불가를 창작해 내겠다는 젊은 음악인다운 야무진 원력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김동환교수의 지도를 받아온 김수미씨는 올가을 중앙대 대학원을 졸업하는 젊은불자 작곡가로 앞으로 불교음악 작곡에 매진할 계획이다.

'삼귀의' 등 의식곡 연주용 변주

교리 어긋난 가사 아쉬움 남아

불심시심 〈24〉

나는 새 자취 남기나

森羅萬象同歸幻 (삼라만상동귀환)	벌여놓은 모든 물상 결국 허깨비
鳥過長空覓沒縱 (조과장공멱몰종)	허공을 지나는 새 자취 찾던가
虛空不是藏身處 (허공불시장신처)	허공이 몸 갈무리할 자리 못되니
看取風前帶雨松 (간취풍전대우송)	바람결에 비젖은 소나무 보게

소요대사가 의현(義玄)법사에게 준 시이다. 지난 호에서 보았듯이 선기의 오묘함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보여준 시라 하겠다.

우리 범인들이야 눈에 보이는 사물에 의하여 그것이 바로 존재의 실상임을 알지만 좀더 생각의 자리를 깊이하고 보면 그것이 모두 허상임을 알게 된다. 삼라만상이라 하는 이 존재의 모든 것은 다 함께 허망한 실상으로 들어가고 만다. 가사 그것이 존재하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는 환상에 지나지 않고 존재의 그 법리는 보여지는 모습의 뒤에 가리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법체의 묘리는 이 환상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새가 허공을 나는 것이 실상이지만 그 실상은 순간일 뿐 허공에는 자취도 남기지 않는다. 이 없어진 자취를 찾으려 한다면 어리석음이 아닌가. 자취 자체가 원래 허깨비로 비유되는 허상의 잔영이니 자취가 있을 리도 없으니 이 자취 없음이 오히려 실상일지도 모른다.

자취 없음이란 비어있음으로 대치될 수 있는 말이니, 모든 것이 비어있다 한다면 허공이란 또 어디에 있는 것이며 허공이 허공 그 자체로만 있다면 '있다'로 표현될 수 있는 존재는 어디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이 있음과 없음의 둘이 맞물려 서로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 아닐까.

비어 있음의 허공이 모든 것을 갈무리할 수 있는 것이 못되고, 허공자체도 있음에 의지하여 비로소 없음을 알게 된다. 바람의 실상은 허공임이 분명하니 우리는 있음의 존재로 인식한다. 낙락장송의 큰 가지에 의지하여 흔들릴 때 운치있는 학의 춤으로까지 상상한다. 없음의 바람은 있음의 소나무 가지에 의해서 미화되었고, 비에 젖은 소나무는 더더욱 바람기를 돋보여 준다. 허깨비라 할 만상이지만, 이 있음의 순간이 바로 존재의 실상임이 또한 분명하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포교원 주최, 찬불가 활성화 방안 토론회

범종단 진흥협의체 설치 논의

심의기구·통일 찬불가집간행 등 과제

찬불가의 물길잡기 노력이 종단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찬불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의 장이 지난달 30일 조계종 포교원의 주최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시명스님(통도사 기획국장)은 찬불가 70년사를 회고하며, "1천여곡의 찬불가 중 겨우 10여곡만이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 찬불가의 현황"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예전처럼 전통만을 강조한 곡은 단조롭고 대중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국악과 양악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근회장(불음보급회)은 노래방 기계등을 이용, 대중적인 찬불가교육과 보급에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회장은 불교음악발전을 위하여 노랫말이 교리와 맞지 않는 작품, 정체불명의 외국곡에 노랫말을 붙인 곡등 찬불가의 정리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기교수(중앙대 음대)는 찬불가의 종단적 통일화 방안으로 저작권과 심의기구의 설치를 제시했다. 그 필요성에 대해 정교수는 "찬불가의 정리뿐 아니라 작품의 수준 및 질적향상도모, 가사에 있어서 전통성 및 내용의 적법성 파악, 곡의 순수성 유지등을 위해 심의기구가 설치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음악인의 질 높은 찬불가 창작의 배경마련을 위해 저작권등록은 시대적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발제자들의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토론에 나선 최정희씨(본사 편집국장)는 "조계종단뿐 아니라 2천만 불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범종단적인 문화진흥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찬불가의 해외교류를 촉진해 세계찬불가를 통일시키는 일 또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법현스님과 최윤희씨(BBS PD)도 "찬불가와 신앙지도의 병행, 합창단육성 및 어린이청소년합창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

"13세기 불교문화 백미 본다"

'대고려 국보전' 세계최대 수월관음도 등 출품

고려시대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고려국보전-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 전시회가 오는 15일부터 호암갤러리에서 열린다.

호암미술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고려시대 전반에 걸친 불교문화유산을 통시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사상 초유의 행사로, 그동안 해외에 흩어져 볼 수 없었던 문화재를 포함 불화11점, 사경관경 5점, 불상 10점, 범종등 모두 2백66점이 출품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3~14세기의 금동물감.

출품작 가운데에는 일본 경신사가 소장하고 현존 세계최대를 자랑하는 '수월관음도'가 포함돼 단연 눈길을 끈다. 1310년 김우문이 그린 이 관음도는 고려불화 중 가장 큰 것으로(420×254㎝) 다른 일반 관음도와는 반대로 관음보살이 화면의 오른쪽을 보도록 한 특이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감지금니대보적경(紺紙金泥大寶積經)권32 변상도'는 일본 동경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세명의 보살이 꽃바구니를 들고 산화공양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실제의 불전을 본떠 작게 만든 불감(佛龕)으로 당시 불전 안의 불상과 벽화, 탱화등의 배치를 연구하는데 직접적 자료가 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 '금동불감'등 다수의 국내 불교소장품도 전시된다. 이번 대고려전은 단순한 미술전람회의 성격을 뛰어넘어 불교사상을 근간으로한 한시대를 공부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단신

'법음의 소리공양'

부산불음지도자協 창립

부산불교음악지도자협회(회장 김성국)의 제1회 '법음의 소리공양'이 지난 4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연에는 김현숙(동아대 교수) 정한청(내원정사) 김영아(목원대 강사) 김성국 이연화(통도사 포교원)씨등 동협회 회원들이 모두 출연하여 '청산은 나를 보고' '다함께 성불하리' '사랑의 인사' '나의 연꽃' '발원문' 등을 열창했다.

한편 동 협회는 사찰 합창단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과정의 찬불가, 불교음악사, 악전, 시창 등에 대한 강의를 매주 월요일 2시부터 2시간 동안 계획하고 있다.

손연칠씨등 20여 회원

동국회화 전시회 열어

동국대 출신 작가들을 중심으로한 '동국회화전'이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인사동 덕원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손연칠, 김대열, 강호찬씨등 20여 회원의 작품이 선보였다.

원효·요석 '러브스토리'

국립오페라단 공연

원효스님과 요석공주의 러브스토리가 지난 4일 국립중앙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축제'에 선보였다.

원효에는 권흥준씨가, 요석에는 이병렬씨가 열연했다.

한국관광사진전 열려

동자승등 불교작품 '눈길'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관광사진공모전 입상작품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1,2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공폭포·동자승등 불교주제 작품이 다수 선보였다.

효림의 책에는 깨달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쉬운 불교책



읽기 쉽습니다. 배우고 행하기 쉽습니다.
일타 큰스님의 가르침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불교 초심자들이 배워야 할 수행생활의 기본정신 『초발심자경문』. 일타 큰스님의 해설로 세 권이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죽음 뒤의 세상……,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인생……,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저절로 얻게 된다.
I. 큰스님 주변 이야기
II.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III.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 윤회담
IV.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V.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신국판 / 242면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 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자.
자유롭고 깨어 있는
나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신국판 / 342면 / 값 5,000원

신간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후회없는 구도자의 삶으로 이끄는 열가지 보배경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 큰스님께서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은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불교신행의 나침반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이 속에 복된 삶과 성불의 비결이 있다.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환희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잡이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이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공양문
신간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72년 초판 발행 이후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수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읽혀온 책.
불서가 귀하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렵사리 구해다 놓고
두고두고 읽었던 책.
이제 그 책을 효림에서 새롭게 증보
발간하여 불자님들 앞에 선보입니다.
시원시원한 편집, 읽기 쉬운 가로짜기,
한글 번역문과 함께 실린 원문으로
초심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발심·수행·구경(究竟)의 길을
『법공양문』과 함께 여행하며
참다운 법공양의 기쁨을 느껴 보십시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02)587~6612·6613 팩스:(02)586~9078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대학의 증단등록 규정과 포교사고시 시행규정을 발표한 것은 포교사 자질문제에 일단락을 짓는 획기적인 조치란 평을 듣고 있다.

그동안은 3박4일 연수만으로 포교사증을 주어 '3박4일 포교사'란 비아냥까지 생길 정도로 자질문제가 심각했다. 심지어 점쟁이 사주쟁이들이 상술(?)로 이용하기 위해 포교사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 '도대체 포교사란 무얼 하는 사람인가'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였다.

이러한 기존의 포교사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불교(교양)대학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의해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을 주고, 재적사찰 주지의 추천을 받고 시험을 통해 일정 정도 점수를 얻은 사람에 한해 포교사증을 교부하겠다는 포교원의 취지는 신심과 원력이 투철한 데다가 실력까지 갖춘 포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시키겠다는 종단적 의지의 표출이다.

포교원은 스님들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는 것처럼 신도들도 기초→기본→전문의 3단계 교육을 정착시켜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신도에게 포교사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신도지도자로 만든다는 계획. 점진적으로는 종단의 종무직 소임자와 사찰의 신도회 소임자는 포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토록 하고, 포교사가 양적으로 확산되면 단계가 높은 (가칭)전법사 품계고시를 개설하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한편 오랜 연륜을 지닌 일부 불교대학은 종단등록과 포교사 고시제도에 강한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종단과 관계없이 스스로 발전 영역을 넓히며 각 대학 나름대로의 개성을 쌓아왔는데 종단관리하에 들어가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단 포교원은 종단등록 이전 학제 2년이상의 불교대학 졸업자는 그 자격을 인정하고 포교사 고시에 응시케 하고 있으며 학제 2년 이상의 종단 등록 불교대학 졸업자는 포교사 고시를 졸업논문 심사제로 대체케 하고 있다. 조계종뿐 아니라 여러 종단의 수강생이 모여있는 유명 불교대학들이 조계종에 등록할 지는 미지수다. 〈숙〉

조계종 포교사 고시 실시 의의

창구일원화로 질적향상 도모
희망자 인식전환·협조있어야

"서유럽에 부처님 신행바람"

영국 독일 화란등 불교신도·단체 늘어

영국 독일등 서유럽일대에 불교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서유럽일대에서는 불교신자수가 꾸준히 늘어 1백만에서 3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같은 불교신도수 확장에 맞게 1천여개의 불교단체도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단체들 가운데 잘 알려진 곳으로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유럽불교연합〉과 세계 각지에 40개의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서양불교교리 친구들〉로서 이 곳에서는 대충 치르던 불교의식이나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도 대규모로 거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1885년 〈할리경전학회〉의 탄생이래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꾸준히 교세를 확장시키고 있다. 지난 78년 문을 연 〈런던불교도 센터〉에서는 이스트 엔드 지역에 2백여명이 모여사는 자치마을을 세워 불교관련 상점과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일어나는 불교바람에 대해 벤 머피 의장은 "영국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불교단체에 사람들이 몰리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더 많은 교세확장을 위해서는 동양 불교국가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에 비해 독일과 프랑스는 신앙활동보다는 불교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에 치중되었다. 프랑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불교친우회〉로 '불교사상'이라는 잡지를 통해 경전 번역 참선지도 세미나 개최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독일의 경우도 1백여개의 단체 7만5천명의 불교신자가 보수적인 독일에 불교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1950년 스리랑카에서 결성,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WFB(세계불교도우의회)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불교관련 잡지를 간행하고 있다.

이같은 서유럽내의 불교번성에 대해 종교관계자들은 물질문명에 찌든 서구인들이 동양의 정신주의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긴장과 소외감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불교는 가장 큰 위로와 해소가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남수미 기자



btn 활성화방안 찾는 이 호 관리국장

불교통신대 설립등
부대사업검토 "난국타개"

"2차주식공모가 어느정도의 성과를 가져왔다면 부지를 마련하여 사옥신축 등 발전기반을 구축하려 했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불교텔레비전의 살림을 맡고있는 이호 경영관리국장은 금년 연말까지 시설 및 가입자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는 내년초 신도시에 SO(지역국) 추가허락시 가입자가 폭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까지 경영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청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는 이국장은 부가사업추진으로 운영을 타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또 동국대 '21세기 사업기획단'과 검토중인 불교통신대학 설립을 조만간 확정지을 전망이며 국내굴지의 모 전자회사와 '사찰안내와 프로그램 소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깊숙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영상사업부를 활성화하고 부산지사도 올 하반기부터 제작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이호국장은 채널이 안정화 추세에 들면 별도의 종합불교문화의 구심체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흑자경영을 이루어 3년후 불자들에게 주식을 배당, 보탑을 안겨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

대구·청주불방 재원조성 '가시화'

기금·인력·독립운영권 확보 노력

청주불교방송 개국준비위원회(위원장 월성스님)는 지난달 30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그동안 현안이 됐던 독립운영권 문제등을 본사 추진위 관계자들과 협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인터뷰 7면〉

위원장 월성스님(법주사 주지) 원봉스님(前 태고종 종무원장) 범추스님(선학원 분원장) 채훈관 집행위원장(형석학원 이사장) 등 8명의 위원과 본사 강한필사장, 종훈스님, 김종기 송병욱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월성스님은 "단독법인을 구성하여 운영, 편성, 인사권을 청주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본사 추진위측은 불교방송의 운영형태와 지방국 허가조건이 1사1법인 형태라는 원칙은 존중하되 지역정서를 감안하여 실제적인 독립운영권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역도 지난달 18일 설조스님(불국사 주지)이 위원장에 선임된 이후 추진에 활기를 띄고 있다.

대구불교방송 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운영위원에 위촉된 대구·경북지역 5개본사 주지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내 보현사에 추진위사무실을 개설하고 재원마련안도 확정했다.

이날 논의된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동화사 불국사 각 3억, 직지사 2억, 은해사 고운사 각 1억원의 자금을 각출하여 10억원을 마련하고 태고종 진각종등 각 종단과 재가불자들이 10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총지종 기공불사
부산 정각사, 오는 19일

불교총지종 부산교구 정각사(주교 정정심)가 오는 19일 기공불사를 봉행한다.

종단 창종과 더불어 부산지역 교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정각사는 건평 9백여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 4층의 규모에 서원당, 자성학교, 강당, 주차장 등을 갖추고 교도들의 정법구현을 위한 새로운 장으로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승속동행 대화합에 역점"

진각종 락혜 통리원장 지난30일 취임



◇진각종 락혜 통리원장 취임식이 지난달 30일 봉행됐다.

진각종 제24대 락혜 통리원장 취임식이 지난달 30일 총인원 대강당에서 각 종단스님을 비롯 진각종도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됐다.

이날 취임식에는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서봉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불교텔레비전 사장 태응스님 불교방송국 강한필사장 등이 참석했다.

락혜대정사는 취임사를 통해 "승속동행의 대화합을 바탕으로 교화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며 "이를위해 직제개편 및 미래지향적인 종헌 종법개정, 대사회적인 활동을 강화하여 종단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6차 법계고시 실시
태고종, 월말 합격자 발표

태고종 법계고시위원회(위원장 철화스님)는 지난 4일 중앙불교회관 설법전에서 '제6차 법계고시'를 실시했다.

승려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및 종단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법계고시는 대선 중덕 대덕 종덕 종사 대종사등 총 2백명이 참석, 대선과 중덕은 필기 및 면접시험을 대덕과 종덕은 논문심사와 면접을 치뤘다.

한편 법계고시위원회는 이달말경 1차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방대 편입생 모집
내달 11일까지 접수

태고종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혁)은 오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95학년도 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불교학과 30명, 불교의식과(구 범패과) 6명, 불교미술과 5명, 한의예과 20명등 총 61명이며 편입자격은 동방대학 2년이상 수료자, 2년제 이상 정규대학 수료자, 강원 사교과 이상 수료자,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종단의 추천을 받은자 등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교학처 (02)763-0229.



◇ 지난 6일로 60회생일을 맞은 달라이라마와 불교수행을 위해 인도로 떠날 것이라고 밝힌 허리우드의 스타 리처드 기어가 손을 잡고 웃고있다. 두사람은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리처드 기어 인도서 불교수행

미국의 주간 이그재미너지는 최근호에서 할리우드의 스타 리처드 기어(45)가 불교수행을 위해 곧 인도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티벳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오래전 부터 친분을 쌓아왔던 리처드 기어는 이를 위해 달라이 라마가 거처하고 있는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집 한채를 이미 구해 놓았다.

1년중 6개월 정도는 인도로 건너가 불교수행을 할 계획이라는 기어는 당분간 속세와 탈속의 경계를 계속 넘나들면서 마음의 평정을 얻을 것이라고 한다.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영화촬영이 없을 때는 인도로 건너가겠다"면서 "미련없이 로스엔젤레스를 떠나 평소에 존경하던 달라이 라마에게 신성한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광주 BBS 광복절 특집
'소안도 아리랑' 제작

불교광주방송은 광복 50주년 특집다큐멘타리 '소안도 아리랑'을 제작한다.

3부작으로 제작될 이 프로그램은 남해안의 이름없는 섬 소안도가 1920년대 항일독립투쟁의 전국적 거점으로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추적한다.

담당PD 김형만씨는 "공식역사에서 빠져있는 완도군 소안도의 항일투쟁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선시기행' '참나를..' 등
납량특집 편성

불교방송은 여름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납량특집'(월-토 오후 5시10분~6시, 일 오후 5시20분~6시)을 마련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선시기행(월)' '불심으로 다스리는 여름(화)' '연화회의 여름나기(수)' '도심속의 자기성찰(목)' '참나를 찾아서(금)' '천리안 불교동아리의 컴퓨터불심(토)' '어린이 국토순례 강화도를 가다(일)' 등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btn '자비의 천수천안'
김대중씨 성금기탁

지난달 27일 불교텔레비전 '자비의 천수천안'에 방송된 '이승훈 이상미 남매'편을 보고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 "감동적이었다"는 말과 함께 금일봉을 기탁했다.

'카루나' 출연 옥소리
22일 봉은사서 삭발

통일문제를 다룬 불교영화 '카루나'에 주연배우로 출연중인 옥소리씨가 오는 22일, 23일 서울 강남의 봉은사에서 삭발식을 갖는다.

이번 삭발식에는 GTV후원으로 '여성 아마추어 비디오 촬영대회'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카루나'는 9월 개봉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몽골 촬영로케 등을 떠날 예정이어서 제작에 활기를 띄고 있다.

BBS 불국토의 아침
시인 강형철씨 진행

BBS 일부 진행자가 교체된 '불국토의 아침'은 지난 3일부터 시인이며 문학평론가인 강형철(42세)씨가 연기영교수에 이어 진행을 맡고 있다.

'백팔가요'를 이끌어 갈 가수겸 DJ 이세훈씨는 불자가수회 초대 부회장을 엮임했으며 SBS라디오 '트롯트 대행진'을 2년간 진행한바있는 베테랑.

또 '생방송 천수천안'은 안동일 방송위원의 해외 출장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16일까지 담당PD 환용관씨가 직접 진행하고있어 화제.

방송가 단신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 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①

우란분재의 연원, 우란분재의 의미,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 법회,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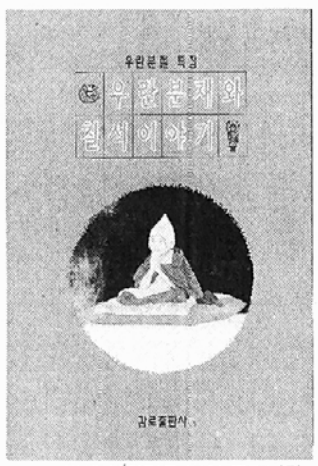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1 우란분절 발원문
2 우란분절 봉축법회 식순

제2부 믿음의 근본, 효:우란분재
1 우란분재의 연원
2 우란분재란
3 우란분재의 의미
4 우란분절과 백중

제3부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1 나복의 출가
2 어머니를 찾아 지옥으로간 목련존자
3 우란분재를 올리다
4 부처님께서 우란분재를 베풀라 하신 참뜻은?

제4부 칠월칠석
1 칠석의 유래
2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칠석재
3 칠원성군 진언과 부적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그리고 인사말,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가격/1권당 1,0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64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온라인 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孝 사상의 3大 경전 부모은중경 · 우란분경 · 목련경을 한데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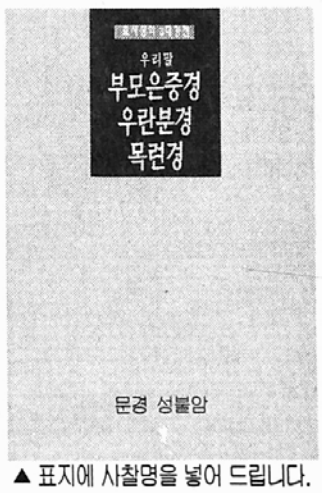
우란분절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②

부모님에 대한 孝사상을 고취시키십시다.

부모은중경 · 목련경 · 우란분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우란분회에 대하여, 우리말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효사상이 고갈된 현시대에 부모님에 대한 효사상의 고취는 물론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부모은중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제2부 우리말 부모은중경
제3부 목련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제4부 우리말 목련경
제5부 우란분경이란 어떤경전인가
제6부 우란분회란
제7부 우리말 우란분경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그리고 인사말,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가격/1권당 1,0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64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우리말 지장경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 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0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온라인 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포교사고시 10월14일 실시

조계종, 3개월 과정이상 불교교양대 내달말까지 등록

올해부터 조계종 포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계종 포교원에 등록한 불교대학을 이수하고 포교사 고시를 거쳐야만 포교사로서 인정받게 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지난 4일 포교사 고시 시행 및 불교(교양)대학 종단 등록 규정을 확정, 오는 10월14일 첫 고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본·말사 포교당 신행단체에서 운영하는 3개월 과정이상의 불교(교양)대학은 오는 8월31일까지 포교원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양식의 등록신청서 △소속 교구본사 주지 추천서 △학칙·정관 또는 설립회의록 △교과과정표 △건물사진 △서약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연혁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등록된 대학에 한해서 포교원은 교육교재를 보급하고 각 교구본사와 관계를 주선하는 등 특전을 베풀기로 했다. 또한 등록된 불교대학 졸업생에 한해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포교사 고시 합격자는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종단명의의 포교사증을 교부받는다.

포교사 고시는 4지선다형과 단답형이 7대3 비율로 불교근본교리, 불교사, 불교문화, 종헌·종법, 불자예절, 사찰예법, 종단현황, 조계종 사회봉사 현황, 불교상식, 불교용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포교원은 고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포교사 고시내용과 운영방법 예상문제 등을 검토하는 '포교사 고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한편 학제 2년이상의 종단등록 불교대학 졸업자는 졸업논문 심사로서 포교사 고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포교사 고시 시행이전 자격 취득자는 자격을 인정하되 포교활동 보고서 제출등 포교사로서의 활동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포교원장 정락스님은 "포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신심과 원력이 투철한 우수한 포교사 양성을 위해 포교사 고시를 실시한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재교육과 자료제공으로 포교사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차후 명실상부한 신도지도자로서의 배출을 목표로 한다"고 포교사 고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함께피울 육화의 꽃"

전불련(상임의장 지선스님)은 지난 1일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제2회 통일문화제를 개최했다.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작춤, 합창등 다양한 통일염원 행사가 펼쳐졌다.

청주 불교단체협 창립

실업인회등 13개 단체

청주지역 직능별 신행단체들의 협의체인 청주불교단체협의회가 창립된다. 청주불교실업인회, 충북교수불자회, 충북전화국불자회등 13개 신행단체는 지난 5일 창립을 위한 임시회의를 갖고 오는 14일 오후 6시30분 청주불교실업인회 사무실에서 창립키로 결의했다.

이날 각 단체장들은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신행단체들의 응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임시의장에 김동원(충북교수불자회) 회장을 선출했다.

만해스님 열반 51주 지난 20일 추모법회

선학원과 만해사상연구회는 지난달 29일 선학원에서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 한용운 선사 51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또한 대불청도 지난 20일 '만해정신'에 대한 강연을 열고 이어 29일 망우리 만해스님 묘소를 참배, 추모법회를 가졌다.

한편 충남 홍성군청과 홍성문화원은 8월11일부터 일주일간 '만해제'를 개최하며, 만해사상연구회는 '한용운 특별 기획전'을 가질 계획이다.

연꽃어린이 포교회 24일 개최

레크레이션 포교회, 포천 베어스타운

불교레크레이션포교회(회장 법현)가 '95 연꽃어린이캠프'를 오는 24일 ~26일까지 포천 베어스타운 리조트에서 개최한다.

법현스님은 이번 연꽃캠프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현장과 자연의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도하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는 재미있는 불교공부, 환경영화관람, 수영강습, 퀴즈대회, 캠프파이어 등 지덕체(智德體)를 두루 갖추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불교방송 특집 공개방송의 화려한 무대도 마련된다. (02) 742-0085

신행단체들 불교진흥 세미나

합동연합 직장법회등 12개 신행단체는 지난 2일 관악산 연주암에서 불교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불교계 기풍 쇄신 △사찰신도회 조직 △신도법 법령등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통일법요집 편찬준비 토론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지난 5일 녹수청산에서 제2차 통일법요집 편찬준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식의 다원화 △한글화 △전통의식 보존 △북한불교의식 검토 등에 관한 토론을 펼쳤다.

대구불교교육원 합동졸업식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 부설 불교대구교육원 합동졸업식이 지난 5일 고려예식장에서 거행됐다.

스님들과 재학생, 졸업등문, 가족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졸업식에서 22기 28명, 23기 32명등 모두 60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해인사서 내달 14일 행자교육

조계종 제9기 행자교육원이 오는 8월14일부터 9월6일까지 가야산 해인사에서 개최된다.

교육대상은 불기 2539년 3월14일 이전 남녀 행자로서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02)732-4923~4.

특수학교 운영관리 세미나

조계종 교육원이 주최한 '특수학교 개설과 운영관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녹수청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교미술, 음악, 건축 등의 예술분야와 신문, 방송, 영상 등의 전문분야에 관한 특수학교 설립과 전문가 양성이 논의됐다.

14일 중앙승가대 운영회의

중앙승가대 발전위원회 제2차 운영위원회가 오는 14일 12시 소피텔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운영위는 학사이전 건립비에 대한 종회 의결사항과 기공식 준비에 따른 세부사항, 승가대 승격에 대한 제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림회 호국선열 위령대제

대한불교 청림회(회장 김경술)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8월13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호국선열 및 전몰장병 위령대제'를 봉행한다.

각 종단 스님을 비롯 희생자·유가족들이 참석하는 이번 위령제는 불교전통의식으로 치뤄진다. (02)683-0727.

금산사 우회도로 개설 부당

주민들 '기존도로 확장' 전북도에 요구

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주지 도영스님)은 최근 사하촌 주민 4백50여명의 연명날인을 받아 '새 우회도로 개설취소와 기존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관계요로에 냈다.

금산사와 지역주민들은 "15년전에 계획된 도로계획을 전북도가 갑자기 수정, 문화유적지와 반대방향으로 새 우회도로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도로보다 1㎞를 연장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도로는 보연사를 비롯 지역문화 유적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관광객과 참배객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전북도는 이와관련 "기존노선이 난구간으로 확장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수효사, 1천일 지장기도 회향

경전 33만권 법보시…15일 고승 초청법회

수효사(주지 무구스님)가 오는 15일 '세상을 밝히는 지장경 33만권 법보시 및 천일기도 회향법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생전예수재 및 천도재도 아울러 봉행한다.

날로 각박해지고 살벌해지는 이 세상에서 지장경이 구세의 구심점이 될수 있는 지침서로서 널리 세상에 펴고자 원력을 세운 무구스님의 뜻에 따라 지난 92년 9월 시작한 지장경 법보시는 그동안 군부대 교도소 전국의 사찰 등에 33만권이 법보시됐으며 지장경 독경의 붐을 일으켰다.

15일 오전10시30분부터 개최되는 회향법회에는 월탄스님(한국불교발전연구원장)이 법문을 설하며 특히 스리랑카의 시암종 부종정인 팀브리위위 소비타스님이 특별초청 법문한다.

수효사는 오는 8월17일부터 30일까지 천일기도 회향기념으로 중국 구화산 지장스님을 참배하며 오는 길에 백두산에 들러 통일기원법회도 봉행한다. 또한 내년 3월에는 지장스님 육신불 봉안과 함께 지장스님 유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02)313-5047

통일염원 국토순례

27일 탑골공원서 회향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이를 위한 세계종교인들의 협력 모색을 위한 제1회 '생명과 평화에의 제종교 통일염원 합동 국토순례'가 지난 5일 광주 증심사에서 발대식을 갖고 23일간의 일정으로 대장정이 시작됐다.

한국의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과 일본의 준지스님(묘법사)을 비롯한 양국종교인 20여명은 판문점을 거쳐 27일 탑골공원에 이르는 순례길에 올랐다.

부산불교종합통신 개설

8월부터 교리강좌·법문·교계소식등 제공

컴퓨터 통신을 통한 불교계의 각종 정보교환과 포교를 맡게될 정보통신망이 부산에 구축된다. 범어사 불교청년회를 비롯 부산지역 신행단체들은 컴퓨터 통신망 '나우콤'에 (가칭)부산불교종합통신(대표 화랑스님 범어사포교국장)을 설립하고 8월1일 개통한다.

이번에 구축되는 부산불교종합통신에는 주메뉴로 △회원정보 △부산불교계의 새로운 소식안내 △초발심자 상담실 △알기쉬운 불교기초교리 강좌 △스님법문 △이야기 꽃을 피우며 △불교를 빛낸 사람 △불교도서소개 △불교자료실 △대화방 △자원봉사자를 위한 모임 등이 마련된다.

부산불교종합통신망 설치 실무작업을 맡고있는 임한석씨(범어사 불교 청년회장)는 "컴퓨터통신은 불사나 각종 법회와 관련한 수많은 자료를 한군데 모아 놓아 스님과 각 단체에서 쉽게 관련자료를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다"며 "각 사찰의 신행단체와 학생회의 상호정보교환과 포교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불교종합통신의 불교정보는 컴퓨터통신 나우콤에 가입하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학생 7천7백원, 일반 9천9백원이다.

〈부산=박병근 기자〉

사회복지 1백일조사 조계종 단계 실시

불교종합사회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위한 사회복지 1백일 조사작업이 오는 8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지난달 23일부터 교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작업을 위해 불교관련 사회복지시설단체, 조계종 전국사찰의 복지시설 및 지원현황, 지방자치단체별 시설설치계획 등으로 나눠 조사에 착수했다.

발전추진위 모색키로

선학원, 기금조성도 논의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정일스님)은 지난 1일 선학원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재단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단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발전추진위원회' 구성을 모색키로 했으며 연구원, 승려노후복지시설등 재단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형성을 위해 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무의탁노인 보금자리 조성

자비원 지난 6일 개원

무료양로원 자비사 자비원(원장 법우스님)이 지난 6일 부처님 점안식과 개원식을 갖고 무의탁 불우노인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로서의 본격 활동에 나섰다.

오전 9시 부처님 점안식에 이은 개원식에는 직지사 주지 녹원스님을 비롯 시현스님(조계종 문화사회부장) 법등스님(도리사 주지)등 조계종 제8교구 본 말사 스님, 구미시장등 기관장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구미시 도개면 신림동 464-1에 소재한 자비원은 대지 2천4백여평에 연건평 3백여평 2층 건물로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1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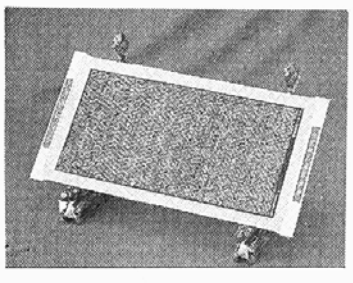


◇자비사 자비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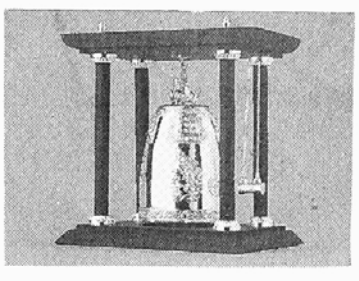
구독신청: 737-0693

불기 2539년 불교미술 공예품 특별기획전 행사특가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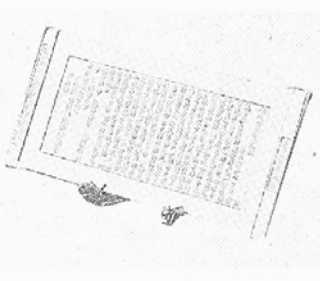
구입문의 기획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수신자부담)



선착순 48점
• 비경 전통금강경 경판
부처님 천 분을 양각하여 모시고 가운데 금강경을 입체사경한 비경
• 종전가 ₩ 380,000
• 행사특가 ₩ 380,000
■ 재질 주석 99%(순금개금)
■ 규격 505×255×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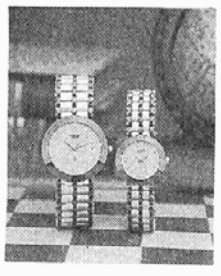
선착순 118점
• 황금 에밀레종
■ 국보 제29호
■ 재질 순청동, 순금개금
■ 규격 235×185×270(m/m)
• 종전가 ₩ 118,000
• 행사특가 ₩ 98,000



선착순 108점
• 금동반야심경
■ 국보 제32호(고려광명대장경)
■ 재질 순동 24K 개금
■ 규격 가로 260× 세로 99(m/m)
• 종전가 ₩ 128,000
• 행사특가 ₩ 68,000

품질 / 디자인 / 품위는 60만원대 예물시계 가격은 10만원대

천연보석 지로코늄 예물시계 – 콤비



PHOENIX
(주)피닉스 시계
18K금용두
• 원석사파이어크라스
• IPG순금이온도금
• 3기압완전방수
• 안조콤비패션밴드
• 시중가 ₩ 339,000
• 행사특가 ₩ 128,000

운명의 길을 열어주는
보살기(氣)띠부적 메달

천운을 만나는 부적 천지인의 인연

띠부적이란?
인간은 누구나 12간지에 따라 12년을 하나의 주기로 운명의 변모를 합니다.
12년마다 되돌아오는 자신의 운명지수의 변동을 인연보살 천지인의 氣로써 천운의 길로 돌려 놓는 불가사의한 부적입니다.
각 띠별로 자신의 궤도를 미리 알아 매사를 성사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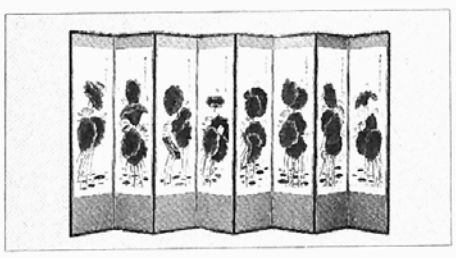
■ 띠부적메달견본
• 앞면 (보살상)
• 뒷면 (띠별12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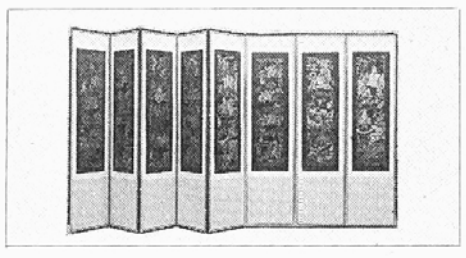


■ 순은 (99.9%) 18.75g ■ 가격 ₩ 48,000(체인포함)

(子)쥐띠(한웜보살) 甲子生, 丙子生, 戊子生, 庚子生, 壬子生	(午)말띠(여의륜보살) 庚午生, 壬午生, 甲午生, 丙午生, 戊午生
(丑)소띠(천수보살) 乙丑生, 丁丑生, 己丑生, 辛丑生, 癸丑生	(未)양띠(대세지보살) 辛未生, 癸未生, 乙未生, 丁未生, 己未生
(寅)범띠(대륜보살) 丙寅生, 戊寅生, 庚寅生, 壬寅生, 甲寅生	(申)원숭이띠(십일면보살) 壬申生, 甲申生, 丙申生, 戊申生, 庚申生
(卯)토끼띠(수월보살) 丁卯生, 己卯生, 辛卯生, 癸卯生, 乙卯生	(酉)닭띠(군다리보살) 癸酉生, 乙酉生, 丁酉生, 己酉生, 辛酉生
(辰)용띠(관세음보살) 戊辰生, 庚辰生, 壬辰生, 甲辰生, 丙辰生	(戌)개띠(정취보살) 甲戌生, 丙戌生, 戊戌生, 庚戌生, 壬戌生
(巳)뱀띠(관자재보살) 己巳生, 辛巳生, 癸巳生, 乙巳生, 丁巳生	(亥)돼지띠(아미타불) 乙亥生, 丁亥生, 己亥生, 辛亥生, 癸亥生



선착순 18점
• 林泉 거사 물성 연화도 병풍
전품
■ 후면 : 반야심경(금정산인정관)
■ 높이 : 5자 5치(약 167cm)
■ 폭 : 12자(약 364cm)
■ 재질 : 고급스기목, 스모사 비단
• 종전가 ₩ 549,000
• 행사특가 ₩ 380,000



선착순 20점
• 석가세존 부처님 일대기 병풍
장엄하신 세존부처님의 일대기를 금화로 조성한 살아있는 병풍입니다.
• 8폭 •
■ 높이 : 5자 5치(약 167cm)
■ 폭 : 12자(약 364cm)
• 종전가 ₩ 328,000
• 행사특가 ₩ 298,000



전품
만다라
티베트 스님께서 지성과 공덕으로 탄생시킨 불가사의한 영성의 법력도
선착순 32점
■ 규격 : 580×480(m/m)
■ 재질 : 스기목, 입체표구(원제풍)
• 종전가 ₩ 500,000
• 행사특가 ₩ 420,000

"부처님과 함께하는 山寺의 수련법회"

해인사 여름수련법회 접수마감!

• 감사합니다 •

팔만 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매년 여름 수련법회를 갖고 있습니다. **출가 4박 5일** 일정으로 부처님 말씀의 지고함을 배우고 신신을 청정히 하며 보다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뜻있는 자리가 될 가야산 해인사 여름 수련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95 여름수련법회 일정(7월 1일 ~ 8월 12일)

순차	기 간	인 원	연 령	대 상 자
제1차	7월 1일 ~ 7월 5일	100명	20~60세	일 반
제2차	7월 8일 ~ 7월 12일	100명	〃	일 반
제3차	7월 15일 ~ 7월 19일	100명	〃	일 반
제4차	7월 24일 ~ 7월 27일	150명	—	중고등학생
제5차	7월 28일 ~ 7월 30일	200명	—	어린이
제6차	8월 1일 ~ 8월 5일	120명	20~60세	일 반
제7차	8월 8일 ~ 8월 12일	120명	〃	일 반

■ 참가자격 : ① 불교신자 ② 무종교자(각본사 또는 재적사찰 주지스님의 추천서 첨부)
■ 장 소 : 해인사 보경당
■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간단한 침구류, 우산, 고무신(운동화) 지참
■ 해인사 증무소 : 전화 (0599) 31-1001~2
■ 주 소 : (우편번호 678-895)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 포 교 국 : 전화 (0599) 31-1020 / 팩스 (0599) 31-1010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해인총림 해인사

동국 제일의 수련도량

황악산 직지사 여름연수

■ 여름연수기간 : 7월 ~ 8월 ■ 대 상 : 불교계 각 단체(일반·청년·종립학교 등)

서기 418년, 아도화상에 의해 세워져 1천 6백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하고,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심어온 직지사는 7백 명의 대중이 법회를 가질 수 있는 설법전을 1992년 6월 완공, •1층 전관 식당 •2층 전관 빈객 접대를 겸한 11개 방사 •3층은 전체 설법전으로 구성하고 비디오, 오디오 등의 첨단적인 시청각 시설을 갖추어 대중들의 수행과 수련결사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신 많은 단체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연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 직지사 주소 : 경북 금릉군 대항면 운수동 216
종무소 : 0547-436-6174 / 연수원 : 0547-436-6606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 지 사

신흥사·청소년수련원 여름 수련대회

제35차 어린이 불교학교

• **주제:** 우리도 부처님 같이
• **일시:** 불기 2539년('95) 7월 23일 ~ 7월 25일 12시까지 도착(2박 3일간)
• **대상:** 국민학생 300명(개인, 단체)
• **회비:** 20,000원
• **준비물:** 공양미, 세면도구, 그림도구, 필기도구
• **접수마감 되었습니다.**

제28차 청소년 수련대회

• **주제:** 이땅의 희망, 그대 청소년 불타의 가르침과 함께
• **일시:** 불기 2539년(95) 7월 27일 ~ 7월 30일 12시까지 도착(3박 4일간)
• **대상:** 중·고등학생 200명(개인, 단체)
• **회비:** 25,000원
• **준비물:** 공양미, 세면도구, 필기도구
• **접수마감:** 7월 15일까지

제9차 성인 수련대회

• **주제:** 보살의 원력으로…
• **일시:** 불기 2539년(95. 8. 5~8. 7일) 12시까지 도착(2박 3일간)
• **대상:** 대학생, 청년, 성인 200명(개인, 단체)
• **회비:** 25,000원
• **준비물:** 공양미, 세면도구, 필기도구
• **접수마감:** 7월 20일까지
• **교통편:** 수원 시외버스터미널-서신행 직행버스-신흥사 입구하차(약 50분 소요)

※ 불교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영상화 제작

전화 : (0339) 57-3916, 57-2695 / 팩스 : (0339) 57-8687

대한불교 조계종 신흥사·청소년수련원

'95 전국 청소년 하계 극기 수련대회

•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

불교 청소년들의 보다 건전한 육성과 세계화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진취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수련회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 일 시 : 1995년 7월 28일 ~ 7월 31일 (3박 4일)
■ 장 소 : 속리산 유스타운
■ 참가대상 : 불교 청소년 150명(선착순)
■ 참가회비 : 25,000원(기념T-셔츠, 교재 지급 및 법주사 답사) (1인 소요경비 70,000원 중 45,000원은 본부에서 지원)
■ 준비사항 : 세면도구, 필기도구, 간편한 복장, 랜턴, 발우공양준비 (공기 또는 대접 4개, 수저, 깔판, 보자기)
■ 주 최 :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 후 원 : 문화체육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현대불교신문사
■ 참가회비 : 25,000원(기념T-셔츠, 교재 지급 및 법주사 답사)

주소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9-1 상운중심 3층
(전화) 02-735-8165, 733-5138 / (팩스) 02-722-6623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박 현 성 합장

'95 연꽃 캠프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지내며 신나고 보람 있는 방학을 위한 연꽃 캠프가 개최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실천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통한 다채로운 심성개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 이번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 **일시 :** 불기 2539(1995)년 7월 24일 (월) ~ 7월 26일 (수)
■ **장소 :** 경기도 포천 베어스 타운 리조트
■ **대상 :** 국민학교 1학년 ~ 6학년
■ **PROGRAM :** 재미있는 불교공부, 환경영화관람, 수영강습, 기구를 이용한 협동놀이, 퀴즈대회, 캠프파이어, 불교방송(BBS) 특집 공개방송 개최 등.
■ **회비 :** 45,000원(숙식, 차량, 기념품, 롯데월드 이용권 포함)

문 의 :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 (전화) 935-4967
선재이벤트 (전화) 926-7760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까치마을회 여름불교수련회

• 주제 : 인성개발로 예의 바르고 효도하는 불자가 되자. •

불자들이여, 모이자, 수련회로! 배우자, 조상의 얼과 효를! 실천하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 1차-일반인 : 불기 2539년 7월 15일 ~ 7월 17일 (2박 3일)
• 2차-어린이 : 불기 2539년 7월 21일 ~ 7월 22일 (2박 3일)
• 3차-청소년 : 불기 2539년 7월 23일 ~ 7월 27일 (4박 5일)
• 장 소 : 김천 직지사 북암 연수원
• 대 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남·녀 학생 및 일반인(일반인은 가족중심)
• 인 원 : 어린이 ~ 200명, 청소년 ~ 300명, 일반가족 ~ 100명
• 회 비 : 어린이 3만원, 청소년 3만원(청소년 교통비 별도), 일반인 3만원
• 준비물 : 공양미 큰 1되, 필기도구, 세면도구, 양말 5켤레, 수건 3장, 랜턴, 그릇 4개, 수저
• 접수마감 : 7월 15일(수련회 당일 접수 안됨)
• 기 타 : 1) 자원봉사자 모집(지도하실 스님, 공양주 보살)
2) 회비 송금처 : 국민은행 온라인(812-21-0329-747) 임욱상
우 체 국 온라인(103531-0033438) 임욱상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회 (02) 876-3384~5

대원사 주말 수련회

• 1박 2일 출가생활 •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에서는 재가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을 위해 '맑고 향기롭게'란 수련 주제로 아래와 같이 1박 2일의 단기출가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성을 맑혀 향기로운 삶을 이루기 위한 대원사 주말수련회에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매주 토요일 5시 ~ 일요일 2시(10명 이상 단체 환영)
■ **수련내용:** 염불명상법, 선체조, 자비관, 관정기도, 육근참회, 백만편 염불, 사경, 티벳불교 명상법
■ **수련지도:** 현장스님
■ **회비 없음**
■ **교 통 편:**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117번, 217번 시내버스 타고 (사평종점 하차) 대원사까지 택시(혹은 근내버스)

주소 : 546-84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전화 : (0694) 52-1755 / 팩스 : (0694) 53-0009

지장보궁 염불선도량 대원사

'95 대원불교대학 하계 스쿨링

귀의 삼보하옵고
1995학년도 대원불교대학 하계 스쿨링에 즈음하여
대원가족 여러분이 다함께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일 시:** 1995년 7월 21일 (금) ~ 23일 (일) 2박 3일
■ **장 소:** 불암사
■ **대 상:** 대원불교대학 재학생 및 법사단, 대원불교대학 동문회
■ **참 가 비:** 50,000원
■ **준 비 물:** 목탁, 요령, 아미타경, 통일법요전,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단한 침구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대 원 불 교 대 학

맑은 마음 / 좋은 벗 / 깨끗한 땅

정토 수련회 '95 여름수련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1리 118번지
전화 : 0581) 71-6031 / 전송 : 0581) 71-6030

※ 정토수련원은 매 순간마다 깨어 있고 자타가 둘이 아님을 알며 이웃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하는 맑은 마음을 지닌 이래사회의 새로운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 정토수련원은 자신을 잘 바라 보는 것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쁨 속에서 서로를 나누며 교감하여 하나가 되는 좋은 벗을 지향합니다
※ 모든 수련은 반드시 사진 촬수합니다 단체참여도 가능합니다
※ 정토수련원은 일과 수행의 공동체로서 자신이 체험한 진리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현해 보려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동사를 지으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공동체로 깨끗한 땅을 일구어 가고자 합니다
※ 정토수련원은 참선 염불 주력 간경 참회 등 불교의 각종 수행법에 따른 수행지도 및 점검받을 수 있는 불자들의 열려 있는 장이고자 합니다
※ 모든 수련은 오후 4시에 시작하며 정오에 끝납니다

특별단체수련
● 어린이 환경캠프
제1차 7.24(월)- 27(목) 3박4일 국민학생
● 청소년 수련
제4차 7.27(목)- 30(일) 3박4일 중 고 생
● 대학생 수련
제1차 7. 7(금)- 8(토) 1박2일 대 학 생
제2차 7.12(수)-13(목) 1박2일 대 학 생
● 청년 수련
제6차 8. 2(수)- 5(토) 3박4일 청 년
● 일반신도수련
제5차 8. 5(토)- 6(일) 1박2일 일반신도

깨달음의 장
제81차 6.21(수)-25(일) 4박5일 일 반
제82.83차 7. 3(월)- 7(금) 4박5일 대학생
제84.85차 7. 8(토)-12(수) 4박5일 대학생
제86차 7.13(목)-17(월) 4박5일 일 반
제87차 7.14(금)-17(월) 3박4일 직장인
제88차 7.19(수)-23(일) 4박5일 일 반
제89차 7.24(월)-28(금) 4박5일 중,고생
제90차 8. 2(수)- 6(일) 4박5일 일 반
제91.92차 8. 9(수)-13(일) 4박5일 일 반
제93차 8.16(수)-20(일) 4박5일 일 반
제94차 8.23(수)-27(일) 4박5일 일 반

나눔의 장
제31차 6.13(화)-18(일) 5박6일 일 반
제32.33차 7. 3(월)- 7(금) 4박5일 대학생
제34차 7. 8(토)-12(수) 4박5일 대학생
제35차 7.18(화)-23(일) 5박6일 일 반
제36차 8. 8(화)-13(일) 5박6일 일 반
제37차 8.22(화)-27(일) 5박6일 일 반

진언명상
제 7차 7.13(목)-17(월) 4박5일 일 반
제 8차 8.16(수)-20(일) 4박5일 일 반

염불수행
제 3차 7.25(화)-29(토) 4박5일 일 반

접수 및 문의 : 정토수련원(전화 : 0581-71-6031) 중앙불교교육원(전화 : 02-522-2841, 02-582-1080)

하계 위빠사나 명상수련원 개설

보덕사에서는 위빠사나 명상 수련원을 개설합니다.
뜻 있으신 분은 다만 몇일이라도 동참하여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7월 20일 ~ 8월 10일 (20일간)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보덕사(강원도 영월군·읍 영흥12리)
※ **교통편 ➡** 버스 : 동서울터미널 - 영월 (3시간 소요)
기차 : 청량리역 - 영월 (3시간 소요)
영월티미널역) - 보덕사 택시기본요금
■ **준비물 :** 개인소지품(세면도구, 모포)
■ **동참금 :** 1일 1만원
■ **지도법사 :** 보덕사 주지 현오스님('미얀마 72일' 저자)
■ **주의사항 :** • 단체 이틀 전 신청 바람
• 시간 엄수
• 오후 불식
• 묵언
■ 보살님 자원봉사 필요합니다.

■ 시간표

4시	예 불
6시	아침공양
8시	경 행
9시	좌 선
10시	사시불공
11시 30분	점심공양
1시	경 행
2시	좌 선
3시	경 행
4시 ~ 5시	좌 선
6시	저녁예불
8시	좌 선
9시	취 침

문의처 : 영월 보덕사 (0373) 374-3169